

수능특강

사회탐구영역 | 윤리와 사상

I 인간과 윤리 사상

01	인간과 윤리 사상	8
----	-----------	---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02	유교와 인의 윤리	18
03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31
04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42
05	도가 사상과 무위자연의 윤리	55
06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65

Ⅲ 서양 윤리 사상

07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78
08	행복 추구와 신앙	90
09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101
10	옳고 그름의 기준: 의무와 결과	112
11	현대의 윤리적 삶: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125

Ⅳ 사회사상

12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138
13	국가와 시민	147
1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60
15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173



인간과 윤리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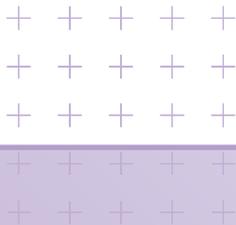


EBS 교재 연계 사례

학습 요소

-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
- 인간의 삶에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
- 인간의 삶에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

❶ 이 단원에서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탐구하고, 인간의 삶에서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 및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에 대해 고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해 탐구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1번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랑스러운 제자 ○○님께

지난 번 편지에서 질문한 인간다움의 본질인 인(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서(恕)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토대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방법과 자신이 이루고자 하면 타인도 이루게 해 주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 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회 공동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 ② 모든 분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만물을 차별 없이 응대해야 한다.
- ③ 겸허와 부쟁(不爭)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
- ④ 사성제(四聖諦)를 깨달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私欲]을 극복하여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01 인간과 윤리 사상

2023학년도 EBS 수능완성 13쪽 01번

0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군주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게

자네가 지난번에 어진[仁] 정치에 대해 물었기에 어진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네. 하루라도 군주가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인(仁)으로 돌아갈 수 있다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며 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에, 군주는 먼저 자신이 덕을 갖춘 후에 백성들을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네. 이럴 때 비로소 어진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네.

- ① 법령과 형벌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 ②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
- ③ 자신을 수양하기에 앞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 ④ 덕에 근본을 두고 예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행해야 한다.
- ⑤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백성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답 ③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번 문항은 EBS 수능완성 13쪽 01번 문항의 문항 주제와 제시문 및 일부 선택지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공자가 강조하는 군주의 자세를 묻는 수능완성 문항을 활용하여 수능 문항은 ‘공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파악을 출제 의도로 삼고 있으며, 수능완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가상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인(仁)의 실천’이라는 제시문의 내용과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한다’는 선택지를 활용하였다.

공자를 비롯한 동서양의 주요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매년 출제되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주요 사상가들의 기본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를 확실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 유희(遊戱, play)

재미와 즐거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놀이 행위. 문화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윤리

‘윤(倫)’은 ‘사람[人]’과 ‘무리[倫(윤)]’를 합해서 만든 글자로 인간 집단을 의미하며, ‘리(理)’는 원래 옥(玉)을 다듬는 것을 뜻하였으나 점차 이치, 이법, 도리를 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윤리란 인간관계의 이법 또는 인간관계에서 따라야 할 도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개념 체크

- 1 인간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만들어 가는 ()적 존재이다.
- 2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적 존재이다.
- 3 맹자의 ()에 따르면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 악행을 저지러 수도 있다.

정답

- 1 서사
- 2 윤리
- 3 성선설

1. 인간에 관한 다양한 관점

(1) 인간의 특성

- ① 이성적 존재: 이성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음
- ② 도구적 존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함
- ③ 사회적 존재: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
- ④ 유희적 존재: 삶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놀이 활동을 함
- ⑤ 문화적 존재: 언어, 지식,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함
- ⑥ 종교적 존재: 초월적 존재를 믿으며 살아감
- ⑦ 서사적 존재: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만들어 감
- ⑧ 윤리적 존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도덕규범을 만들어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성찰함

자료 플러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국가(Polis)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어떤 우연이 아니라 본성으로 인하여 국가에 속하지 않는 자는 인간 이하의 존재이거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국가는 전체이며 인간은 그 부분에 속한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인간은 국가 안에 있을 때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사악한 동물로 전락하게 된다.

- 아리스토텔레스 -

자료 플러스 서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내 삶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정체성이 그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의 이야기에 속한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이다. 나는 과거를 안고 태어나는데, 나를 과거와 분리하려는 시도는 내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시도이다. ... (중략) ...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직 아니면 저 조직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한다.

- 매킨타이어 -

자료 플러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칸트 -

(2) 인간의 본성

관점	내용	대표자
성선설	• 인간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남 •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음	맹자
성악설	• 인간은 이기적이거나 악한 성품을 지니고 태어남 • 인간이 선한 것은 인위적·후천적 노력의 결과임	순자
성무선악설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환경에 달려 있음	고자

자료 플러스 인간 본성에 대한 고자와 맹자의 견해

고자(告子)가 말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 주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 주면 서로 흐른다. 인간의 본성을 선(善)과 불선(不善)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물이 동과 서로 구분 없이 흐르는 것과 같다.” 맹자가 말하였다. “물에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상하의 구분도 없겠는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가는 것과 같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 가지 않음이 없다.”
- “맹자” -

고자는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선 선한 네 가지 마음(四端(사단))이 있으며, 선한 본성을 구현하기 위해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1) 윤리 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
사례	동양의 유교·불교·도가 사상, 서양의 의무론과 공리주의 등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줌 • 바람직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줌 •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줌

(2) 사회사상의 의미와 중요성

의미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생각
사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이 됨 •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함 •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함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

- ① 차이점: 윤리 사상은 주로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탐구하고, 사회사상은 주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탐구함
- ② 공통점: 궁극적으로 인간다움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함
- ③ 상호 관련성
 - 개인의 삶과 사회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음
 - 도덕적인 사람이 모일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나 국가가 정의로워야 그 구성원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큼
 →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임

개념 체크

- ① () (이)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을 의미한다.
- ②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여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생각을 () (이)라고 한다.
- ③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은 () (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정답

- ① 윤리 사상
- ② 사회사상
- ③ 상호 의존

3.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의 역할

(1) 한국 및 동양 윤리 사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를 개체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로 맺어진 통합된 전체로 봄 →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구별과 차이보다 상호 연관성과 조화를 중시함 • 개인의 가치를 경시하지 않지만, 개인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봄 → 공동체 의식 속에서 개인의 인격 수양과 개인과 집단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계약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정감이 오는 공동체를 지향함
현대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의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환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상호 연관성을 강조하는 불교의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발생하므로 저것이 발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므로 저것이 사라진다. - "잡아함경" -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에 따르면 어떤 존재도 우연히 생겨나거나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존재한다.

(2) 서양 윤리 사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 구현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 → 때와 장소에 따라 강조되는 구체적인 도덕규범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고 봄 • 인간의 이성과 이성에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를 중시함 → 인간의 감각적 경험, 감정, 욕망 등에 바탕을 둔 윤리적 탐구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태도와 방법이 토대가 됨
현대적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 • 도덕적 삶과 행복, 바람직한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다양한 틀을 제공함

(3) 사회사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지침을 제공하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인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

- 예
-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민심을 존중하는 도덕적 정치가 실현되게 함
 - **자유주의:** 사람들이 봉건 사회의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바탕이 됨
 - **민주주의:** 시민 각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줌

자료 플러스 민본주의의 특징

-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 백성의 신임을 얻어야 천자가 되고, 천자의 신임을 얻어야 제후가 되며, 제후의 신임을 얻어야 대부가 된다.
- 임금의 푸줏간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도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쓰러져 있으니, 이는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맹자" -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고, 통치권의 근거를 백성에 두며, 백성의 복지를 추구한다.

※ 사직(社稷)

고대 중국에서 나라를 새로 세울 때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지내던 토지의 신(社)과 곡식의 신(稷)을 가리키며, 국가를 상징하는 말로 쓰임

개념 체크

- 1 불교 사상은 연기설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와()에 의해 생겨난다고 본다.
- 2 ()은/는 사람들이 봉건 사회의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 바탕이 된 사회사상이다.
- 3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社稷)이 그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 입장을 견지하였다.

정답

- 1 원인, 조건
- 2 자유주의
- 3 민본주의

[23014-0001]

01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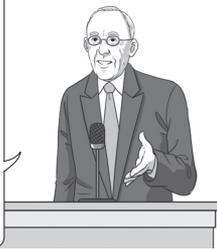
하늘[天]은 인간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하여, 선(善)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하고 악(惡)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하게 하였으니 인간의 마음은 유동적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권능이 인간에게 있으니 이것은 금수(禽獸)가 고정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러므로 선을 이루면 실로 자신의 공(功)이며, 악을 이루면 실로 자신의 죄이니, 이것은 마음의 권능이지 본성[性]이 아니다.

- ①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존재
- ② 도덕적 선택과 실천으로써 스스로 덕을 형성하는 존재
- ③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삶의 재미 자체를 추구하는 존재
- ④ 합리적 제도로써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존재
- ⑤ 동물과 달리 본성적으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23014-0002]

02 그림의 강연자는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려면 그 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입니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직 아니면 저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민족에 속합니다.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민족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을 ㉠ 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기

- ㄱ.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
- ㄴ. 관행이나 전통 등의 서사적 맥락을 지닌 존재
- ㄷ. 자연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무연고적 존재
- ㄹ.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존재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003]

03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의 통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옛날에 도(道)를 잘 닦았던 사람은 백성들을 총명하게 만들지 않고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다스렸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혜로 다스린다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 되고, 나라를 지혜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언제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을 오묘한 덕(德)을 지녔다고 한다.

- ①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는다.
- ② 백성의 악한 본성을 형벌과 법령을 통해 바로잡는다.
- ③ 백성의 배는 채워 주되 마음은 텅 비어 고요하게 한다.
- ④ 백성의 도덕적 삶을 위해 백성의 생계[恒産]를 보장한다.
- ⑤ 백성의 욕구를 성인이 제정한 예(禮)에 따라 충족시킨다.

[23014-0004]

0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 안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을 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영원한 필연성의 관점에서 자신과 신(神), 사물을 인식하며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의 시달림을 받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다.

- ① 실천 이성을 발휘하여 자연의 필연성을 벗어난다.
- ②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모방하는 삶을 살아간다.
- ③ 자유 의지에 근거하여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한다.
- ④ 인격신이 명령한 계율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간다.
- ⑤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질서를 파악한다.

[23014-0005]

05 다음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갭**, **을**, 병과의 가상 인터뷰이다. 이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참된 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갭: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신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 자신의 모든 삶을 신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을: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병: 인간을 죽음을 향해 가는 '현존재'로서 규정하고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용해야 합니다.

- ① 내세에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신에게 귀의한다.
- ②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인간의 한계 상황을 회피한다.
- ③ 구체적인 선택 상황에서 주체적으로 결단을 내린다.
- ④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세계를 이성적으로 관조한다.
- 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따른다.

[23014-0006]

06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단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명실상부한 국가라면 시민들의 탁월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란 구성원이 잘 살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많이 기여하는 자가 국가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다.
(나)	비람직한 국가의 시민은 어떤 삶을 누리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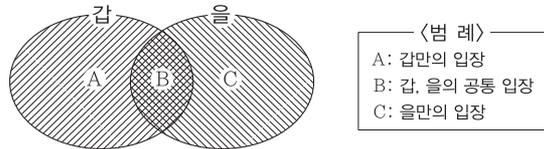
- ① 국가의 어떠한 관여도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
- ② 공적 영역에 참여하여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한다.
- ③ 사회 계약에 따라 정치적인 저항권을 행사한다.
- ④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⑤ 절대 군주의 통치하에 천부 인권을 보장받는다.

[07~08] 갭,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갭: 사람의 본성[性]이 선한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흐르지 않음이 없다. 사람이 불선(不善)을 행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라 외적인 힘에 의한 것이다.
 을: 사람의 본성과 감정[情]을 좇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분수를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난폭함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르는 교화와 예의의 교도가 있어야 한다.

[23014-0007]

07 갭,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ㄴ. B: 누구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
- ㄷ. B: 군자의 본성과 소인의 본성은 서로 다르지 않다.
- ㄹ. C: 예를 익혀야 하늘이 부여한 덕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08]

08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갭,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의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더 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더 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을 선과 불선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은 물이 동과 서로 구분 없이 흐르는 것과 같다.

- ① 갭은 본성은 단지 식색(食色)의 욕구일 뿐임을 간과한다.
- ② 갭은 본성을 길러 내고 마음을 보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을은 본성은 환경에 의해 선하게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을은 본성 외에 선한 마음[四端]을 타고남을 간과한다.
- ⑤ 갭과 을은 본성에는 선과 악이 혼재해 있음을 간과한다.

[23014-0009]

- 1 다음은 어느 근대 사상가와의 가상 대담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선생님, 도덕적 삶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합니까?

사상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실천 이성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해야 할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마음을 쓰는 일은 어떤 점에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행복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행복이 없는 것이 자신의 의무에 어긋난 행위를 하도록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으로 보는 윤리 사상을 비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상가: _____ ㉠ _____

- ①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② 행복의 추구하고 도덕적 의무의 이행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③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행복의 수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④ 행복의 추구가 경향성의 실현을 필연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 ⑤ 어떤 정언 명령을 따르더라도 행복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3014-0010]

- 2 다음 사상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색(色)은 항상됨이 없다[無常]. 항상됨이 없는 것은 곧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고 하느니라. 이와 같이 느낌[受], 표상[想], 의지[行], 의식[識]도 또한 항상됨이 없다. 항상됨이 없는 것은 곧 괴로움이고,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 '나'가 아니면 또한 '나의 것'도 아니다.

- ① 괴로움과 쾌락의 양극단을 벗어난 수행으로써 애욕을 끊어 버린다.
- ② 괴로움을 한계 상황으로 인식하고 초월자를 경험하는 계기로 삼는다.
- ③ 괴로움을 일으키는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 ④ 괴로움의 정념에 속박되지 않기 위해 이성을 계발하고 이성만을 따른다.
- ⑤ 괴로움을 바르게 관찰하기 위하여 영원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를 찾는다.

[23014-0011]

3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이 공통으로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리의 원리는 인간이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통치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리는 양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며 측정 가능합니다.

공리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편이 낫습니다.



- ① 보편적 도덕 원리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준수한다.
- ②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행위를 선택한다.
- ③ 다양한 쾌락을 경험한 사람의 선호를 기준으로 추구할 쾌락을 결정한다.
- ④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쾌락만을 충족하며 살아간다.
- 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부동심에 이르기 위해 힘쓴다.

[23014-0012]

4 그림은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이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은 통치자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네. 나는 통치자라면 각각의 실재에 대한 앎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영혼 속에 뚜렷한 본(本)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마치 화가의 그림 모델처럼, 가장 진실된 것을 주목하면서 언제나 거기에 연관 지으며 가장 정확하게 관찰함으로써, 아름다운 것들과 올바른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과 관련되는 이 세상의 관습을 정할 수 있는 사람. 나는 ㉠ 이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네.

- ①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여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한다.
- ② 지혜와 절제의 덕을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으로 여긴다.
- ③ 현상계의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이데아를 이성으로써 파악한다.
- ④ 자기 영혼의 수련을 통해 이성과 욕구를 기개의 다스림 아래에 둔다.
- ⑤ 좋음 자체에 대한 인식과 각 부분의 조화를 이룬 영혼을 지니고 있다.

[23014-0013]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몸은 자연에 따르는 것만 한 것이 없고 성정(性情)은 솔직하고 꾸밈이 없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만물과 더불어 화순(和順)하니 서로 혼연히 구별이 없어지고, 성정이 솔직하고 꾸밈이 없으니, 마음을 소모하지 않게 된다. 만물과 구별이 없어지고 마음을 소모하지 아니하면 장식하여 겉으로 드러날 필요가 없다. 장식하여 겉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그러므로 외물(外物)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①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고 자연에 순응한다.
- ② 만물의 생성을 조장(助長)함으로써 천하에 이로움을 더한다.
- ③ 하늘을 두려워하여 몸과 마음을 삼가는 공부(慎獨)에 힘쓴다.
- ④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마음을 텅 비워 타고난 본성을 교정한다.
- ⑤ 모든 사유 활동을 정지하고 오감(五感)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

[23014-0014]

6 다음을 주장한 사회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및 특권을 간섭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의 구성원은 불안정한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권력을 양도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 보기 」

- ㄱ. 인간의 정치·사회적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 ㄴ. 공평한 재판관과 집행 권력이 없는 불완전한 평화 상태이다.
- ㄷ. 구성원들의 정치적 저항에 의해 양도받은 권력을 잃을 수 있다.
- ㄹ.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II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EBS 교재 연계 사례

학습 요소

- 선진 유교 사상과 성리학 및 양명학 사상
- 한국 성리학과 실학사상
- 초기 불교 사상과 대승 불교 사상
- 한국 불교 사상
- 도가 사상과 한국 도교 사상
- 한국 근대 사상과 신흥 민족 종교
-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현대적 의의

❶ 이 단원에서는 동양과 한국의 중요한 윤리 사상들을 탐구하여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고, 주요 사상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합니다. 또한 유교·불교·도가에서 강조하는 이상적 인간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삶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현대적 의의를 고찰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항 2번

2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앎[知]과 실천[行] 공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사람의 두 발이 서로 앞뒤로 번갈아 내디뎌야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한쪽 발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을: 앎과 실천은 본래 하나의 공부일 뿐이다. 앎과 실천에 대한 옛 사람의 말은 모두 앎 또는 실천 중 어느 한쪽의 공부에 치우침을 보충하고 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두 가지 공부로 분명하게 나누는 것과는 다르다.

- ① 갑: 성인(聖人)이 되기 위해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② 갑: 앎과 실천은 함께 나아가야 하되 선후와 경중(輕重)은 가려야 한다.
- ③ 을: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 사물에서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
- ④ 을: 부모를 섬길 때 효의 이치[理]를 부모에게서 구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본성[天理]을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 02 유교와 인의 윤리
- 03 한국 유교와 인간의 도덕적 심성
- 04 불교와 자비 및 화합의 윤리
- 05 도가 사상과 무위자연의 윤리
- 06 한국과 동양 윤리 사상의 의의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25쪽 08번

08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지(知)와 행(行)을 둘로 나누어 먼저 알고 난 후에야 능히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종신토록 행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지는 행의 시작이요 행은 지의 완성이다. 성학(聖學)은 다만 하나의 공부이니, 지와 행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

을: 지(知)와 행(行) 공부,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마치 사람에게 있어서 두 발이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번갈아 내딛는 것과 같다. 지가 밝아질수록 행은 더욱 돈독해지고, 행이 돈독해질수록 지는 더욱 밝아진다.

- ① 갑: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행함의 시작이다.
- ② 갑: 불선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다.
- ③ 을: 이치의 궁구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은 무관하다.
- ④ 을: 앎과 행함의 선후는 있어도 경중은 논할 수 없다.
- ⑤ 갑, 을: 앎과 행함은 서로 의존하며 본래 하나가 아니다.

답 ①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2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25쪽 08번 문항의 문항 주제와 제시문 및 선택지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모의평가 문항은 수능특강 문항과 마찬가지로 ‘주희(성리학)와 왕수인(양명학)의 심성론과 수양론의 비교 이해 능력 평가’를 출제 의도로 삼고 있으며, ‘앎[知]과 실천[行]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과 선택지의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주희와 왕수인의 심성론과 수양론’은 수능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두 사상가의 심성론과 수양론의 핵심 내용 및 ‘앎[知]과 실천[行]의 관계’,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해석’ 등 두 사상가의 입장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EBS 연계 교재에는 이와 관련된 원전 자료와 문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자료들과 문항 제시문 및 선택지들을 꼼꼼히 읽고 각각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 제자백가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여러 사상가들과 학파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한비자 등과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을 통틀어 일컬음

◎ 효제와 충서

- 효(孝): 자식이 부모를 공경함
- 제(悌): 형제가 서로 아끼고 사랑함
- 충(忠): 조금의 꾸밈도 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함
- 서(恕):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림

개념 체크

- 1 공자가 말하는 () (이)란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의미한다.
- 2 공자가 말하는 () (이)란 사회 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공자는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통치인()을/를 강조하였다.

정답

- 1 예
- 2 정명
- 3 덕치

◎ 도덕의 성립 근거: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

1. 유교의 등장 배경

- (1)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諸子百家)가 등장함
- (2) **공자**: 춘추 시대에 하·은·주 삼대(三代)의 문화를 종합하여 유교 사상을 정립함

2. 공자의 사상: 유교의 토대 정립

- (1) **핵심 사상**: 인(仁)과 예(禮), 정명(正名)과 덕치(德治)
- (2) **인과 예 사상**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 효제(孝悌), 충서(忠恕) 등을 통해 표현되는 도덕적인 마음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 • 인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 →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야 인이 이루어짐

자료 플러스 인과 예의 관계

안연(顔淵)이 인에 대해 질문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욕(私欲)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극기복례)]이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겠는가?” 이에 안연이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선생께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 “논어” -

인과 예는 공자 사상의 핵심이다. 공자에 따르면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따르는 것이 인이다. 그러므로 예는 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명과 덕치사상

정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분[名]을 바로잡는 것 • 사회 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 →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덕치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정치 →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 다스려야 함

자료 플러스 공자의 정명과 덕치사상

- 명(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지지 않는다.
- 백성을 덕(德)으로 인도하고 예(禮)로써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된다. - “논어” -

공자는 정명을 덕치 실현의 기본 조건으로 여겼다. 공자에 따르면 덕치는 북극성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못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 (4) **경제사상**: 분배의 형평성 강조 → “통치자는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 (5)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군자(君子), 대동(大同) 사회

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는(修己而安人[수기이안인]) 사람 • 인의 구현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
대동 사회	인류이 구현되고 인재가 중용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살핌을 받는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

3. 맹자의 사상: 도덕적 마음 강조

(1) 성선설(性善說)

- ①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四端)을 지니고 있음

개념 플러스 맹자의 사단과 사덕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인(仁)의 단
수오지심(羞惡之心)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의(義)의 단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 예(禮)의 단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 지(智)의 단

- ②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을 지니고 있음

양지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 ←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
양능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

- (2) **이상적인 인간**: 대인(大人) 또는 대장부(大丈夫) → 인의를 구현한 인간, 집의(集義)를 통해 길러지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인간

인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 ← 사람이 거처해야 할 곳
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정의 ← 사람이 걸어야 할 길
집의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함
호연지기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개

- (3) **수양 방법**: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음[求放心(구방심)], 욕심을 적게 가짐[寡欲(과욕)],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림[存心養性(존심양성)], 사단을 확충함

(4) 정치사상

- ① 왕도(王道) 정치를 추구하고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인정함

왕도 정치	인의(仁義)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
역성혁명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그 군주를 바꿀 수 있음

- ②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恒産(항산)]이 있어야 변치 않는 도덕심[恒心(항심)]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함

❖ 맹자의 인과 의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놓아둔 채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애처롭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求放心(구방심)]일 뿐이다.”

❖ 맹자의 왕도 정치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즉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에 기반을 둔 정치. 이러한 정치는 사단(四端)에 기반을 둔 정치 또는 인과 의에 기반을 둔 정치라고 할 수도 있음

개념 체크

- 1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인 ()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맹자가 주장한 대인(大人)은 ()을/를 통해 호연지기를 길러 갖춘 인간을 가리킨다.
- 3 맹자에 따르면 백성들은 ()이/가 있어야 항심이 있을 수 있다.

정답

- 1 양지
- 2 집의
- 3 항산

㉔ 탕(湯), 결(桀), 무(武), 주(紂)

- 탕과 결: 탕은 고대 중국의 은(殷)나라를 창건한 왕. 하(夏)나라의 포악한 군주 결에 대항하여 군대를 일으켰다고 함
- 무와 주: 무는 주(周)나라를 세운 왕. 부패하고 타락한 은나라의 주왕을 정벌했다고 함

개념 체크

- 1 순자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은 모두 ()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 2 순자에 따르면 () (이)란 성왕이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 3 순자는 ()을/를 도덕의 근원이 아닌 물리적인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정답

- 1 성정
- 2 예
- 3 하늘

자료 플러스 맹자의 정치사상

- 백성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임금이라면 백성 또한 그 임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백성의 근심을 걱정하는 임금이라면 백성도 임금의 근심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서도 왕자(王者)가 되지 못한 자는 아직까지 없었다.
- 항산(恒産)이 없어도 항심(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明君(명군))는 백성들의 생업을 관장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준다.
- 제선왕이 물었다. “탕(湯)이 결(桀)을 내쫓고 무(武)는 주(紂)를 정벌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옛 책에 적혀 있습니다.” “신하가 그 군주를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고 하며 잔적(殘賊)한 자를 일개 사내라 하니,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紂)를 베틀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 “맹자” -

맹자는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즐거움뿐만 아니라 근심도 백성과 함께 나누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으며 백성의 항산 보장을 통치의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또한 인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임금을 바꾸는 것을 정당한 일로 보았다.

4. 순자의 사상: 제도적 규범 강조

- (1) **성악설(性惡說)**: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偽(위)]의 결과임

자료 플러스 순자의 성악설

- 사람의 성(性)은 나면서부터 이악을 좋아한다. 그것을 따르면 다투고 빼앗게 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를 따르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신뢰가 사라진다. 그리고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구가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색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면 음란이 생기고 예의와 규범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는 뒤에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규범에 맞게 되어 다스려지는 데로 돌아갈 것이다.
-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人爲)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따르고 정에 순응해서 멋대로 성내고 이익을 탐하며 다투고 빼앗기 때문이다.
- “순자” -

순자에 따르면 군자와 소인은 모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본성에 따라 다투고 빼앗는 소인과 달리 군자는 본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에 귀하게 여겨진다.

- (2) **예(禮) 사상**: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化性起偽(화성기위)]을 강조함

예

- 고대의 성왕(聖王)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 규범
- 사람들의 성정을 선하게 변화시키고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사회 규범 → 도덕 생활과 통치의 표준

- (3) **예치(禮治) 사상**

- ① 고대의 성왕이 제정한 예로써 다스려야 함
- ② 덕을 헤아려서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겨야 함

자료 플러스 순자의 예와 예치 사상

- 예는 어째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고대의 성왕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한 까닭에 예의를 제정해 구분을 지었다.
-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 있다.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王者)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霸者)가 된다. - "순자" -

순자는 예와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순자는 예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보았으며, 예(禮)를 근본으로 삼는 통치를 왕도(王道)로 규정하였다.

(4) **자연관**: 공자, 맹자와 달리 하늘을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자 자연법칙으로 보았으며,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의 것[天人分二(천인분이)]이라고 주장함

☉ 도덕 법칙의 탐구 방법: 성리학과 양명학 사상

1. 유교 사상의 전개

- (1) **진(秦)나라 시대**: 법가·병가의 부국강병책이 중시되었고,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 발생함
- (2) **한(漢)나라 시대**
 - ① 유교가 국학으로 인정됨에 따라 교육 정책의 중심이 됨
 - ② 분서갱유로 인해 소실된 유교 경서를 복원하는 경학과 그 내용에 대한 주석을 하는 훈고학이 발달함
- (3) **송(宋)나라 시대**
 - ①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재해석하고 불교와 도가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성리학이 등장함
 - ② 이기론(理氣論)에 근거하여 인간과 우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고, 성인(聖人)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음

2. 주희의 성리학 사상: 사물의 이치 규명 강조

- (1) **특징**: 성리학을 집대성함
- (2) **핵심 사상**

이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물은 이(理)와 기(氣)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짐 • 이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이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임 •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理氣不相雜(이기불상잡)], 사물에서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음[理氣不相離(이기불상리)]
심성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성(性)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理]이며, 성에는 인의예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 • 성은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구분되며, 본연지성은 순선하나 기질지성은 기질의 맑고 흐린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임 →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함
수양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경 궁리(居敬窮理):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함 •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지극히 함 • 존양성찰(存養省察): 양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며 반성하고 살핌 • 존천리거인욕(存天理去人欲):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함

☉ 천인분이(天人分二)

하늘[天]과 인간[人]은 엄연히 분리[分]된 두 가지[二]일 뿐이라는 사유. 순자의 하늘은 인간에게 선한 본성과 도덕규범을 부여하는 실체가 아니며, 인간의 선악에 감응하는 것도 아님

개념 체크

- ① 주희에 따르면 ()은/는 만물을 낳는 근본 원리이고 ()은/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이다.
- ②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성(性)은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며 성에는 ()이/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 ③ 주희에 따르면 () (이)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이다.

정답

- ① 이, 기
- ② 인의예지
- ③ 격물치지

◎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본연지성은 천지지성(天地之性)이라고도 하며, 성을 구성하는 이(理)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氣)가 결합된 상태, 즉 기질의 영향을 받는 현실적 본성을 가리키는 것임

자료 플러스 주희 성리학의 심성론

- 성(性)이 곧 이(理)이다. 마음[心]에서는 성이라고 하고 일[事]에서는 이라고 한다.
- 본연지성(本然之性)은 오직 이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氣質之性)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기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성은 있다.
- 성은 마음의 이이고 정(情)은 성의 활동이며 마음은 성과 정을 주재한다. 인의예지는 성의 본체이며,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성에서 발동한 정이다. - "주자어류" -

주희는 성즉리(性卽理)와 심통성정(心統性情)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인의예지라는 사덕은 성의 본체이고 사단은 성에서 발동한 정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덕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실마리[緒(서)]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이러한 성과 정을 통괄한다.

자료 플러스 주희 성리학의 거경 공리론

- 배우는 사람의 공부는 오직 거경(居敬)과 공리(窮理)라는 두 가지 일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촉발시킨다. 공리하게 되면 거경 공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거경하게 되면 공리 공부가 나날이 정밀해진다.
- 사람에게에는 본래 양지(良知)가 있지만 공리를 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못하게 된다. - "주자어류" -

주희는 수양 방법으로 거경과 공리를 강조하였다. 거경은 마음과 태도에서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공리는 사물의 이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다. 주희에 따르면 거경과 공리는 늘 함께 해야 한다.

3. 왕수인의 양명학 사상: 주체의 도덕성 회복 강조

(1) 특징

- ① 주희의 성즉리설(性卽理說), 격물치지설(格物致知說) 등을 비판하고 유학 경전을 새롭게 해석함
- ② 도덕 주체인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도덕 원리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함

(2) 핵심 사상

심즉리설 (心卽理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마음[心]이 곧 하늘의 이치[理]임 •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음
치양지설 (致良知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은 누구나 천리(天理)로서의 양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음 •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致良知]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음
지행합일설 (知行合一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앎[知]은 행함[行]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임 • 인식으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하나임

자료 플러스 왕수인의 양지

양지(良知)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로서 스스로 영명(靈明)하여 밝게 깨닫는다. 뜻[意(의)]이 드러날 때 내 마음의 양지는 모든 것을 저절로 알려, 그 뜻이 선인지 악인지도 내 마음의 양지는 저절로 안다. - "대학문" -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천리(天理)이자 맹자가 말한 사단 가운데 시비지심과 같은 것으로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면서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이기도 하다.

개념 체크

- ① 주희는 마음이 ()와/과 ()을/를 통괄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주희에 따르면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은 이 자체인 ()와/과 이와 기를 섞어 말한 () (으)로 구분된다
- ③ 왕수인에 따르면 마음 밖에는 ()이/가 없으므로 사물에서 ()을/를 구할 필요가 없다.

정답

- ① 성, 정
- ② 본연지성, 기질지성
- ③ 이치, 이치

자료 플러스 왕수인의 치양지설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중략)… 배우고 묻고 사색하고 변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공부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지극한 데까지 확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양지 이외에 어찌 다시 터럭만큼이라도 보탬 것이 있겠는가? — “전습록” —

왕수인은 양지가 마음의 본체이고 하늘의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공부는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다.

(3)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대한 주희의 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의 입장

주희의 성리학	왕수인의 양명학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함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일을 바로잡음

자료 플러스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

- 지(知)와 행(行)은 항상 서로를 의지한다. 이는 마치 눈은 발이 없으면 가지 못하고 발은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굳이 선후를 논하면 지가 먼저이고 경중을 논하면 행이 중요하다. — “주자어류” —
- 지(知)는 행(行)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지의 진절독실(真切篤實, 진지하고 독실함)한 면이 바로 행이고, 행의 명각정찰(明覺精察, 밝게 깨닫고 정밀하게 살핌)한 면이 바로 지이다. — “전습록” —

주희는 지가 먼저이고 행이 나중[先知後行(선지후행)]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비해 왕수인은 지와 행이 본래 하나임[知行合一(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자료 플러스 격물치지에 대한 주희와 왕수인의 해석

- 치지는 격물에 있다[致知在格物(치지재격물)]는 말은, 나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하여 앎을 지니고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그 이치가 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이치를 다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앎이 극진하지 않은 것이다. — “대학장구” —
- 치지격물(致知格物)이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면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내 마음의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며,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격물이다. — “전습록” —

주희는 만물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고, 격물치지를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고, 격물치지를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4. 청대(清代)의 고증학: 경세치용과 실사구시 강조

(1) 등장 배경: 구체적인 현실 문제보다 인간의 도덕 문제에 치우친 경향을 보인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분위기 대두

(2) 특징

- 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을 추구함
- ② 실제적인 일에서 옳음을 구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론을 중시함
- ③ 우리나라 실학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침

③ 왕수인의 양지(良知)

- 마음의 본체이며 하늘의 이치
-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
-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

개념 체크

- ① 왕수인은 ()을/를 마음의 본체이자 하늘의 이치로 보았다.
- ② 왕수인에 따르면 앎은 행함의 ()이고, 행함은 앎의 ()이다.
- ③ 왕수인은 ()을/를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답

- ① 양지
- ② 시작, 완성
- ③ 격물치지

[01~02]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남의 불행을 차마 보고만 있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그가 보고 있는 모든 일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 인(仁)이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의(義)이다. 인에 거하고 의를 따라간다면 대인(大人)으로서의 조건이 다 갖추어진다.

[23014-0015]

01 위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인의를 저버린 군주를 교체하는 것은 정당한가?
- ②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양지(良知)를 지닐 수 있는가?
- ③ 인의가 생겨난 것은 도(道)를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 ④ 인의는 선한 마음이 존재함을 알려 주는 단서(端)인가?
- ⑤ 인의는 대인의 본성이며 식색(食色)은 소인의 본성인가?

[23014-0016]

02 다음은 스승과 제자들의 가상 대화이다. ㉠에 대한 스승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승: 나의 도(道)는 하나의 이치로 일관되어 있다.
 제자1: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자2: 여보게, 스승님의 도란 무엇인가?
 제자1: 그것은 오직 충서(忠愍)일 따름이라네.

- 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 ②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 사람을 대하고 일하는 것이다.
- ③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따르는 것이다.
- ④ 자신의 부모를 효로써, 형제를 우애로써 대하는 것이다.
- ⑤ 자신의 부모와 남의 부모를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23014-0017]

03 (가)의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임금이 바르게 행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만사(萬事)가 이루어지고, 임금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해도 따르지 않는다. 정치란 바로잡는[正] 것이다. 을: 임금은 백성의 생업[産]을 마련하되 백성이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社稷)은 그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병: 임금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되 예(禮)로써 통제해야 한다. 예란 옛 임금이 사람의 성정(性情)으로 인한 혼란을 싫어하여 제정한 것으로 바르게 다스리는 근본이다.
(나)	이상적인 임금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 ① 갑: 백성을 먼저 편안하게 한 후에 자신의 인격을 닦는다.
- ② 을: 백성의 후생(厚生)을 통치의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 ③ 병: 백성의 자연스러운 성정(性情)을 보존하고 길러 준다.
- ④ 갑과 을: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여 통치의 주체로 세운다.
- ⑤ 을과 병: 백성을 인의(仁義)가 실현된 사회로 인도한다.

[23014-0018]

0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곧은 나무가 도지개를 쓰지 않아도 곧은 것은 그 본성[性]이 곧기 때문이다. 굽은 나무가 반드시 도지개를 대고 불로 찌서 바로잡은 다음에 곧아지는 것은 그 본성이 곧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반드시 성왕(聖王)의 다스림이 있고 예의의 교화가 있을 후에 다스려지게 되고 선하게 된다.

- ① 사람의 본성은 도덕적 수양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사람의 본성은 만물에 내재한 이치[理]와 같다.
- ③ 사람의 본성은 예(禮)와 법도가 생겨난 근본이다.
- ④ 사람의 본성은 악하므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 ⑤ 사람의 본성은 인위적인 노력을 쌓아 획득된 것이다.

[23014-0019]

05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理)는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며 기(氣)는 만물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이를 품부받은 후에야 성(性)이 생기고 기를 품부받은 후에야 형체가 생긴다.
- 성은 마음의 본체(體)이며, 정(情)은 마음의 작용[用]이다. 성과 정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이 이들을 제어할 수 있다.

- ① 사물의 이와 마음의 성은 근원이 서로 같다.
- ② 이는 하나이지만 모든 사물에 품부되어 있다.
- ③ 본연지성과 달리 기질지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 ④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이와 기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 ⑤ 사단은 선한 성이고 칠정은 악할 수도 있는 정이다.

[23014-0020]

06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 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본성[性]이 곧 이치[理]이다. 천리(天理)가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성이라 하고, 사물이나 사건에 있으면 이치라 한다.
 을: 마음[心]이 곧 이치이다. 마음이 사욕(私欲)에 가려지지 않으면 곧 천리이니 밖에서 하나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 보기
- 가. 이치를 마음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가?
 - 나. 본성은 마음의 본체이며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가?
 - 다. 성인은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한 사람인가?
 - 르. 도덕적으로 행하려면 격물치지의 공부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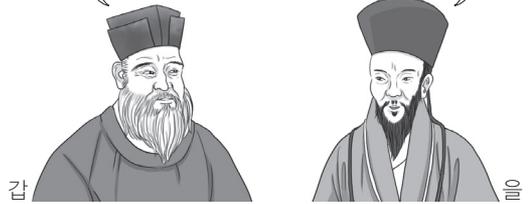
- ① 가, 나 ② 가, 르 ③ 다, 르
-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르

[23014-0021]

07 그림은 중국 유교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물[物]과 접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앎[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앎을 추구하면서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뿐,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는다면 끝내 머무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사물에 나아가 사물 속에서 각각의 이치[理]를 구하는 것은 마음과 이치를 둘이 되게 하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지(良知)인 천리(天理)가 각각의 사물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됩니다.



- ① 격물(格物)은 마음의 일을 바로잡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② 치지(致知)는 사물의 이치를 밝혀야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거경(居敬)을 공부한 후에야 양지가 생겨남을 간과한다.
- ④ 궁리(窮理)란 자기 본성을 극진히 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인욕(人欲)을 반드시 제거해야 치지가 가능함을 간과한다.

[23014-0022]

08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악취를 맡는 것은 앎[知]에 속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은 행함[行]에 속한다. 악취를 맡았을 때 이미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것이지, 악취를 맡은 뒤에 따로 하나의 마음을 일으켜서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다만 아직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현이 앎과 행함을 가르친 것은 사욕(私欲)에 가려진 앎과 행함의 본체를 회복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건대 ㉠

- ① 앎은 선후(先後)의 측면에서 볼 때 행함에 앞선다.
- ② 앎과 행함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③ 행함은 경중(輕重)의 측면에서 볼 때 앎보다 가볍다.
- ④ 행함 안에 이미 앎이 있으며 앎 안에 이미 행함이 있다.
- ⑤ 행함은 양지의 불완전함을 보충하여 앎을 극진하게 한다.

[23014-0023]

1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이면서 어질지[仁] 않으면 예(禮)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예를 예라 이르는 것이 예에 쓰이는 옥(玉)과 비단을 가리키는 것이겠는가? 예는 사치스러운 것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상례(喪禮)는 손에 익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을: 사람이면서 예가 없다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일을 하는 데 예가 없다면 일을 성취할 수 없으며, 나라에 예가 없다면 편안하지 못하다. 어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바른길을 일러 주고 보여 주기를 좋아한다. 일러 주고 보여 주며 익히고 쌓아 가게 하면 사람들의 성정(性情)은 변화될 수 있다.

- ① 타고난 욕망을 모두 없애기보다 예에 근거하여 충족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어진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는 있으나 남을 미워할 수는 없음을 간과한다.
- ③ 군자가 귀한 것은 예를 제정하고 본성을 교화할 수 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
- ④ 어짊을 이루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예란 타고난 어진 마음의 표현 방식이며 어진 마음에 근거해야만 함을 간과한다.

[23014-0024]

2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백성을 대할 때 위정자(爲政者)가 윗사람으로서 장엄하면 백성은 공경할 줄 알게 되며, 위정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애로우면 백성은 마음을 다하게 된다.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자리를 지키고 다른 별들이 그를 떠받드는 것과 같다.

을: 백성의 힘을 빌어 누각과 연못이 만들어졌으나 백성이 그 일을 즐거워한 것은 군주가 백성과 함께 그것들을 즐겼기 때문이다. 백성이 일을 해도 가족을 돌볼 수 없다면, 군주를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옛날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었다.

병: 백성을 도(道)로써 다스리면 통일하기 쉬우나 백성과 더불어 이치를 논할 수는 없다. 현명한 군주는 권세로써 백성에게 임하고 도로써 인도하며 형벌로 잘못을 금지시킨다. 도에 맞는 행동은 옛 성왕(聖王)이 제정한 예와 법도에 의해 성정(性情)이 교화됨으로써 가능하다.

- ① 갑은 통치자는 명분[名]보다 예악과 형벌을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백성이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은 후 생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병은 통치는 시비(是非)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④ 을과 병은 일반 백성과 다른 본성[性]을 타고나야 군주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과 을과 병은 성왕(聖王)의 도를 군주가 따라야 할 통치의 근간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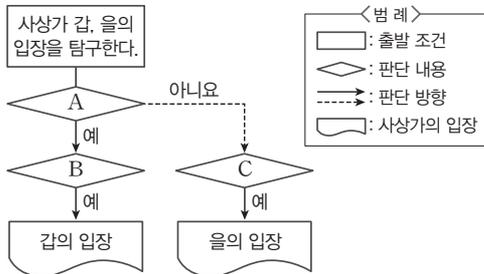
[3~4]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 양능(良能)이고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이 양지(良知)이다.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사랑할 줄 알며 자라서는 자신의 형을 공경할 줄 안다. 아버이를 친근히 하는 것이 어짊[仁]이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로움[義]이다.

을: 배우거나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본성[性]이라 한다. 배워서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작위[僞]라 한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은 모두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3014-0025]

3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소인(小人)도 선(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 ㄴ. B: 성인(聖人)이 되려면 잃어버린 본래 마음을 되찾아야 하는가?
- ㄷ. C: 소인은 아무리 인위[僞]를 쌓아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 ㄹ. C: 성인도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본성을 따르면 남과 다르게 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014-0026]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색(食色)이 본성[性]이다. 인(仁)은 사람 안의 것이지 사람 밖의 것이 아니며, 의(義)는 사람 밖의 것이지 사람 안의 것이 아니다. 내 아우는 사랑하고 진나라 사람의 아우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는 나로써 기쁨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이 내재(內在)한다고 한다. 또한 초나라 사람의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며 나의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는데, 이것은 어른으로써 기쁨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는 외재(外在)한다고 한다.

- ① 갑은 사람은 남의 불행에 차마 보고만 있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갑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감각적·생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③ 을은 사람의 선함과 악함은 환경과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을은 사람의 본성은 확충하거나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⑤ 갑과 을은 사람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23014-0027]

5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인(仁),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의(義), 주인과 손님 사이의 예(禮), 현자의 지(智)는 하늘이 내려 준 명령이다.</p> <p>을: 하늘과 사람 간의 직분을 명확히 인식하면 지극한 사람[至人]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일을 저버리고 하늘을 사모하면 만물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성인은 하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p> <p>병: 하늘이 하는 일을 알고 사람이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지극한 사람이다. 참된 알[眞知]은 참된 사람[眞人]만이 알게 된다. 옛날 참된 사람은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았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비판의 내용</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시></p> <p>⊙갑 → A → ⊙을</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div>

- ① A, F: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국가의 운명은 예에 달려 있음을 간과한다.
- ② B, D: 사람이 도(道)에 따라 살면 그의 타고난 본성이 변하게 됨을 간과한다.
- ③ B, E: 하늘을 섬기기보다는 하늘의 이치로써 만물을 관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C, E: 하늘은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에 대해 어떤 감응도 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⑤ D, F: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자기 본성을 길러 하늘을 섬겨야 함을 간과한다.

[23014-0028]

6 다음을 주장한 중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사람이 추구해야 할 학문의 대상은 마음[心]과 이치[理]뿐이다. 마음은 본래 한 사람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지만 허령(虛靈)한 그 본체[體]는 천하의 이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이치는 모든 일[萬事]에 흠어져 있지만 미묘한 그 작용[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 사람에게에는 본래 양지(良知)가 있지만 궁리(窮理)를 하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도달한 데서 만족한 나머지 아직 알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못하게 된다.

【 보기 】

ㄱ. 마음은 모든 일의 근원이며 몸의 주재자이고 이치는 모두 마음에만 존재한다.

ㄴ. 사람에게 불선(不善)이 있는 것은 부여받은 본성과 기질이 치우쳤기 때문이다.

ㄷ. 궁리란 도덕적으로 행하기 위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이다.

ㄹ.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치를 성(性)이라 하며 성은 구체적으로 인의예지의 덕이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

④ 한국 성리학과 도덕 감정: 이황과 이이의 사상

1. 한국 유교의 전개와 특징

(1) 유교 사상의 수용과 전개

- ① 삼국 시대: 선진(先秦) 유학을 주체적으로 수용 → 정치와 생활 원리로서 폭넓게 활용됨
- ② 고려 말: 성리학 수용 → 정치적·사회적 개혁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됨
- ③ 조선 초·중기: 성리학의 발달

(2) 조선 성리학의 특징

- 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이상 사회의 실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공함
- ② 중국 성리학의 심성론과 관련된 탐구를 심화시킴
- ③ 사단 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비롯한 다양한 이론적 논쟁을 전개함

개념 플러스 사단과 칠정

- 사단: 인간이 지닌 네 가지의 도덕 감정.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가리킴. “맹자”에 제시되어 있음
- 칠정: 인간이 지닌 일곱 가지의 일반 감정.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 즉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을 일컫음. “예기”에 제시되어 있음

개념 플러스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 칠정 논쟁

사단 칠정 논쟁은 ‘사단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다.’라는 이황의 글을 본 기대승이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情)인데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하면 사단과 칠정이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인 듯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견해를 담은 편지를 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논쟁 과정에서 기대승은 사단과 칠정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니며 칠정과 별도로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황은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그의 최종적인 견해로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후에도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기본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단 칠정 논쟁은 후대로 이어져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

2. 이황의 성리학 사상: 순수한 도덕 본성의 발현 강조

(1) 특징

- ① 주희의 이기론을 재해석하고 사단 칠정론을 체계화함
- ② 도덕 본성인 이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도덕적 실천을 중시함

(2) 이기론

- ① 이귀기천설(理貴氣賤說): 순선(純善)한 원리적 개념인 이는 존귀하고 선악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현상적 개념으로서의 기는 비천한 것임
- ②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 이와 기는 모두 발할 수 있음 → 기는 물론이고 이도 작용성을 지니고 있음

④ 선진 유학

진나라 이전 시대인 춘추 전국 시대의 유학. 공자, 맹자, 순자가 대표자임

개념 체크

- ① 성리학에서 말하는 ()은/는 인간이 지닌 네 가지의 도덕 감정을, ()은/는 인간이 지닌 일곱 가지의 일반 감정을 의미한다.
- ② 이황은 도덕 본성인 ()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강조하고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 ③ 이황에 따르면 순선한 원리적 개념인 ()은/는 존귀하고, 선악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현상적 개념으로서의 ()은/는 비천한 것이다.

정답

- ① 사단, 칠정
- ② 이
- ③ 이, 기

자료 플러스 이황의 이기호발설

-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서로 발하여[互發(호발)]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所用)되는 것이다. 서로 발하는 것이고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서로 그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그 속에 있으므로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으므로 분별하여 말해도 안 될 것이 없다.
- 주자(朱子)가 “이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며,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이의 신묘한 작용(用)을 말한 것이다. 본체의 무위(無爲)만을 보고 작용이 드러나는 운행을 알지 못하여 이를 죽은 물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도리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 “퇴계집” -

이황에 따르면 이(理) 자체는 작용성을 지녀 도덕 감정으로 발현할 수 있다.

(3) 사단 칠정론

- ① 주희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理氣不相雜(이기불상잡)].”라는 주장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봄 → 도덕적 원리인 이(理)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려고 함
- ②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이를 따른 것[理發而氣隨之(이발이기수지)]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氣發而理乘之(기발이이승지)]이라고 주장함 →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고,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는 오류를 방지하고자 함

자료 플러스 이황의 사단 칠정론

-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 혼합하여 말하면 칠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구분하여 말한다면 칠정과 기의 관계는 사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그 발하는 것이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이 다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주가 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니,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이가 발한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된다.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니 역시 불선함이 없지만 기가 발한 것이 중절(中節)하지 못하여 이를 멀하게 되면 악이 되는 것이다.
- “퇴계집” -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이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 플러스 이황의 수양론

- 경(敬)으로써 근본을 삼고, 궁리(窮理)에 의하여 치지(致知)하고, 몸소 돌이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법(心法)을 미묘롭게 하고 도학(道學)을 전하는 요령이다.
- 경은 처음과 끝을 꿰뚫고 있다. 실로 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이치는 밝아지고 마음은 안정될 것이다.
- 군자의 학문은 마음이 발하기 이전에는 경에 입각하여 존양(存養) 공부를 하고, 마음이 이미 발했을 때에는 경에 입각하여 성찰(省察) 공부를 해야 한다.
- “퇴계전서” -

이황은 경으로써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천리(天理)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념 체크

- ① 이황은 기는 물론이고 이도 작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 ② 이황은 이와 기의 상호 관계에 대한 주희의 입장인 ()에 근거하여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다르다고 보았다.
- ③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으로, 칠정은 ()이/가 발한 것으로 보았다.

정답

- ① 이기호발
- ② 이기불상잡
- ③ 이, 기

(4) 수양론

- ①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의 병행을 강조함 → “거경과 궁리는 새의 두 날개와 같다.”
- ② 경(敬)의 실천을 특히 강조함

3. 이이의 성리학 사상: 일반 감정의 조절과 기질의 변화 강조

(1) 특징

- ① 이황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대안적인 이론을 제시함
- ② 인간의 도덕 문제와 함께 현실 개혁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임

(2) 이기론

- ① 이통기국론(理通氣局論): 형태가 없는 이는 통하고 형태가 있는 기는 국한됨
- ②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므로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라는 한 가지 길만이 옳음

※ 경(敬)의 주된 실천 방법

- 주일무적(主一無適): 마음을 한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함
- 정제엄숙(整齊嚴肅):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함
- 상성성(常惺惺): 항상 깨어 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함

자료 플러스 이이의 이기론

- 이는 기의 주재자이고, 이는 기를 타는 바이다. 이가 아니면 기는 근거하는 바가 없고, 기가 아니면 이는 의지하여 드러나는 바가 없다.
- 이는 무형(無形)이고 기는 유형(有形)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타게 된다.
-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서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개개 사물에서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다[理氣之妙(이기지묘)]. 그리고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거기에 타는 것과 같다. - “율곡전서” -

이이에 따르면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 즉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것만이 옳다.

(3) 사단 칠정론

- ① 주희의 “이와 기가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理氣不相離(이기불상리)].”라는 주장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봄
- ②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으로 파악함
- ③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며[七包四(칠포사)],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함

자료 플러스 이이의 사단 칠정론

- 주자(朱子)의 ‘이(理)에서 발한다, 기(氣)에서 발한다.’라는 말의 본뜻은 ‘사단은 오로지 이만을 말하고 칠정은 기를 겸(兼)하여 말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퇴계는 주자의 말에 근거해서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중에서 이른바 기발이승(氣發理乘)은 옳다. 단,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발이승이다.
- 사단과 칠정의 관계는 바로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의 관계와 같다. 본연지성은 기질을 겸하지 않고 말한 것이요,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하는 것이다. - “율곡전서” -

이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비판하고 ‘기발이승일도설’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다. 또한 이이는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는 ‘칠포사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념 체크

- 1 이이는 이는 () (이)고 기는 () (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고 주장하였다.
- 2 이이는 이와 기의 상호 관계에 대한 주희의 입장인 ()에 근거하여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 (이)가 발하고 () (이)가 탄 것으로 보았다.

정답

- 1 무형, 유형
- 2 이기불상리
- 3 기, 이

(4) 수양론

- ① 이의 본연인 선의 실현을 위해 기질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함
- ② 경(敬)을 통해 성(誠)에 이를 것을 강조함

자료 플러스 이이의 기질 교정론

- 이(理)에는 한 글자도 더할 수 없으며 털끝만큼의 수양도 더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본래 선한데 무슨 수양이 더 필요하겠는가? 성현의 말씀은 다만 사람들에게 기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기의 본연이란 호연지기를 말한다.
- 성(誠)은 하늘의 진실한 이치이고 마음의 본체이다.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사특함이 본심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敬)으로 주재하여 사특함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할 수 있다. 경은 노력의 요체이며 성은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이므로 경으로써 성에 이를 수 있다. - "율곡전서" -

이이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적 불완전성은 기(氣)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질을 바로잡으면 이(理)의 본연, 즉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5) 사회 경장론: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등과 관련된 개혁을 주장함 → 실학사상의 형성에 영향을 줌

※ 경장(更張)

정치적·사회적으로 묵은 제도를 개혁하여 새롭게 함

❶ 한국 실학과 도덕 본성: 정약용의 사상

1. 실학의 등장

(1) 등장 배경

- 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현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함
- ②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구 문물이 유입됨

(2) 특징

- ① 민생의 구제와 국부의 증대를 추구하는 사회 개혁론을 제시함
- ② 성리학과 구별되는 인간관과 도덕론을 제시함

2. 정약용의 실학사상: 이법적 실체에 대한 비판과 마음의 기호 강조

(1) 특징

- ① 이법적 실체인 이(理)를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을 비판하고 새로운 심성론과 덕론을 제시함
- ②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실학을 집대성함

(2) 심성론

- ① 성기호설(性嗜好說):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임

개념 플러스 기호의 종류

- 영지(靈知)의 기호: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 ←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기호
- 형구(形類)의 기호: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과 같은 육체의 기호 ←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호

※ 이법(理法)

원리와 법칙을 함께 이르는 말

개념 체크

- 1 이이는 이의 본연의 실현을 위해 ()을/를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 2 정약용은 ()적 실체인 이를 본성으로 보는 성리학을 비판하고 마음의 ()을/를 본성으로서 제시하였다.
- 3 정약용에 따르면 ()의 기호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이다.

정답

- 1 기질
- 2 이법, 기호
- 3 영지

자료 플러스 정약용의 성기호설

- 배 속에서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지면 하늘은 그것에 영명(靈明)하고 형체가 없는 체(體)를 부여하는데, 그것은 선을 즐기고 악을 싫어하며, 덕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부끄러워하는 것인즉, 이를 성(性)이라고 이른다. - “중용자잠” -
-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이미 기호(嗜好)로서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지성(天命之性)도 마땅히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질지성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며, 천명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기호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기호하는 것이 다르니 어떻게 고자를 몰아붙일 수 있겠는가? - “여유당전서” -

정약용에 따르면 본성[性(성)]이란 마음이 즐겨 좋아하는[嗜好(기호)] 것이며, 그것은 채소가 거름을 좋아하고 수초가 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

- ②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 강조: 인간은 선이나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음

자료 플러스 정약용의 자주지권

하늘은 사람에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주어 그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악을 저지르고자 하면 악을 저지르게 하여, 선악을 하려는 방향이 고정되지 않게 하였다. …(중략)… 그런데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이치가 이미 반이 섞여 있다면 그 죄는 마땅히 반감되어야 할 듯하지만, 죄를 지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성이 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성을 거슬러 악을 저지른다면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 “맹자요의” -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주지권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악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명백한 욕구[嗜好(기호)]가 마음에 주어져 있음에도 스스로 악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 ③ 인간의 욕구[欲]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인정함: 욕구는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함

(3) 덕론

- ① 인의예지라는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
- ② 인의예지는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임

자료 플러스 사단과 사덕에 대한 정약용의 관점

- 측은·수오·사양·시비의 사심(四心)은 인성(人性)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며, 사덕은 사심을 확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직 확충하는 상태에 미치지 못하면 인의예지란 명칭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중략)… 인의예지는 필경 일을 행한 뒤에 성립한다. 만약에 인의예지를 마음속에 있는 이치라고 여긴다면 이는 본래의 뜻이 아니다. - “맹자요의” -
- 시연(始然)이란 불의 시작이고 시달(始達)은 물의 시작이며 측은(惻隱)은 인(仁)의 시작이다. 측은이 확충되어 자상함의 극치에 이르면 인이 천하를 뒤덮게 된다. 단(端)은 시작(始)을 뜻한다. - “여유당전서” -

정약용은 사단을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단의 ‘단’을 ‘실마리[緒(서)]’로 해석하는 성리학자들과 달리 ‘시작(始(시))’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인의예지라는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욕구를 긍정하는 정약용의 관점

“우리의 영체(靈體) 안에는 본래 욕구[欲]의 일단이 있다. 만약 욕구가 없다면 천하의 수많은 일을 해 나갈 수 없다. 오로지 이익[利]에 밝은 자의 욕구는 이익을 쫓아서 꿰뚫어 나가고, 의리에 밝은 자의 욕구는 도[義]에 따라 꿰뚫어 나간다.” - “여유당전서” -

개념 체크

- ① 정약용에 따르면 하늘은 인간에게 () 을/를 주어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정약용에 따르면 () 은/는 인간의 본성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③ 정약용은 사단의 ‘단’을 실마리가 아니라 () (으)로 해석하였다.

정답

- ① 자주지권
- ② 사덕
- ③ 시작

[23014-0033]

01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_____ ㉠ _____ 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자(朱子)의 말에 있다. 일찍이 주자는 “이(理)에 동정(動靜)이 있으므로 기(氣)에 동정이 있다. 만약 이에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찌 스스로 동정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가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이의 지극히 신묘한 생성 작용을 말한 것이다. 물론 주자는 “이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다.

- ① 이를 부여받지 않은 사물이 존재한다
- ②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없다
- ③ 기는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 ④ 기가 발할 수 있듯이 이도 발할 수 있다
- ⑤ 기에는 형태와 작용이 있으나 이에 없다

[23014-0034]

0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성(性)이란 기호(嗜好)이다. ㉡ 영지(靈知)의 기호가 있고 ㉢ 형구(形軀)의 기호가 있으니 다 같이 성이라 한다. 그러므로 “예기”에서는 “백성의 성을 절제케 한다.”라고 하였었고, 맹자는 “㉣ 마음을 움직이고 성을 참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형구의 기호를 가리켜 한 말이다. “㉤ 하늘이 부여한 것이 성이다.”라고 말할 때의 성과 천도(天道), 성선(性善)의 성은 곧 영지의 기호이다.

- ① ㉠은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이법적 실체로서의 이(理)이다.
- ② ㉡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다.
- ③ ㉢은 육체의 기호로서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다.
- ④ ㉣은 스스로 악행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한다.
- ⑤ ㉤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한다.

[23014-0035]

03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敬)으로써 근본을 삼고 공리(窮理)에 의해 치지(致知)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 이것이 심법(心法)을 미묘롭게 하고 도학(道學)을 전하는 요령이다. • 경을 유지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理)는 밝아지고 마음은 안정될 것이다. 경은 특정 증상에 대한 단발성 약이 아니라 백 가지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나)	질문: 어떻게 해야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 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아 인의예지의 덕을 형성한다.
- ② 마음이 발하든 발하지 않든 시비를 분별하지 않는다.
- ③ 하늘이 명한 마음의 기호(嗜好)에 따라 선을 실현한다.
- ④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 ⑤ 내 마음의 양지인 천리(天理)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한다.

[23014-0036]

0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理)에는 한 글자도 더할 수 없으며 털끝만큼의 수양도 더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본래 선한데 무슨 수양이 더 필요하겠는가? 성현의 말씀은 다만 사람들에게 기(氣)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기의 본연이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말한다.

【 보기 】

- ㄱ. 성(誠)에 이르려면 힘써 경(敬)을 닦아야 한다.
- ㄴ. 일반 백성은 성인과 똑같은 기질을 부여받는다.
- ㄷ. 이는 기의 주재자이고 기는 이가 올라타는 바이다.
- ㄹ.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이의 본연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4-0037]

05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주장: _____ ㉠ _____
- 논거1: 공자는 “시경”의 ‘백성이 떳떳한 본성을 잡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라는 구절에 대해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道)를 아는구나!”라고 말했다.
- 논거2: 공자는 “자신을 이겨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仁)이다.”라고 하셨으니, 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 하늘이 하나의 낱알로 인을 사람의 마음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다.

- ① 사람의 성은 인의예지의 덕을 모두 갖추고 있다.
- ② 사람의 성은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고정되어 있다.
- ③ 사람의 성은 자주지권을 발휘할 때 마음에서 생성된다.
- ④ 사람의 성은 이법적(理法的) 실체로서 도덕의 원천이다.
- ⑤ 사람의 성은 날 때부터 주어진 마음의 경향성[嗜好]이다.

[23014-0038]

06 그림의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에게

오늘은 이(理)와 기(氣)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네.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 있어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네. 그리고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가 거기에 타는 것과 같지. 생각해 보게. 물이 먼저 움직이고 거기에 그릇이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그릇이 먼저 움직이고 물이 그릇의 움직임에 따라 나중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어찌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 보기 |

- ㄱ. 이는 발하는 것이고 기는 발하는 까닭이다.
- ㄴ. 이는 통하는 것이고 기는 국한되는 것이다.
- ㄷ. 이와 기는 사물에서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
- ㄹ. 이는 기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07~08]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도 정(情)이고 칠정도 정이니 모두 정이다. 그러나 ‘사단’과 ‘칠정’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말한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말미암아 나오는 바[所從來]와 주로 하는 바를 가리켜 말한다면, 사단은 이(理)가 되고 칠정은 기(氣)가 된다.

을: 정은 하나이지만 ‘사단이다.’ ‘칠정이다.’ 말하는 것은 이만을 말할 때와 기를 겸하여 말할 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칠정의 일변(一邊)일 뿐이며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어찌 양변(兩邊)으로 나눌 수 있겠는가?

[23014-0039]

07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갑: 사단은 선한 정이며 칠정은 악한 정이다.
- ㄴ. 을: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현한 정이다.
- ㄷ. 을: 사단 이외의 순선한 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ㄹ. 갑과 을: 사단과 칠정에는 각각 이와 기가 함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040]

0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갑, 을에게 공통으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사심(四心)을 미루어 밖에 있는 사덕(四德)을 이루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덕을 끌어당겨 안에 있는 사심을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에 나아가면 바로 인(仁)을 얻을 수 있고, 수오지심(羞惡之心)에 나아가면 바로 의(義)를 얻을 수 있다.

- ① 사단은 사덕이 마음에서 드러난 것임을 간과한다.
- ② 사단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정임을 간과한다.
- ③ 사단의 ‘단’을 ‘시작[始]’으로 해석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사단은 사덕이 존재함을 알려 주는 단서[縮]임을 간과한다.
- ⑤ 사단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23014-0041]

1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氣)는 본래 맑음과 탁함의 구분이 있다. 일원(一元)의 기에서 음(陰)과 양(陽)이 나누어지고, 음양은 나누어져서 오행이 되는데 순응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고 왕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어지러이 서로 흔들기도 하고 뒤집혀서 섞이기도 하며 맑기도 하고 탁하기도 하여 만 가지의 다름이 있다. 사람의 기질이 치우쳐 생긴 병통을 없애는 길은 오직 이(理)에 밝아지는 것뿐이다.

을: 기는 본래 담박하고 맑다. 오직 그 양이 동(動)하고 음이 정(靜)한 것이 합쳐져 질(質)을 이룰 때에 고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물의 치우침과 막힘은 다시 변화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람만은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밝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으니, 기질을 바로잡아[矯氣質] 기의 본연을 회복해야 한다.

- ① 기가 발할 수 있는 근거는 이의 동정에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② 기는 형태와 작용이 없어 만물에 두루 통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③ 이는 기의 동정에 따라서 선하거나 악하게 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④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이며 발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⑤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경(敬)으로 수양하는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23014-0042]

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은 왕벌을 호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이를 충(忠)이라 하지 않으며, 범은 생물을 해치지 않을 수 없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범에게 법을 적용하여 벌을 주기를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벌과 범은 _____ ㉠ _____ 이와 달리 사람은 하늘로부터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아 선을 원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원하면 악을 행할 수 있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이치가 이미 서로 반반이면 그 죄를 덜어 주어야 될 듯 하지만, 죄를 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_____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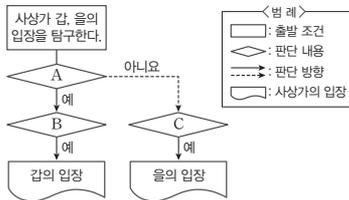
	㉠	㉡
①	이미 정해진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②	덕을 좋아하는 영지[靈知]의 기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부여한 순성한 덕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이미 정해진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性)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④	덕을 좋아하는 영지의 기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모든 욕망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⑤	인간과 같은 본연의 성을 지녔으나 기질이 그 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성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3~4]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본연지성은 오직 이(理)만 말하고 기(氣)에는 미치지 못한다. 기질지성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인데, 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이 기질 가운데 떨어진 것이므로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두 성이 아니다. 성이 하나인데 정(情)이 어찌 두 근원이겠는가?
 을: 본연지성은 원래부터 같지 않다. 사람은 선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부끄러워하며 도(道)를 지향하는 것이 본연이다. 개는 밤을 지키고 더러운 것을 먹으며 새를 쫓아내는 것이 본연이다. 각각 천명(天命)을 받아 옮기거나 바꿀 수 없으니 소가 사람이 하는 바를 할 수 없다.

[23014-0043]

3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기질지성은 금수(禽獸)가 아닌 사람에게만 부여되는가?
 ㄴ. A: 선(善)의 실현 여부는 기질의 상태에 의해 좌우되는가?
 ㄷ. B: 감정은 외부 자극에 대한 기질지성의 반응으로 드러나는가?
 ㄹ. C: 자주지권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선을 행함으로써 갖춰지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044]

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와 갑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늘의 달과 물속의 달은 같은 하나의 달이다. 그러나 하늘의 달은 진짜 달이고 물속의 달은 다만 빛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 실재를 얻지만 물속의 달을 건지려 하면 얻을 것이 없다. 성(性)이 기(氣)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물속의 달과 같아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으니, 어떻게 선을 밝히고 몸을 성실하게 하여 성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맹자가 “성은 선하다.”라고 말한 성은 이의 근원과 본연의 자리를 가리킨 것이니, 기를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니다.

보기

ㄱ. 기가 발(發)하지 않으면 사단은 드러날 수 없는가?
 ㄴ. 기질을 바로잡으면 본연의 성이 순선하게 되는가?
 ㄷ. 이와 기는 서로를 포함하면서 묘하게 어우러져 있는가?
 ㄹ. 이의 발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생기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045]

5 그림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선생님께서서 의도하신 바에 따르면 사단(四端)은 마음 속에서 발하고 칠정(七情)은 밖에서 자극받아 발합니다. 천하에 어찌 자극받지도 않고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발하는 감정이 있었습니까? 어찌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도 저절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칠정 이외에 다른 정은 없으며 정은 모두 기가 발한 것입니다.

저도 사단이 외부 상황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칠정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칠정이 이(理)와 관계없이 우연히 외부 상황에 자극을 받아 움직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氣)가 따른 것이요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는 것일 따름입니다. 사단은 이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이요 칠정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입니다.



보기

- ㉠. 칠정과 사단의 차이는 연원의 다름이 아니라 기질의 다름에 있음을 간과한다.
- ㉡. 사단이 주리(主理)인 것은 옳으나 칠정은 주기(主氣)로 볼 수 없음을 간과한다.
- ㉢. 칠정은 형기(形氣)가 바깥 사물에 의해 촉발된 것이므로 이가 없음을 간과한다.
- ㉣. 사단은 칠정 가운데 인욕(人欲)이 섞이지 않고 천리에서 나온 것임을 간과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23014-0046]

6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仁)은 사랑의 이치[理]요 마음의 덕이며, 서(恕)란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이다. 군자가 서를 갖게 된 것은 사물의 이치가 완전히 탐구되고 도덕적 앎이 극진해져 모든 이들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이의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을: 인은 타인을 향한 사랑이며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각자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 그것이 인이니, 인을 구하는 자는 서를 행해야만 하고, 서를 행하려는 자는 극기(克己)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극기는 인을 구하는 방법이지 인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인이라는 명칭은 행사(行事) 이후에 성립한다.

- ① 갑은 인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실마리[端]로 본다.
- ② 을은 인을 마음이 지니고 있는 경향성[嗜好]으로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을 서의 실천으로 획득된 덕으로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인을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본다.
- ⑤ 갑과 을은 측은지심을 사람이 본래 지닌 선한 마음으로 본다.

[7~8] 갑은 중국 유교 사상가, 을과 병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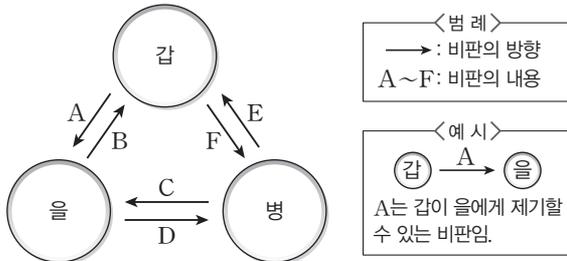
갑: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측은히 여기는 이(理)가 생기는데, 측은히 여기는 이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에 있다. 양지가 사사로운 뜻에 막히지 않고 가득 차서 흐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치지(致知)이다.

을: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연후에 측은해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하는 것은 기(氣)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발한다는 것이요, 사람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조화가 그렇지 않음이 없다.

병: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히 여기면서도 구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 인(仁)이라 말할 수 없다. 인의예지란 네 가지 마음[四端]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에 이르지 못하면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성립할 수 없다.

[23014-0047]

7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F: 사욕을 제거하고 양지를 발휘해야 본성이 교정됨을 간과한다.
- ② B: 자신의 본성을 극진하게 하는 것이 곧 궁리(窮理)임을 간과한다.
- ③ C: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해야 인의예지의 덕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 ④ D: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근본은 인(仁)임을 간과한다.
- ⑤ E: 하늘이 명한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감정임을 간과한다.

[23014-0048]

8 병의 입장에서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측은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情)이 움직인 것이다. 맹자는 사단(四端)을 논하면서 오로지 이(理)만을 말하였지만 기(氣)가 그 사이에 행해지지 않은 적이 없다.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것이다.

- ① 욕(欲)은 사단의 확충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어야 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② 경(敬)은 선(善)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부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③ 성(性)은 천명을 실현함으로써 획득되는 마음의 기호(嗜好)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심(心)은 만물의 근본 원리[理]가 본성으로서 품부된 곳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⑤ 덕(德)은 자주지권으로써 악한 기호의 본성을 극복할 때 갖추어짐을 모르고 있다.

◎ 업

불교에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의도적 행위를 말함. 그 행위의 결과로 얻는 것을 업보(業報)라고 함

◎ 윤회

중생이 업에 의해 생사의 세계를 그치지 않고 돌고 도는 것

◎ 열반

'불어서 꺼진 상태'의 의미를 갖는 고대 인도어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소멸한 상태를 말함

◎ 해탈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 자비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함

개념 체크

- 1 석가모니는 선정()을/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다.
- 2 불교에서는 계정혜, 즉 ()을/를 실천 항목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 3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정답

- 1 지혜
- 2 삼학
- 3 연기

◎ 불교: 자비의 윤리

1. 깨달음: 불교의 목표

(1) 불교의 연원

① 불교의 성립

-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싯다르타가 인도의 전통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창시함
- 석가모니는 선정[定]과 지혜[慧]를 통하여 해탈에 이름
- 석가모니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출가자를 중심으로 불교 교단이 형성됨

② 불교의 특징

- 삼학(三學: 계정혜)을 실천 항목으로 하여 체계적인 수행을 강조함

계(戒)	계율을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정(定)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
혜(慧)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지혜, 즉 반야(般若)를 얻는 것

-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업(業)으로 인해 고통의 세계를 윤회(輪廻)한다고 봄
- 사성제(四聖諦)를 깨닫고 팔정도(八正道)를 실천하여 열반(涅槃)에 이를 것을 강조함

(2) 초기 불교의 가르침

- ① 연기설(緣起說):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이론. 연기(緣起)는 인연생기(因緣生起)의 준말
- 연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解脫)에 이를 수 있음

자료 플러스 연기설

두 개의 갈대 다발이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것과 같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알음알이가, 알음알이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가 발생합니다.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발생합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五蘊(오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갈대 다발 가운데 하나를 빼내면 다른 하나도 쓰러질 것입니다. 만일 다른 하나를 빼내면 저 하나도 쓰러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알음알이가 소멸하고, 알음알이가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감각 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고,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고,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소멸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오온]가 소멸합니다.

- "상응부경" -

연기설은 괴로움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불교 이론이다. 연기설에 따르면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 원인과 조건을 제거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우주의 모든 사물과 현상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와 현상도 독립적일 수 없음 → '나'와 '자연 만물'의 연계성과 상호 의존성을 자각하게 해 줌
-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慈悲)를 일깨워 줌

②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 사성제: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제(四諦)라고도 함

고제(苦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일 수밖에 없음 • 대표적인 괴로움: 생로병사(生老病死)
집제(集諦)	인간이 겪는 고통은 무명(無明)과 애욕으로 인해 생겨남
멸제(滅諦)	고통의 원인인 무명과 애욕을 없애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열반에 이르게 됨
도제(道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명과 애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도(中道)를 닦아야 함 • 중도의 구체적 내용: 여덟 가지 올바른 길(八正道[팔정도])

• 팔정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올바른 수행 방법

- 정견(正見) – 바른 견해
- 정사유(正思惟) – 바른 사유
- 정어(正語) – 바른 말
- 정업(正業) – 바른 행위
- 정명(正命) – 바른 생계(생업)
- 정정진(正精進) – 바른 정진
- 정념(正念) – 바른 마음 챙김
- 정정(正定) – 바른 삼매(三昧), 바른 (마음의) 집중

자료 플러스 사성제와 팔정도

바구들이어,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苦聖諦(고성제)]이다. 태어남도, 늙음도, 병도 그리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섯 가지 무더기[五蘊(오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集聖諦(집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갈애(渴愛)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 존재에 대한 갈애,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갈애가 그것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滅聖諦(멸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애가 남김없이 빛바래어 소멸함, 버림, 놓아 버림, 벗어남, 집착이 없음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道聖諦(도성제)]이다.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八正道]이니, 바른 견해[正見], 바른 사유[正思], 바른 말[正語], 바른 행위[正業], 바른 생업[正命], 바른 정진[正精進], 바른 마음 챙김[正念], 바른 삼매[正定]이다. - "상승부경" -

사성제는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해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보여 주는 진리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을 증득(證得)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나타나 있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여덟 가지 올바른 길, 즉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③ 삼법인(三法印: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또는 열반적정) 또는 사법인(四法印: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 열반적정): 연기의 원리를 현상 전체[法]에 적용하여 그 특징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즉 무상(無常), 무아(無我), 고(苦), 열반적정으로 명시한 것[印]

- 제행무상(諸行無常): 세상의 모든 것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함
- 제법무아(諸法無我):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음
- 일체개고(一切皆苦):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것은 고통[苦]일 수밖에 없음
- 열반적정(涅槃寂靜): 깨달음을 통해 이르는 열반은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임

❖ 무명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즉 근원적인 무지를 말함

❖ 중도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수행 방법으로,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지나치게 계율이나 고행에 빠지지도 않는 수행 방법임

개념 체크

- 1 석가모니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라고 하였다.
- 2 집제에 의하면 인간이 겪는 괴로움은 ()와/과 애욕으로 인해 생겨난다.
- 3 불교에서는 모든 것에 ‘나’라고 주장할 만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을/를 강조한다.

정답

- 1 사성제
- 2 무명
- 3 제법무아

❖ 결집

석가모니 사후에 가르침을 모아 정리하기 위해,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암송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던 모임

❖ 보살

대승 불교에서 중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사람을 말함

❖ 육바라밀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말함

❖ 자성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 독자적인 속성

❖ 세친의 유식 사상

“대승 경전에서는 ‘윤회의 세계가 단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여기서 ‘단지’라는 말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경형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세친, “유식이입론” -

개념 체크

- 1 대승 불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을/를 제시하고, 수행 덕목으로는 육바라밀을 제시한다.
- 2 대승 불교는 초기 불교의 연기설에 근거하여 () 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 3 대승 불교의 한 분파인 () 학파에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를 강조한다.

정답

- 1 보살
- 2 공
- 3 유식

(3) 대승 불교 사상

① 등장: 부파(部派) 불교를 비판하면서 등장

부파 불교(소승 불교)	대승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가모니의 입멸 후 제자들은 결집(結集)을 통하여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착수함 •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하고, 경전 체계를 확립함. 이런 과정에서 계율과 경전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교파로 분열됨 → 이 시대의 불교를 부파 불교라고 함 • 자신의 해탈과 엄격한 종교성을 중시하여 점차적으로 대중적 기반이 약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느라 대중과 멀어진 부파 불교를 소승 불교로 규정함 •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보살(菩薩)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수행 덕목으로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제시함 → 공(空)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됨

② 중관(中觀) 사상: 용수에 의해 구체화됨

공(空)의 원리	초기 불교의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 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봄 → 이를 근거로 일부 부파 불교에서 나타난 자성(自性) 개념을 비판함
중도(中道) 강조	유(有)에 집착하는 관점과 무(無)에 집착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함
중관	중도에 따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③ 유식(唯識) 사상

- 공(空)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함
-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함
- 식(識)을 제대로 알고 수행해야 궁극 목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봄
- 요가 수행: 식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를 얻는 수행

자료 플러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의 공(空)

•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法)을 공[無]이라고 설하며, 가명(假名)이라고도 하고, 또한 그것을 중도의 의미라고도 한다. 어떤 한 가지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공(空)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도 없고 사성제도 없다. - 용수, “중론” -

• 오식(五識)은 연(緣)에 따라 일어난다. 어느 때는 함께하고 어느 때는 함께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가 물에 의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의식(意識)은 항상 일어난다. 이 모든 식(識)이 전변해서 분별과 분별되는 것으로 나뉜다. 이것들에 의지해서 나타나는 이것과 저것은 모두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체는 오직 식뿐[唯識(유식)]이다. - 세친, “유식삼십송” -

* 오식(五識):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을 말함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모두 대승 불교에 속하는 사상이다.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은 석가모니가 제시한 연기를 공(空) 개념으로 전환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사물은 인연에 따라서 끊임 없이 생멸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이 공하다고 보는 것이다.

2. 깨달음의 길: 경전 이해와 본성의 자각

(1) 불교의 중국 전래

- ① 초기에는 주로 노장(老莊)사상의 개념을 빌려 불교를 이해하는 격의(格義) 불교가 전개됨
- ② 수·당 시대를 거치며 중국인들에게 맞는 형식과 내용으로 재해석되면서 다양한 종파로 나뉨

(2) 교종(敎宗)

① 교종의 특징

- 의미: 부처의 말씀인 경전을 근본으로 하는 종파
- 해탈에 이르기 위해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계율의 실천과 수행을 통한 성불(成佛)을 중시함

② 교종의 다양한 분파

천태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음 • 수나라의 천태 대사 지의(智顛)에 의해 체계화됨 •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마음의 집중인 지(止)와 통찰의 수행인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함
화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엄경”을 주요 경전으로 삼음 • 당나라 때 형성되어 천태종과 함께 중국 교종의 쌍벽을 이룸 •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이 되어 융합하고 있으므로, 분별과 대립이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한다고 봄
정토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음 •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정토(淨土)에 태어나 성불하기를 바라는 종파임 •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믿음

(3) 선종(禪宗)

① 선종의 연원

- 달마 대사에 의해 형성되고 혜능에 의해 정립됨
-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는 돈오(頓悟)를 주장함
- 직관적 종교 체험인 선(禪)의 수행을 강조함

② 선종의 특징

- 선종은 경전이나 복잡한 수행 체계, 의례보다는 본성의 자각을 중시함

자료 플러스 혜능의 선종

-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을 밝게 통찰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되고,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바로 해탈이며, 이미 해탈을 얻으면 바로 반야 삼매(三昧)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 바로 무념(無念)이니라.
-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음이 없으나 모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 때문에 밖으로 닦아 부처를 찾으므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듣고 밖으로 닦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 모두 다 단박에 깨닫게 된다. - 혜능, “육조단경” -

선종을 발전시킨 혜능은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佛性)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돈오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닫게 되면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누구나 부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 지관(止觀)

지(止)는 마음을 한곳에 집중하여 선정(禪定)을 얻는 것을 말하며, 관(觀)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수행을 말함

☞ 돈오

선종에서 강조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본성을 직관하여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함

☞ 불성

대승 불교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부처에 이를 수 있는 근본 성품을 말함. 선종에서는 ‘불성’을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으로 사용하기도 함

개념 체크

- 1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불교는 부처의 말씀인 경전의 가르침을 중시하는 ()와/과 직관적 종교 체험을 중시하는 () (으)로 나누어졌다.
- 2 선종에서는 우리가 본래 완성된 부처라는 것을 직관해야 한다는 ()을/를 강조하였다.
- 3 선종에서는 직관적 종교 체험인 ()을/를 중시하였다.

정답

- 1 교종, 선종
- 2 돈오
- 3 선(禪)

- 자신의 마음을 직접 보고[直指人心(직지인심)], 자신의 본성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음[見性成佛(견성성불)]을 강조함
- 경전에 얽매이는 것을 비판하면서[不立文字(불립 문자)], 경전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함[教外別傳(교외별전)]을 중시함
-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으로 주고받는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함[以心傳心(이심전심)]
-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언설과 문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언설과 문자가 지니고 있는 형식과 틀에 집착하거나 빠지는 것을 경계함을 의미함

㉠ 한국의 불교 사상: 조화 중시

1. 불교의 수용

- (1) 삼국 시대에 체제의 정비와 민심 안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수용 → 통일된 사상과 통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용이 이루어짐
- (2) 교종을 먼저 받아들인 후 통일 신라 시대에 선종을 수용함
- (3) 고려 시대에 교종과 선종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개됨

2. 원효의 사상

- (1) **종합적인 불교 이론의 전개**: 어떤 경전을 중시하는가를 따지는 중국 불교와 달리 종합적으로 불교 사상을 이해하고자 함
- (2) **일심(一心) 사상**: 일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불이(絕對不二)한 것
- (3) **화쟁(和諍) 사상**: 당시 대립·갈등하는 여러 불교 종파의 주장들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려는 사상
- (4) 일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봄
- (5) 화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3. 의천의 사상

- (1)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 (2) **교관겸수(教觀兼修)**: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과 참선을 하는 지관(止觀) 수행을 함께 해야 함
- (3) **내외겸전(內外兼全)**: 내적인 공부[선종]와 외적인 공부[교종]를 같이 온전히 해야 함

㉡ 원효의 일심 사상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중생의 마음에 청정한 본래의 마음인 진여(眞如)와 선악이 섞여 있는 현실의 마음인 생멸(生滅)의 두 측면이 있지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 내외겸전

안과 밖을 모두 완전하게 한다는 뜻으로, 안은 선종을, 밖은 교종을 의미함

개념 체크

- 1 원효가 강조한 ()은/는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불이한 것이다.
- 2 원효는 당시의 대립·갈등하는 여러 불교 종파의 사상들을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아우르려는 () 사상을 제시하였다.
- 3 의천은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과 참선을 하는 지관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을/를 주장하였다.

정답

- 1 일심
- 2 화쟁
- 3 교관겸수

자료 플러스 의천의 사상

불법이라는 것은 표현해 낼 언어가 없지만 (그렇다고) 언어적 표현을 떠나는 것도 아니다. 언어적 표현을 떠나면 오히려 미혹되고, 언어적 표현에 집착하면 참된 것을 놓치고 만다. 그러나 세상에 재주를 완전하게 갖춘 사람이 드물고 사람이 훌륭함을 갖추기도 어렵다 보니, 가르침[敎]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안의 것을 버리고 바깥의 것을 추구하거나 선(禪)에 익숙한 사람은 일상의 연을 끊고 안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모두가 한쪽에 치우쳐서 안팎 양면이 다 딱 맞고 말았다. 그것은 마치 토끼 뿔의 길고 짧음을 다루고, 허공의 꽃이 진하나 열어나를 다루는 것과 같다.

- 의천, “강원각경발사” -

의천은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그는 교(敎)를 배우는 사람들은 내면을 닦는 수행을 경시하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들은 교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서, 이는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경향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과 밖을 모두 닦아야 한다는 내외겸전을 강조하였다.

4. 지눌의 사상

- (1)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함
- (2) 돈오점수(頓悟漸修): 단박에 진리를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習氣)를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수행이 필요함
- (3) 정혜쌍수(定慧雙修): 점수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아 나가는 것
- (4) 선교일원(禪敎一元): 선(禪)은 부처의 마음과 같으며,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므로 선종과 교종은 본래 하나임
- (5) 선종의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교종에서 중시하는 경전 공부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선종과 교종의 공존을 꾀함

자료 플러스 지눌의 사상

-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문(門)은 많지만 요체를 말하자면 돈오와 점수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돈오와 돈수는 최상의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만약 과거를 미루어 볼 것 같으면, 이미 여러 생애 걸쳐 깨달음에 의거하여 수행을 하면서 점차 익혀 오다가 금생(今生)에 이르러 듣는 즉시 깨달아 일시에 모든 것을 마친 것이니 실재를 논한다면 이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 선정은 본체(體)요, 지혜는 작용(用)이다. 본체에 즉(卽)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한 가운데 항상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항상 고요하다. - 지눌, "수심결" -

지눌은 혜능의 선(禪)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돈오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혜능은 돈오하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돈오점수를 주장하였다. 또한 선정과 지혜를 본체와 작용으로 해석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

☞ 습기

오랫동안 반복되어 몸에 배어 있는 기운이나 습성

☞ 선교일원

"부처가 입으로 설한 것이 교(敎)이고, 훌륭한 스승(祖師)이 마음으로 전한 것이 선(禪)이다. 부처의 가르침과 훌륭한 스승의 마음은 결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 지눌, "화엄론절요서" -

개념 체크

- ① 지눌은 혜능과는 달리 단박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을/를 주장하였다.
- ② 지눌은 부처가 입으로 설한 것이 ()이고, 훌륭한 스승이 마음으로 전하면 ()이라고 하면서 부처의 가르침과 훌륭한 스승의 마음은 결코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③ 한국 불교는 대립·갈등하는 종파들을 통합하려는 ()정신을 갖고 있다.

정답

- ① 돈오점수
- ② 교(敎), 선(禪)
- ③ 조화

5. 한국 불교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1) 한국 불교의 특징

- ① 여러 종파를 통합하면서 조화를 추구함 → 원효, 의천, 지눌은 서로 다른 종파들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지향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종파의 갈등을 화해시키고자 함
- ② 대승 불교의 전통을 확장하여 민족과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함

(2) 한국 불교의 현대적 의의

- ① 현대 사회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화해시키는 데 시사점을 제공함
- ② 개인이 본연의 자신을 찾고 행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줌
- ③ 공동체 전체를 이롭게 하고 나눔의 가치를 되살리는 데 이바지함

[23014-0049]

0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구들이여,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無常)하다.'라는 것은 여래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정리된 것이다. 여래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투철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 ①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과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다.
- ②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실체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 ④ 지혜로운 삶보다는 무명(無明)의 삶을 지향해야만 한다.
- ⑤ 불성(佛性)을 형성하여 삼라만상의 참모습을 인식해야 한다.

[23014-0050]

0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 집성제(集聖諦)인가? 그것은 갈애(渴愛)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갈애[欲愛], 존재에 대한 갈애[有愛],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애[無有愛]가 그것이다.

보기

- ㄱ. 나를 구성하는 물질적, 정신적 요소는 일시적 결합이다.
- ㄴ. 태어남[生]으로 인해 늙음[老]과 죽음[死]은 피할 수 없다.
- ㄷ. 인간의 생멸(生滅)은 인간의 의도적 행위[業]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 ㄹ. 고통에 대한 자각은 무지이며, 해탈에 대한 자각은 지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51]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른 삼매[正定]란 어떤 것인가? 삶과 죽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생각이 고요해지고, 상(相)이 고요해지며, 고요함을 지켜 나가면 고요함을 이룬다. 무엇을 한다는 생각도 없고, 어떠한 결점도 생기지 않으며, 무기(無記)에 떨어지지도 않으니, 이를 바른 삼매(三昧)라고 한다. 도를 닦는 제자들이 이 팔정도를 받아들여서 말한 대로 행한다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무기(無記): 선과 악 등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또는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함

- ① 선행과 악행에 따른 과보(果報)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② 바른 사유를 통해 성냄과 분노의 마음을 제거해야 한다.
- ③ 생계유지를 위한 행위도 옳지 못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④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도 수행의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 ⑤ 수행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독립성을 확립해야만 한다.

[23014-0052]

04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원인과 조건에서 생긴 법을 나는 '공(空)'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여러 조건들이 갖춰지고 화합해서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自性)이 없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임시로 이름 지은 것[假名]을 말하는 것이다. '있다'와 '없다'의 양극단을 여의었기에 중도라 한다. 현상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공도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다.

- ① 원인[因]과 조건[緣]에 의해서 생긴 현상들은 일체가 공인가?
- ② 중도의 관점에서 발생과 소멸은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가?
- ③ 모든 존재는 자성이 있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 ④ 선정(禪定)을 수행하여 인간의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가?
- ⑤ 생겨난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

[23014-0053]

05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마음의 흐름이란 마음의 씨앗이 현재의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다시 마음의 씨앗으로 저장되는 허구적 분별의 과정이다. 그렇게 허구적으로 분별된 외부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체는 내 마음이 그려 낸 표상[唯識]일 뿐이다.

| 보기 |

- ㄱ. 윤회의 세계를 경험하는 마음마저 부정해야만 한다.
 ㄴ. 사물은 공의 원리를 따르고 인간은 실체로 존재한다.
 ㄷ. 식(識)의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ㄹ. 수행으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혜[智]를 얻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54]

06 A는 중국 불교 사상가이다. A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날 A는 ‘이제는 법을 펼칠 때가 되었으니 그만 숨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산에서 나와 광주(廣州)의 법성사로 갔다. 마침 한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해서 논쟁이 그치지 않았다. A가 나서서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대중이 놀랐다.

- ① 경전 공부 같은 이론 공부보다는 불성의 자각이 중요하다.
 ② 먼저 수행을 꾸준히 하면 청정한 본래 마음이 자각된다.
 ③ 불성은 그 자체로 맑고 깨끗하고 단박에 깨칠 수 있다.
 ④ 밖으로 닦는 수행보다 자신의 자성을 신뢰해야만 한다.
 ⑤ 본래 마음을 알면 해탈과 무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23014-0055]

07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승(大乘)의 진리에는 오직 한마음[一心]만 있다. 한마음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단지 무명(無明)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 한마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탓에 여러 가지 파랑을 일으켜 온갖 윤회의 세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윤회의 파도가 일지라도 그 파도는 한마음의 바다를 떠나는 게 아니다. 한마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세상 윤회의 파도가 일어나므로 널리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게 된다. 또한 윤회의 파도는 한마음을 떠나지 않으므로 한 몸이라는 큰 자비[同體大悲]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엄격한 수행으로 아라한(阿羅漢)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② 깨달음과 수행을 단박에 이루고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③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과의 갈등을 조화롭게 회통해야 한다.
 ④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도 실상은 불이(不二)한 관계이다.
 ⑤ 염불(念佛)을 통해 이상적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23014-0056]

08 다음을 주장한 한국 불교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선정은 본체[體]요, 지혜는 작용[用]이다. 본체에 즉(卽)한 작용이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고요한 가운데 항상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지혜가 곧 선정이므로 지혜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항상 고요하다. 선정과 지혜 두 말은 바로 삼학(三學)을 줄인 말로 갖추어 말하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이다. 계율이란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친다는 뜻으로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이요, 선정이란 이치에 맞추어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잡는다는 뜻으로 갖가지 욕심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며, 지혜는 법으로 공(空)을 관(觀)한다는 뜻이니 이는 생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 보기 |

- ㄱ. 먼저 깨달은 다음에 점차로 수행(漸修)해야 하는가?
 ㄴ. 중생이 곧 부처라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ㄷ. 교(敎)와 선(禪)은 궁극적으로 서로 어긋나지 않는가?
 ㄹ. 불성을 신뢰한다면 외적인 지혜 공부는 불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057]

1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색(色)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여 '색은 무상(無常)하다.'라고 사실 그대로 알라. 왜냐하면 비구들아, 색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여 '색은 무상하다.'라고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알면 색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탐욕이 끊어지면 이것을 심해탈(心解脫)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수(受), 상(想), 행(行)도 마찬가지이며, 식(識)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여 '식은 무상하다.'고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알라. 왜냐하면 식에 대해서 바르게 사유하여 '식은 무상하다.'고 관찰해 사실 그대로 알면 식에 대한 탐욕이 끊어지고, 탐욕이 끊어지면 이것을 심해탈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 ① 무상한 세계 속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 ② 해탈하면 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③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노력과 참된 깨달음은 다르지 않다.
- ④ 색의 무상함을 알기 위해 무명(無明)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⑤ 오온(五蘊)은 일시적이며 인연에 의해서 늘 새롭게 구성된다.

[23014-0058]

2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곧 무명(無明)을 인연하여 행이 있고 나아가서는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여, 무명이 멸(滅)하기 때문에 행(行)이 멸하고 나아가서는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더기가 멸한다.

[보기]

- ㄱ. 무아(無我)를 인식하려면 삶의 주체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ㄴ. 찰나적 변화에 현혹되지 말고 불변하는 실체를 추구해야 하는가?
- ㄷ. 무명(無明)에서 벗어나려는 집착도 참된 깨달음을 방해하는가?
- ㄹ. 상의적(相依的) 관계로 만물이 형성되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14-0059]

3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여, 그와 같이 내가 완전한 깨달은 것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주 적다. 그러면 나는 왜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것은 선함을 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나는 ㉠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왜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가? 제자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선함을 주고,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쳤다.

- ① ㉠은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괴로움이 대표적이다.
- ② ㉠, ㉡은 중생의 고통에 대한 설명으로 참된 깨달음은 아니다.
- ③ ㉢은 깨달음의 경지로서 모든 고통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이다.
- ④ ㉣은 무명과 애욕을 없애는 방법이며 중도(中道)를 닦는 것이다.
- ⑤ ㉠~㉣은 인간의 삶과 본질을 연기(緣起)의 법칙에 따라 설명한 것이다.

[23014-0060]

4 다음을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원인[因]과 조건[緣]에서 생긴 법[法]을 나는 ‘공(空)’이라고 말한다. 왜 그러한가? 여러 조건이 갖춰지고 화합해서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귀속되는 것이기에 자성(自性)이 없다. 자성이 없기에 공한 것이고,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 단지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거짓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있다’와 ‘없다’의 양극단을 여의었기에 중도라 한다. 현상은 자성이 없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공도 없기에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현상에 자성이 있다면 여러 조건을 기다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법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법은 없다.

┌ 보기 ─┘

- ㄱ. 자성이 여러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ㄴ. 일체의 모든 현상이 무상(無常)하기 때문에 만물은 공(空)한 것이다.
- ㄷ. 구체적인 사물은 부정될 수 있어도 마음의 작용[識]만은 존재한다.
- ㄹ. 참된 깨달음은 실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非有]에 집착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14-0063]

7 (가)를 주장한 불교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법(法)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거늘, 어찌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참된 본성을 단박에 나타내지 못하는가? 경(經)에서 '나의 본래 근원인 자성(自性)이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였으니,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깨달음의 도를 성취하는 것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td style="width: 12.5%; height: 20px;"></td><td style="width: 12.5%; height: 20px;"></td></tr> <tr><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A)</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r> <tr><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B)</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r> <tr><td style="height: 20px;"></td><td style="height: 20px;"></td></tr> </table> <p>[가로 열쇠] (A): 불교에서 실천과 수행에 일정한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걸림이 없는 실천의 방법'을 뜻함 (B): 마음이 곧 이치[心卽理]임을 주장한 왕수인의 호(號)</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한 성인의 통치의 목표이다.
- ② 중생들이 가진 근본적 번뇌의 하나로서 끝없는 윤회의 원인이다.
- ③ 독자적 주체성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해소되는 삼독 중 하나이다.
- ④ 행위의 시비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도덕 기준이다.
- ⑤ 단박에 깨칠 수 없으며 지속적 수행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23014-0064]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행히도 지난 세월의 인연 덕으로 선지식을 두루 찾아뵙다가 나의 스승인 정원(淨源) 법사 문하에서 교관(敎觀)을 전수받게 되었다. 스승께서 일러 주시길, '관(觀)을 배우지 않고 오직 경전만 보는 이는 비록 인과(因果)를 듣더라도 성덕(性德)을 사무치지 못할 것이며, 경전을 알지 못하고 오직 관을 배우기만 하면 비록 성덕을 깨닫더라도 곧 인과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관을 배우지 않을 수 없고, 경을 익히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교관에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깨달음을 위해 교학(敎學)과 지관(止觀)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 ② 타 종파 수행 방법을 존중하되 그 방법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
- ③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선교(禪敎)의 바른 이치를 닦아야 한다.
- ④ 경전 공부와 자성이 청정함을 증득하는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
- ⑤ 점차적으로 수행을 하여 업과 과보의 인과성을 파악해야 한다.

[23014-0065]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한국 불교 사상이 가,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언 연못이 다 물인 줄은 알고 있어도 따뜻한 기운을 빌려야 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본래 참되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라도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서 닦아야 하는 것이다.

을: 바람 때문에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지만, 움직이는 파도와 고요한 바다는 다르기는 해도 둘이 아니다. 생멸(生滅)하지 않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도 둘이 아니다.

◎ 학생 답안

가, 을의 사상적 특징을 비교하면, ㉠ 가은 돈오와 점수의 조화를 추구하고, 을은 이원적 대립을 벗어나려는 절대불이의 정신을 강조한다. 가, 을은 각각 한국 불교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 가은 무애행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 을은 정도종을 수용하여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 가, 을은 공통적으로 특정한 종파에 얽매이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 가은 선종의 전통을 따르며, 을은 교종의 전통에 따른다는 차이점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4-0066]

10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늙음[老]과 죽음[死]은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바르게 관찰하고 나서 생(生)으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알았네. 생(生)은 본래 무엇을 인연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일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고 나서 생은 유(有)에서 일어남을 알았네.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애착[取]해 엮치락뒤치락 유만 더욱 늘어나네. 그러므로 여래는 이렇게 말하니 애착은 곧 유의 인연이 된다.

입장	학생				
	가	을	병	정	무
고통의 실상을 자각하고 즐거움을 애착하며 살아야 한다.	√			√	√
의도적 행위[業]로 인한 과보(果報)로 생멸의 윤회가 나타난다.		√	√	√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오온(五蘊)을 바르게 통찰해야 한다.	√	√			√
삼학(三學)을 익혀 청정한 불성을 꾸준히 형성해야 한다.			√	√	√

- ① 가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 도가 사상의 연원과 전개: 노자와 장자

1. 도가 사상의 출현

- (1) 노장(老莊)사상: 춘추 전국 시대에 나타난 노자와 장자의 사상
- (2) 유교와 도가의 비교

유교	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도덕성과 이에 바탕을 둔 도덕적 질서에 주목함 • 인의(仁義), 예악(禮樂) 등 도덕규범을 중시함 • 대표자: 공자, 맹자, 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道)에 따르는 삶과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함 • 인위적 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봄 • 대표자: 노자, 장자

2. 노자의 윤리 사상

- (1) 사회 혼란의 원인과 극복 방안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 • 인위적인 규범과 사회 제도
극복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道)에 따라 소박하고 순수한 덕(德)을 회복함 • 인위적이거나 의도적 조작이 없는 무위(無爲)를 실천함 → 인위가 없을 때 도의 자연스러움이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어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됨[無不爲]

- (2) 도(道)의 의미와 특징

의미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의 법칙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 • 인간의 언어로 한정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

자료 플러스 노자가 말하는 도(道)

- 무명(無名)은 천지의 시초요, 유명(有名)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 도는 만물을 낳고 덕(德)은 만물을 기른다.
-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 큰 도가 모든 곳에 넘실대니, 여기저기에 있다. 만물은 그것을 의지하여 발생한다. — “도덕경” —

노자는 도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이 도에서 생겨나고 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노자에 따르면, 이런 도는 무엇을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위(無爲)이다. 그는 특히 무위, 소박(素樸)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덕을 상덕(上德),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유교의 덕을 하덕(下德)으로 구분하였다.

- (3) 이상적인 삶과 이상 사회

① 이상적인 삶의 원리

- 무위자연(無爲自然): 사람의 인위적 힘이 더해지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상태

☉ 노자가 바라본 사회 혼란의 원인

“큰 도(道)가 사라지자 인(仁)과 의(義)가 생겨났고, 인위적인 지혜가 나타나자 커다란 거짓이 생겨났다.” — “도덕경” —

☉ 노자가 생각하는 도(道)

노자가 생각하는 도는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자 항상 저절로 그러한 것(自然)임

개념 체크

- 1 도가 사상은 노자와 장자에 의해 구체화되어 발전하였기에 ()이라고 한다.
- 2 노자는 ()이/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화 법칙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3 노자는 무위, 소박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덕을 (),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유교의 덕을 ()으로 구분하였다.

정답

- 1 노장사상
- 2 도(道)
- 3 상덕, 하덕

- 무위의 삶을 살기 위해 무지(無知), 무욕(無欲)의 덕을 갖추어야 함
 - 상선약수(上善若水): 으뜸이 되는 선(善)은 물과 같다. →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면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가장 가까운 것임. 물이 갖고 있는 겸허(謙虛)와 부쟁(不爭) 그리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利萬物] 덕을 중시함
 - 성인(聖人): 겸허와 부쟁 등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이상적 인간
- ②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소국 과민(小國寡民) → 나라(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
- ③ 이상적인 정치: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무위지치)] →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로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백성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봄

자료 플러스 노자가 바라보는 이상적 삶과 이상적 사회의 모습

-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道)에 가깝다.
- 세상에 규제가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지며, 사람들이 기교를 부리면 부릴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많아지고 법령이 선포되면 될수록 도둑이 더욱 들끓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무위(無爲)하니 백성은 저절로 감화되고, 내가 고요히 있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을 도모하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니 백성은 저절로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순박하게 된다. - “도덕경” -

노자는 상선약수를 주장하면서, 겸허와 부쟁의 덕을 지니고 무위자연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또한 노자는 규제, 이기(利器), 기교, 법령 등을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며 도둑마져 들끓게 하는 불필요한 격식이나 도구로 보았다. 노자는 통치자가 세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바꿔 보겠다는 욕심을 버릴 때 백성들은 저절로 감화되어 바르게 되고 부유해지며 순박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 장자가 생각하는 도(道)

- “도로써 사물을 보면 만물 사이에 귀천이 없다.”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는 도가 있으며,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
- “장자” -

개념 체크

- 1 노자는 ‘상선약수’를 강조하면서 물이 가진 () 와/과 ()의 덕을 중시하였다.
- 2 노자는 인구가 적고 영토가 작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가식 없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의 국가관을 제시하였다.
- 3 장자는 ()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1 겸허, 부쟁
- 2 소국 과민
- 3 차별 의식

3. 장자의 윤리 사상

- (1) 특징: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함
- (2) 도(道): 이 세상 어디에나 내재되어 있는 천지 만물의 근원

자료 플러스 장자의 사상

-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풀을 좋아하고 지네는 뱀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쥐의 고기를 좋아한다. 이 넷 가운데 누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인가? 여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미녀이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녀를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새가 그녀를 보면 멀리 날아가 버린다. 사슴이 그녀를 보면 재빠르게 도망간다.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인가?
-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일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다. 인의(仁義)가 사람들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는가? 인(仁)을 갖춘 사람들,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는가?
- “장자” -

장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 즉 시비(是非), 귀천(貴賤), 미추(美醜) 등은 상대적이며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인 삶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며, 주위 환경에 의해 본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道)와 일치하는 삶
수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망(坐忘):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림 • 심재(心齋):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함 → 마음을 비운 허(虛)의 상태에서 도가 드러난다는 의미
이상적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양을 통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인간 • 지인(至人), 진인(真人), 신인(神人), 천인(天人), 성인(聖人) 등

(4) 이상적인 경지

- ① 소요유(逍遙遊):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앴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
- ② 제물(齊物):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함.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 미추, 자타, 빈부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런 모든 차별이 의미 없음
- ③ 물아일체(物我一體):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

자료 플러스 장자의 수양 방법과 이상적 인간상

-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것을 좌망이라고 한다.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이처럼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 어떤 사람이 하늘땅의 바름[正]을 타고, 여섯 가지 기(氣)의 변화를 부려, 무한한 경지에서 노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사람이 무엇에 더 기대겠는가? 그러므로 지인은 자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은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는다. - “장자” -

장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지인, 신인, 성인, 진인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과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심재를 제시하였다.

☉ 도가·도교 사상의 영향

1. 도가·도교의 성립과 전개

(1) 도가와 도교

구분	도가	도교
공통점	우주 자연의 근원인 도(道)를 중심으로 그 이론과 실천 방법을 전개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철학 사상 • 세속적 가치를 초월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 철학적 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가 사상에 민간 신앙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종교화한 것 • 현세적인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면서 불로장생과 신선술을 믿는 종교

(2) 도교 사상의 전개

- ① 황로학파(黃老學派): 전한(前漢) 시대
 -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黃帝)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老子)를 숭상하고, 무위(無爲)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함
 - 도가를 중심으로 유가, 묵가, 법가 등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을 수용함

☉ 소요유

자유롭게 거닐며 노닌다는 뜻. 장자는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소요유라고 봄

☉ 황로학

고대 중국의 전설적 임금인 황제(黃帝)와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老子)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 지음

개념 체크

- ① 장자는 도를 체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와/과 ()을/를 제시하였다.
- ② 장자는 절대적인 시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시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즉 ()을/를 주장하였다.
- ③ 장자는 ()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선악, 미추, 빈부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런 모든 차별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제물론(齊物論)을 제시하였다.

정답

- ① 좌망, 심재
- ② 소요유
- ③ 도

태평도

모두가 잘 사는 태평한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여 붙여진 이름

삼관수서

하늘, 땅, 물을 관장하는 신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글을 써서 바치게 한 것

죽림칠현

어지러운 정치와 세속의 가치예 등을 돌리고 자연에 묻혀 예술과 철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던 일곱 명의 현인

양생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개념 체크

- 1 도교인()은/는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면서 삼관수서를 행하였다.
- 2 위진 시대에 죽림칠현이 현실에 등을 돌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하여 예술적이며 형이상학적 담론을 즐겼는데, 이를 ()이라고 한다.
- 3 도교는 불로장생하는 ()을/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외단과 내단을 통한 양생을 중시한다.

정답

- 1 오두미교
- 2 청담
- 3 신선

② 교단 종교: 후한(後漢) 시대

- 태평도(太平道): 천하태평의 이상 사회를 현실에 실현시키고자 하였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것을 강조함
- 오두미교(五斗米教): “도덕경”을 기본 경전으로 삼았으며,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면서 삼관수서(三官手書)를 행함

③ 현학(玄學): 위진(魏晉) 시대

- 노장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면서 청담(淸談) 사상을 제시함
- 청담을 통해 인간의 고정 관념을 초월한 무(無)의 세계를 진실한 세계로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함
- 죽림칠현(竹林七賢):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중시하던 사상가들

자료 플러스 태평도와 오두미교

- 사람이 지상에서 선을 행하면 천상에서 그에 응하여 선을 행한다. 사람이 지상에서 악을 행하면 천상에서 그에 응하여 악을 행하니, 그 기(氣)가 위로 통한다. 오기(五氣)가 서로 이어져 위아래가 같고, 육갑(六甲)이 서로 속하여 위아래가 같으며, 십이지(十二子)가 위아래로 합하는 것은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 아래가 선하면 그 위가 밝다. 그 아래가 악하면 그 위가 흉하다. 그러므로 오행(五行)이 아래에서 흥하면 오상(五常)이 위에서 밝아진다. — “태평경” —
- 도(道)는 삶을 베풀어 선행을 장려하고 죽음을 설정하여 악행에 압력을 가한다. 죽음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수행인과 속인은 모두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삶을 좋아하지만, 그 행동은 다르다. 속인들은 많지만 죽음에서 벗어난 이는 없다. 수행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도를 믿고 계율을 지킨다. 따라서 삶과 잘 어울린다. — “노자상이주” —

교단 종교인 태평도는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덕적 선행을 권장하였고,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또한 초기 오두미교의 경전 “노자상이주”에 따르면, 선행을 많이 하면 도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장수해서 신선이 되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보았다.

(3) 도교 사상의 특징

- ① 생명 중시: 불로장생(不老長生)하는 신선(神仙)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외단(外丹)과 내단(內丹)을 통한 양생(養生)을 중시함 → 의학의 발전에 기여함
- ② 이상 사회의 방향 제시: 종교적 구원을 내세워 핍박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상적인 사회상을 제시하고자 함
- ③ 예술 정신: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인 천진(天真), 소박(素樸) 등을 중시하거나 소요유 같은 이상적인 경지에 대한 동경을 담은 예술이 나타남 → 위진 시대 이후 동양의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침

2. 한국의 도교 사상

(1) 도교의 국가적 수용

- ① 도교의 원류를 찾을 수 있는 한국 고유 사상: 우리나라의 산신 사상과 신선설,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 기록된 풍류도(風流道) 등
- ② 도교의 수용: 국가 차원의 신앙 체계를 갖출 필요성 때문에 수용됨

(2) 도교의 전개

- 고려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기 위해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재초(齋醮)라는 도교 의례를 거행함
- 재초는 삼국 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성행하였으며, 조선 초까지 명맥이 이어짐
- 고려 시대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교를 장려했고, 도관(道觀)을 건립하여 각종 재초를 수행하였음
- 조선 시대에 수련 도교가 행해짐

자료 플러스 재초

엷드려 바라옵건대, 신령스러운 빛으로 아래를 구제하여 주시고, 그 음덕(陰德)으로 도와주셔서 재앙의 싹이 돋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움과 조화를 내려 주시어, 나뭇가지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순한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고, 흙덩이가 부서지지 않도록 비를 내려 주셔서, 흡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사해(四海) 안에 복을 고루 베풀어 주시옵소서.
- 최유청, “건덕전초례청사” -

고려 시대에는 재초를 실시하였다. 재초란 도사가 하늘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내리도록 비는 도교 제례를 말한다. 재초는 도교 사찰인 도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지방의 명산에 제단을 설치하고 거행하기도 하였다.

(3) 한국의 도교의 특징

- 수련 도교의 수용: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의 영향에 따라 수련 도교의 전통이 자리 잡았고, 조선 시대에는 신선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배출됨 → 마음의 수련과 기의 단련을 함께 수행하는 “활인심방(活人心方)”이 유행함
- 의학의 발전: 도교의 양생법은 의학의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함 → 조선 시대에 간행된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東醫寶鑑)”에 영향을 미침
- 도교와 다른 사상의 융합
 - 민간 신앙에서의 도교 수용: 옥황상제, 성황(城隍), 칠성(七星), 조왕 등 여러 신 숭배
 - 유교·불교 사상의 흡수: 유교의 인이나 충효 사상, 불교의 인과응보(因果應報) 사상을 수용함 → “공과격(功過格)”을 제시하면서 윤리적 덕행을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강조함
 - 풍수지리(風水地理) 사상 수용: 땅이 지닌 생기를 찾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신앙의 측면을 보임

☉ 도가 사상의 현대적 의의

1. 진정한 행복의 의미 제시

- 행복은 세속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에 있음
- 부, 명예, 아름다움 등 세속적 가치는 상대적이며 그것에 얽매는 것은 불행해질 수 있음
-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말고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함

2.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 해결에 시사점 제공

-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는 이분법적 사고와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 우월적인 사고에 있음
- 시사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그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

☉ 활인심방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인 이황이 중국의 “활인심”을 필사하여 펴낸 책

☉ 성황, 칠성, 조왕

성황은 신수(神樹)에 잡석을 쌓아 놓은 마음의 수호신을 말하고, 칠성은 북두칠성을 신격화한 것으로 인간의 수명, 재복, 강우를 관장하는 신을 말하며, 조왕은 불과 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말함

☉ 공과격

금전 출납부처럼 선악의 행위를 적어 계산하고 반성하고자 만들어진 책을 말함

☉ 풍수지리

땅에 관한 이치를 체계화한 전통적 사유로,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음

개념 체크

- ()은/는 도교 의례로 삼국 시대에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성행하였다.
- 도교의 양생술에 관한 관심은 ()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이 그 예이다.
-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권선서(勸善書)가 유행하면서 자신의 선행과 악행을 구분해 기록하는 ()이/가 보급되었다.

정답

- 재초
- 의학
- 공과격

[23014-0067]

0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총애[寵]를 받거나 욕[辱]을 당하거나 다 같이 놀란 것 같이 하라. 큰 환란을 귀하게 여기기를 내 몸을 귀하게 여기듯 하라. 총애를 받으나 욕을 당하거나 다 같이 놀란 것 같이 하란 말은 무엇을 일컬음인가? 총애는 항상 욕이 되기 마련이니 총애를 얻어도 놀란 것처럼 할 것이요, 총애를 잃어도 놀란 것처럼 할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총애를 받으나 욕을 당하거나 늘 놀란 것 같이 하라 한 것이다.

- ① 예법을 배워 타고난 이기적 본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②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인격적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사된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④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굳센 도덕적 용기를 길러야 한다.
- ⑤ 소박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인위를 멀리해야 한다.

[23014-0068]

0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도를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성인은 스스로 부귀공명에 대한 기뻐함을 막고 사사로운 욕망과 잡념의 통문을 폐쇄하며, 경쟁의 날카로움을 꺾고 이해의 분분함을 풀어놓으며, 그 존엄한 빛남을 백성과 더불어 조화하여 풍진을 함께한다. 이를 일컬어 현동(玄洞)이라 한다.

【 보기 】

- ㄱ. 명분(名分)에 따라 사회적 직분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ㄴ.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를 인의(仁義)로써 바로잡아야 한다.
- ㄷ. 칭송받는 삶보다 무명(無名)의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 ㄹ. 천지의 시작은 이름 없는 자연의 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069]

03 갑과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단지 그의 존재만을 아는 지도자이다. 그다음은 백성들이 칭송하는 지도자이고 그다음은 백성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이며 그다음은 백성이 경멸하는 지도자이다.

을: 훌륭한 정치는 인을 베풀어 천하에 베풀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조정에서 벼슬하고자 하게 하며, 경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들에서 경작하고자 하게 하며, 장사꾼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시장에 물건을 저장하게 하는 것이다.

- ① 덕을 함양하기 위한 꾸준한 선행[集義]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② 하늘[天]이 인간에게 삶의 이치를 제공한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③ 인위의 강조가 인간의 본성을 어지럽힌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다툼을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윤리적 모범으로서 통치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23014-0070]

04 다음 고대 중국 사상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백배로 될 것이다. 인(仁)을 끊고 의(義)를 버리면, 백성은 자애(慈)와 효(孝)로 돌아오리라. 교활한 지혜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게 되리라. 이 세 가지 말은 분별적인 것이어서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명령하여 귀의하게 한다. 소박함을 지향하고 질박함을 보존하며 사사로움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인다.

- ① 충(忠)과 서(恕)를 바탕으로 대의명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 ② 성(性)을 교화하여 양지(良知)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③ 엄한 형(刑)과 무거운 벌(罰)을 통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 ④ 큰 거짓[大僞]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위적 규범을 버려야 한다.
- ⑤ 형식적 예악(禮樂)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禮)를 회복해야 한다.

[23014-0071]

05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담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살 때는 형편에 맞게 하기를 잘하고, 마음을 쓸 때는 그윽한 마음 가지기를 잘하고, 사람을 사귄 때는 어진 마음 가지기를 잘하고, 말할 때는 믿음직하게 말하기를 잘하고,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만들기를 잘하고, 일할 때는 능력 있게 하기를 잘하고, 움직일 때는 바른 때를 타기를 잘한다.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도다.

- ① 자연의 순리[道]를 깨닫기 위해서 꾸준히 지식을 쌓아야 하는가?
- ②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겸허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③ 인의(仁義)를 내세우는 거대한 통일 제국을 반대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누구나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덕을 지니고 있는가?
- ⑤ 사회 혼란은 인위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가?

[23014-0072]

06 (가), (나)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어떤 사람이 천지 만물의 본연의 모습[正]을 따르고, 자연의 변화[六氣]에 순응하여 무한한 경지에서 노닐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사람이 무엇에 더 기대겠는가?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자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神人)은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성인(聖人)은 명예를 탐내지 않는다.

(나) 좌망은 장생의 바탕이다. 그러므로 참된 본성[眞]에 따라 형(形)을 단련하니 형이 맑아지면 기(氣)에 합한다. 도를 머금어 기를 단련하니 기가 맑으면 신(神)에 합한다. 체와 도가 그윽[冥]하면 이를 득도라고 말한다.

보기

ㄱ. (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 인의(仁義)를 따르는 삶과 일치하는가?

ㄴ. (가): 외물(外物) 없이도 자유로운 삶은 가능한가?

ㄷ. (나): 불로장생의 성취는 자연스러운 도와 무관한가?

ㄹ. (가), (나):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자연의 도(道)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073]

07 다음 가상 편지의 밑줄 친 ‘고대 동양 사상가’의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친애하는 ○○에게

지난번 자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다가올까 걱정하는 모습에 신경이 쓰여 이렇게 편지를 쓰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누구나 깊은 슬픔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때로는 삶과 죽음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하는 것과 같이 생각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 주고 싶네. 그 사상가는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통해 죽음 이전에 삶도 없고, 삶 이전에 형체도, 기운[氣]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네.

- ① 애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치러 주어야 한다.
- ② 생사에 연연하지 말고 의로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자연의 오행의 이치와 인과응보를 따지며 살아야 한다.
- ④ 종교적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 ⑤ 본심을 어지럽히는 분별과 차별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23014-0074]

08 다음 동양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릇 선인(仙人)은 약물로 몸을 기르고[養身], 술수로 수명을 연장[延命]하여 내부에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외부로부터는 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오래도록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몸 그대로이다. 진실로 그 도를 터득만 한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기

ㄱ. 우주 자연의 생성 원리를 종교적 원리로 승화한다.

ㄴ. 현세적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ㄷ. 의학(醫學)에 의존하지 말고 선한 삶으로 장생을 추구한다.

ㄹ. 현명한 사람은 무위의 도를 따라 기(氣)를 수련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75]

1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천지가 불인(不仁)하므로 만물을 짚으로 만든 강아지[芻狗]로 삼았다. 성인도 불인하므로 백성을 짚으로 만든 강아지로 삼았다. 천지의 사이는 풀무와 같은가 보다. 비었으나 다하지 않고, 움직이면 더욱더 나온다. 말이 많으면 자주 궁해진다.
 을: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충성하며 서로 격려하도록 하려면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백성에게 정중한 태도로 임하면 백성은 공경할 것이고,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면 백성은 충성할 것이며,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면 백성은 서로 격려할 것이다.

- ① 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를 근본 삼아 인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백성들이 친소(親疏)의 구분 없는 인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도(道)가 사라졌기 때문에 효도와 자애가 강조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세속적 이익의 효율적 추구가 참된 성인의 도리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군주가 백성을 교화하기 전에 인격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3014-0076]

2 (가)의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지인(至人)은 인(仁)에서 길을 빌리고 의(義)에서 잠시 묵고서 소요(逍遙)의 경지에서 노닐며 그럭저럭해도 수확이 있는 밭에서 먹으며, 빌려줄 게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채소밭에서 밭을 붙인다. 소요는 무위요, 이를 일러 도를 터득하는 행실이라 하였다.</p> <p>을: 젊은이들은 집에서는 효도를 다하고 나와서는윗사람에게 공손하며, 행실을 삼가고 말을 성실하게 하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친근히 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 역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re> graph TD Start[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 A{A} A -- 예 --> B{B} B -- 예 --> G[갑의 입장] A -- 아니요 --> C{C} C -- 예 --> E[을의 입장] </pr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div> </div>

- ① A: 이상적 인간은 친소(親疏)에 따른 예의를 존중하며 사는가?
- ② B: 백성을 덕(德)으로써 인도하고 예(禮)로써 다스려야 하는가?
- ③ B: 본성을 존중하는 삶이란 일체의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 ④ C: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가?
- ⑤ C: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위의 치(治)를 해야 하는가?

[23014-0077]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도는 항상 무명(無名)이다. 통나무[樸]와 같은 도가 비록 하찮은 것 같지만, 천하가 그것을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한다. 제후와 왕들이 이 도를 잘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따르게 될 것이고, 천지가 서로 잘 맞아[相合] 감로(甘露)를 내릴 것이다. 백성들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된다[自均].

- ① 타고난 본성을 예로써 교화하여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 ② 부모에게 정성껏 효도를 행해 정명(正名)을 실현해야 한다.
- ③ 군주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엄격히 행하여 통치해야 한다.
- ④ 아이와 같은 순박한 마음으로 자연의 순리(順理)를 따라야 한다.
- ⑤ 진정한 예(禮)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이 부여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

[23014-0078]

4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높은 덕[上德]은 억지로 일을 도모하지 않으므로 인위적이지 않고, 높은 의[上義]는 억지로 일을 도모하므로 인위적이다. 높은 예[上禮]는 억지로 일을 도모하며, 팔을 걸어붙이고라도 예로 이끈다. 도가 없으면 덕이 나타나고 덕이 없으면 인이 나타나고 인이 없으면 의가 나타나고 의가 없으면 예가 나타난다. 예는 충성과 신의의 알맞은 겹질이며 혼란의 시작이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100%; text-align: cente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A)</td><td></td><td></td></tr> <tr><td></td><td>(B)</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p>[가로 열쇠] (A): 불교에서 진리에 통달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로 근원적인 무지를 말함 (B): 맹자가 말한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p> <p>[세로 열쇠] (A): …… 개념</p>								(A)				(B)								
		(A)																			
	(B)																				

- ① 이상적 삶을 살기 위해 집착과 더불어 제거해야 할 악덕이다.
- ② 욕심 없는 소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연의 덕이다.
- ③ 다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거해야 할 사회적 해악이다.
- ④ 인간이 선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사덕(四德)의 분명한 단서이다.
- ⑤ 행위의 시비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도덕 기준이다.

[23014-0079]

5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동양 윤리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죽음은 부스럼이 사라지거나 증기가 터지는 것과 같고, 삶은 몸에 군살이 붙거나 혹은 달리는 것과 같다. 진인(眞人)은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속세를 벗어나 한가롭게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자유로이 노닌다.

(나) 죽음은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 감각 쾌락에 집착하는 이들을 휩쓸어 간다. 오온(五蘊)의 결합인 몸이 아지랑이처럼 무상(無常)한 것임을 알고 몸에 대한 애착을 제거하면 윤회를 벗어나 열반(涅槃)에 이른다.

◎ 학생 답안

(가), (나)는 대표적 동양 윤리 사상으로서 ㉠ (가)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을 중시하고, (나)는 무아를 인식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중시한다. 이 두 사상은 각각 인류에게 큰 지혜를 주었는데, ㉡ (가)는 인간이 그릇된 가치를 추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성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 (나)는 이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오직 인간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반대하며, 또한 ㉤ (가)와 (나)는 기본적으로 무지(無知)를 혼란의 원인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4-0080]

6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자고 일어나는 것에 사시의 절도를 지키며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나 근골을 단련하며, 다양한 수련과 호흡법으로 질병을 없애고 기를 영위에 유행시키며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여타의 요령으로 절도 있는 노동을 하며 분노를 참아 음기를 보전하며 기쁨을 눌러 양기를 기른 연후에 초목의 약을 복용하여 수명의 단축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금단으로 무궁한 수명을 누린다. 불로장생의 이치는 이것으로 다하는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신선(神仙) 사상 같은 무속에서 벗어나 현세에서의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V			V	V
양생을 잘한다는 것은 선한 심성을 지키며 도덕적 실천을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V	V	V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사는 것은 도(道)와 모순되지 않는다.	V	V			V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형이상학적이고 예술적인 논의를 학문의 중심에 둔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④ 한국 전통 윤리 사상의 근대적 지향성: 조선 후기의 사상

1. 조선 후기의 유교 사상

(1) 실학

① 특징

- 공리공론(空理空論)이나 허학(虛學, 공허한 학문)을 반대하면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함
- 청나라의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 및 종교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성리학과 다른 세계관과 인간관 및 도덕관을 제시함
- 우리의 역사, 지리, 풍속 등에 대한 독자적인 탐구를 전개함

② 주요 경향

경세치용(經世致用)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함
이용후생(利用厚生)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을 추구함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입각해서 옳음을 구함

자료 플러스 박지원의 실학사상

- 글을 읽고서 실용을 모르는 것은 학문 연구가 아니다. 학문 연구를 귀중히 하는 것은 실용에 있다. 만약 고상하게 성명(性命)이나 이야기하고 끝까지 이기(理氣)나 변칙하여 각기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하면서 그 의견으로 귀일(歸一)시키려 애쓰다면 이는 학문 연구의 해독(害毒)이다.
- 이용(利用)을 이룬 뒤라야 후생(厚生)을 할 수 있고 후생을 이룬 뒤라야 덕이 바르게 된다. 기물(器物)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지 않고서 그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드물 것이니, 생활이 이미 윤택하지 못하다면 어찌 덕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연암집" -

박지원은 실용성이 있는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용과 후생이 이루어져야 정덕(正德)을 실현할 수 있다.

(2) 강화학파

- ① 하국 정제두에 의해 독자적인 조선 양명학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하나의 학파[江華學派(강화학파)]를 이루게 됨
- ② 왕수인의 양명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킴 →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사욕을 극복하여 양지를 실천할 것을 강조함
- ③ 불교, 도교에도 관심을 갖는 등 개방적인 학문 태도를 취하였으며, 일제 강점기의 국학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영향을 줌

자료 플러스 정제두의 양명학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生理(생리))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 어느 것이나 능히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이 그 고유한 덕(德)으로서 이른바 양지(良知)란 것이고 또 인(仁)이란 것이다.
- "하곡집" -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리설, 치양지설 등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켜 조선 양명학을 수립하였다. 특히 그는 양지를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로 보았다.

③ 공리공론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리

③ 강화학파

조선 후기 정제두(鄭齊斗)를 비롯한 일군의 양명학자들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형성한 학파

개념 체크

- ① 실학의 한 가지 중요한 경향인 ()은/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과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 ② 실학자 박지원은 이용을 이룬 뒤라야 후생을 할 수 있고, 후생을 이룬 뒤라야 ()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정제두는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인 ()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 ① 경세치용
- ② 정덕
- ③ 양지

2. 근대 격변기의 사상과 신흥 민족 종교

(1)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

- ① 위정척사의 의미: 올바른 것[正,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은 지키고 사악한 것[邪,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 함
- ② 대표적인 학자: 이항로, 기정진, 최익현 등
- ③ 의의: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과 절의(節義)를 강조하는 선비 정신의 표출로 볼 수 있음 → 훗날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함

자료 플러스 이항로와 최익현의 위정척사 사상

- 양적(洋賊, 서양 도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은 내 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양적과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입니다. 전자를 따르면 기존의 문화 전통을 보존할 수 있지만,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禽獸)의 지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 이항로, "화서집" -
- 강화(講和)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邪學, 천주교)의 서적과 천주(天主)의 초상화가 교역 과정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사학이 온 나라에 퍼질 것입니다. 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예의는 시궁창에 빠지고 인간들은 금수가 될 것입니다. - 최익현, "면암집" -

이항로와 최익현은 대표적인 위정척사 사상가들이다. 이들은 올바른 것, 즉 유교적 가치 체계와 문물을 지키고 거짓된 것, 즉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2) 개화사상

- ① 개화의 의미: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에 나아가 자립하며, 장점을 기르고 단점을 버림
- ② 유형: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온건 개화론과 급진 개화론으로 나뉨
- ③ 의의: 서구 문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사회 개혁을 도모하려는 근대 지향적인 사상의 면모를 보여 줌 → 훗날 애국 계몽 운동으로 이어짐
- ④ 온건 개화론[동도서기론]: 유교적 가치와 질서[東道(동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西器(서기)]을 수용하자는 입장 → 유교를 중심으로 삼고 근대화된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

자료 플러스 신기선의 동도서기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도(道)이고 수시로 바뀌어 고정적일 수 없는 것은 기(器)이다. 무엇을 도라고 하는가? 삼강(三綱), 오상(五常), 효제충신(孝悌忠信)이다. 무엇을 기라고 하는가? 예악(禮樂), 형정(刑政), 복식(服飾), 기용(器用)이 이것이다. 대개 동양인들은 형이상(形而上)에 밝기 때문에 그 도가 천하에 홀로 우뚝하며, 서양인들은 형이하(形而下)에 밝기 때문에 그 기는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동양의 도로써 서양의 기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비록 오랑캐의 법이라도 행할 수 있다. "서경(書經)"에서는 "정덕(正德)과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조화시켜라."라고 하였다. 우리의 도를 행하는 것은 정덕을 위한 것이요, 저들의 기를 본받는 것은 이용후생을 위한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병행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 신기선, "농정신편", '서문' -

동도서기론은 동양의 도, 즉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의 기, 즉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신기선에 따르면 동도는 정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서기는 이용후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형정, 복식, 기용

- 형정: 형벌에 관한 행정
- 복식: 옷의 꾸밈새
- 기용: 각종 도구의 사용

개념 체크

- 1 위정척사 사상에서는 올바른 것, 즉 ()적 가치 체계와 질서는 지키고 사악한 것, 즉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이)란 개발하여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에 나아가 자립하며 장점을 기르고 단점을 버린다는 의미이다.
- 3 ()은/는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기반으로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다.

정답

- 1 유교
- 2 개화
- 3 동도서기론

⑤ 급진 개화론[변법적 개화론]: 유교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 → 전통적 정치 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함

(3) 신흥 민족 종교 사상

① 신흥 민족 종교의 등장 배경

- 대내적 배경: 신분 차별, 지배 계층의 수탈, 유교 사상의 지배력 상실 등 조선 후기 사회의 내부적 모순 심화
- 대외적 배경: 서학[천주교]의 침투, 서양의 통상 요구로 인한 위기의식의 고조

② 신흥 민족 종교의 공통점

- 우리 겨레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함
- 사회 변혁을 주장하며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자 하는 백성의 열망을 반영함 → 후천 개벽 사상
- 내세보다 현세에서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봄

③ 대표적 신흥 종교

신흥 종교	특징	중심 사상
동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제우가 제창한 민족 종교 •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함 •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표방함 •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천주(侍天主):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 •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임 •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임 • 사인여천(事人如天): 사람 대하기를 하늘 섬기듯 함 • 성(誠), 경(敬), 신(信)의 수양을 강조함
증산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일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민족 종교 •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닦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원상생: 원한을 풀고 서로 살리며 함께 살아가 • 현세에서의 지상 낙원 실현을 주장함, 사랑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원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종빈이 창립한 민족 종교 •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표방함.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면서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원상(一圓相)의 진리: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일원상[○]으로 표현 • 영육쌍전(靈肉雙全):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 **보국안민**

나라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 **사해 평등주의**

만민[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

☞ **천지도수**

천지(天地)의 운행 법칙을 나타내는 증산교의 용어

개념 체크

- 1 동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을/를 강조하였다.
- 2 증산교는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닦았다.
- 3 원불교에서는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뜻의 ()을/를 주장하였다.

정답

- 1 시천주
- 2 도가
- 3 영육쌍전

자료 플러스 신흥 민족 종교 사상

- 내가 동(東)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인즉 동학(東學)이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西)를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이르겠는가? - “동경대전” -
- 내가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써 후천(後天)의 선경(仙境)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 “대순전경” -
- 우리는 일원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三學)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그 진리를 얻어 영육(靈肉)을 쌍전(雙全)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 “정전” -

“동경대전”은 동학의 대표적 경전이다. 동학은 보국안민과 포덕천하(布德天下, 덕을 세상에 펼침)의 기치 아래 반외세·반봉건적 이념을 강조하였다. “대순전경”은 증산교의 기본 경전이다. 증산교에서는 원한을 풀고[解冤(해원)],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뜯어고칠 것을 강조하였다. “정전”은 원불교의 기본 경전이다. 원불교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다.

◉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

- “지인(至人)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신인(神人)은 인위적으로 공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며, 성인(聖人)은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다.”
- “진인(真人)은 삶을 즐김다 하지 않고 죽음을 싫다 하지도 않는다.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 “장자” -

개념 체크

- 1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은/는 인의(仁義)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2 대승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은/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다.
- 3 도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인 ()은/는 겸허한 자세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만물을 평등하게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정답

- 1 군자
- 2 보살
- 3 지인(지인, 신인, 천인, 성인)

㉞ 동양의 이상적 인간상과 시민: 유·불·도 사상에서 추구한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의

1.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의

- (1) **군자의 특징:** 인의(仁義)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인격 완성을 위해 도덕적 수양에 힘쓰고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
- (2) **군자의 현대적 의의:** 사랑의 정신과 정의감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군자의 태도는 현대 사회의 시민도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음

2.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의

- (1) **보살의 특징:**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上求菩提(상구보리)] 아래로는 중생 구제에 힘쓰[下化衆生(하화중생)] → 남과 더불어 깨달음을 얻고자 함
- (2) **보살의 현대적 의의:** 모든 사람과 생명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보살의 모습은 현대의 시민에게 이웃 사랑 및 생명 존중과 관련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음

3. 도가의 이상적 인간상과 그 의의

- (1) **지인(지인, 신인, 천인, 성인)의 특징:** 자연의 도를 따름 → 겸허한 자세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만물을 평등하게 보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림
- (2) **지인의 현대적 의의:**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만물을 차별하지 않는 지인의 태도는 현대의 시민에게 자연 및 다양성 존중과 관련된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음

㉞ 한국과 동양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1. 한국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1) 한국 사상의 연원과 특징

- ① 한국 사상의 연원: 건국 신화와 무속 신앙
 - 건국 신화: 고조선의 단군 신화,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박혁거세 신화 등
 - 무속 신앙: 주술사인 무(巫, 샤먼)를 통해 앞날을 예언하고, 복을 빌고, 병을 물리치며,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냄 →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을 빌면서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 내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는 역할을 함

(2) 한국 사상의 특징

인본주의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웅이 인간 세상을 동경하고[貪求人世(탐구인세)],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를 원함[願化爲人(원화위인)] •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
현세 지향적 가치관과 평화 애호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정의와 도덕 중시: 환웅이 인간의 질병, 형벌과 선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세상을 다스림 • 굿을 통해 풍성한 수확과 공동체의 안녕 기원 • 건국 신화 속의 신과 인간, 동물들의 평화로운 공존
화합과 조화의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웅과 웅녀의 만남과 단군의 탄생: 천(天)·지(地)·인(人)의 화합과 조화 • 원효의 화쟁(和靜) 사상, 의천과 지눌의 교선(敎禪) 일치 사상 • 근대 신흥 종교들의 유·불·도 조화 추구
자연 친화와 생명 존중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늘에 대한 공경(敬天(경천))과 자연과 합일하려는 의식 • 신화 속 동물들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

자료 플러스 단군 신화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

옛날, 하느님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弘益人間(홍익인간)] 할 만한 곳으로 여겨졌다.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며 세상에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비롯한 삼천 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神市)라고 일컬었다. 그는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다. 그때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환웅은 썩과 마늘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시키는 대로 하여 삼칠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 여인[熊女(웅녀)]이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기원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단군왕검이다. - “삼국유사” -

단군 신화는 크게 세 부분, 즉 하늘[天], 땅[地], 인간[人]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하늘에 살던 환웅도 인간 세상을 탐하고, 땅에 살던 곰도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단군 신화의 인본주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늘, 땅, 인간이 모두 등장하면서도 서로 같등하지 않는다거나, 천신인 환웅과 땅의 웅녀가 결합하여 단군이 태어난다는 내용을 통해 조화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단군 신화에는 경천(敬天)사상과 평화 애호 사상, 현세 중심적 세계관, 홍익인간의 이념 등이 담겨 있다.

(2) 한국 사상의 현대적 의의

- ① 물질 만능주의 극복과 인간 존중 실현의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②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 극복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③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2. 동양 사상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1) 동양 사상의 연원과 특징

- ① 동양 사상의 연원: 제자백가 사상과 초기 불교 사상
 - 제자백가: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공자, 노자, 묵자, 한비자 등의 사상가들과 그들이 일으킨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등의 사상들 → 특히 유가와 도가가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끼침
 - 초기 불교: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 사상 → 연기설에 기반을 둔 자비의 윤리를 강조함
- ② 동양 사상의 특징

유기체적 세계관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합된 전체로 여김
공존과 공생의 추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을 강조함
도덕적 수양 중시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각 개인이 도덕적 수양에 힘쓸 것을 강조함

(2) 동양 사상의 현대적 의의

- ①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② 현대 생태계 문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 ③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실현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음

개념 체크

- ① 하늘, 땅, 인간이 모두 등장하면서도 서로 같등하지 않는다거나, 천신인 환웅과 땅의 웅녀가 결합하여 단군이 태어난다는 단군 신화의 내용에서 ()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 ② 동양 사상은 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여기는 ()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정답

- ① 조화
- ② 유기체

[23014-0081]

01 가상 대화의 ‘스승’은 근대 한국 사상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맺힌 원한을 상생의 원리에 따라 풀어 주어야 한다네.
- ② 정신보다 물질적 삶의 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네.
- ③ 현세의 행복보다는 내세의 복락(福樂)을 기다려야 하네.
- ④ 무속을 배제하고 서양의 근대 문물로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네.
- ⑤ 성리학적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모든 이단을 배척해야 하네.

[23014-0082]

02 다음 근대 한국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동쪽 나라 조선에서 태어나 동쪽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하늘의 도라 할 수 있지만 학문으로 말하면 서학과 이름을 달리해야 한다. 더욱이 땅은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 있으니 어찌 서쪽을 동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쪽을 서쪽이라 할 수 있겠는가.

보기

- ㄱ. 욕심에서 벗어나 하늘을 공경(敬天)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으로 깨달음을 생활화해야 한다.
- ㄷ. 절의(節義)를 지키며 서양의 종교적 가르침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 ㄹ. 모든 사람을 하느님을 대하듯이 평등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83]

0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오륜(五倫)의 행실을 독실하게 지켜서 사람 된 도리를 안다면 이는 행실이 개화된 것이며, 국민이 학문을 연구하여 만물의 이치를 밝힌다면 이는 학문이 개화된 것이다. 나라의 정치를 바르고도 크게 하여 국민에게 태평한 즐거움이 있으면 이는 정치가 개화된 것이며, 법률을 공정히 하여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으면 법률이 개화된 것이다. 기계 다루는 제도를 편리하게 하여 국민이 사용하기 편리하면 기계가 개화된 것이며, 물품을 정밀하게 만들어 국민의 후생에 이바지하고 거칠거나 조잡함이 없으면 물품이 개화된 것이니, 이 여러 가지의 개화를 합한 뒤에야 개화를 다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 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가?
- ② 부국강병을 추구한다면 유교적 가치는 정립될 수 없는가?
- ③ 주체적인 과학 기술의 수용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가?
- ④ 유·불·도 사상을 조화롭게 하여 학문을 개화시켜야 하는가?
- ⑤ 사회 제도에 한하여 사회를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하는가?

[23014-0084]

04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 사람이 어찌 이를 알리오.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르니 귀신이라는 것도 아니라. 너는 무궁한 도에 이르렀으니 닦고 단련하고, 글을 지어 사람을 가르치고, 법을 바르게 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 (나) 수신제가(修身齊家)하여 나라가 바로잡히면 서양 물건은 쓸모없게 되어 교역할 일도 없어진다. 교역할 일이 없으면 그들의 기괴하고 음탕하며 교묘한 물건은 구매되지 않게 된다.

- ① (가)는 나라를 도와(輔國) 외세에 저항할 것을 주장한다.
- ② (나)는 유교적 가치로서 민족 주체성을 지키고자 한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인본주의적 평등사상을 주장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서학(西學)의 수용에 적극 반대한다.
- ⑤ (가)와 (나)는 성(誠), 경(敬), 신(信)의 수양을 강조한다.

[23014-0085]

05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단이 나에게 있는 것은 양지(良知)인 것이니, 사람마다 모두 지녔어도 대부분이 능히 살피지 못하다가, 이것을 알게 됨에 이르러서는 모두 크게 확장하여 이를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치지(致知)인 것이니 불이 타고르고 샘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확충하여 불길이 치솟아 넘쳐 흘러서 들판을 태우고 바다에 뿔치게 된다면 그 체(體)는 다 충만해져야 인(仁)의 도가 이루어질 것이니, 사해(四海)가 비록 멀다 하더라도 모두가 나의 도량 안[度內]에 있는 것인데 무엇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 보기
- ㄱ. 생생한 이치[生理]는 사람의 마음 밖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ㄴ. 양지(良知)를 발휘하여 주체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행해야 한다.
 - ㄷ. 수양으로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도덕 판단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 ㄹ. 인(仁)의 실천과 양지는 다르지 않지만, 앎과 행함의 순서는 구분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86]

06 다음을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제물 제성의 심인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 유무(大小有無)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言語名相)이 돈공(頓空)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空寂靈知)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에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十方三界]가 장중(掌中)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 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無始曠劫)에 은현 자재(隱顯自在)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 ① 욕구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타고난 기호를 실현해야 한다.
- ②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금수의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 ③ 인의의 가치를 근간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④ 유교적 질서를 따르는 법과 사회 질서를 혁파해야 한다.
- ⑤ 생활 속에서 영육(靈肉)을 조화시키며 깨달음을 실천해야 한다.

[23014-0087]

07 갑, 을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늘 백성으로 하여금 앎이 없게 하고 욕심이 없게 한다. 대저 지혜롭다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한다고 하지 못하게 한다. 함이 없음을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을: 인하지 아니한 사람은 곤궁한 데 오래도록 견디지 못하며, 안락한 데 오래도록 살지 못할 것이다. 인한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 ① 육친(六親)이 화목할 수 있도록 효도를 강조해야 하는가?
- ② 자신의 직분에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행동해야 하는가?
- ③ 누구나 덕을 수양하면 이상적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가?
- ④ 백성의 삶을 위해 상벌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가?
- ⑤ 부쟁의 삶을 위해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지 말아야 하는가?

[23014-0088]

08 다음 한국 사상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옛날, 하느님인 환인(桓因)의 아들 환웅(桓雄)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으로 여겨졌다. ... (중략) ...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인간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시키는 대로 하여 삼칠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 여인(熊女(웅녀))이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기원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단군 왕검이다.

설명	학생				
	갑	을	병	정	무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으로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다.	√			√	√
세상을 넓게 지배하기 위한 적극적 투쟁을 강조한다.		√	√	√	
형벌과 선악의 문제를 다룰 사회 정의와 도덕을 중시한다.	√	√			√
인간 중심주의를 배격하고 신성한 종교의 가치를 추구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089]

1 다음을 주장한 근대 한국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글을 읽고서 실용을 모르는 것은 학문 연구가 아니다. 만약 고상하게 성명(性命)이나 이야기 하고 끝까지 이기(理氣)나 논변하여 각기 자기 견해만 옳다고 한다면 이는 학문 연구의 해독(害毒)이다.
- 이용(利用)을 이룬 뒤라야 후생(厚生)을 할 수 있고 후생을 이룬 뒤라야 덕이 바르게 된다. 기물(器物)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지 않고서 그 생활을 운택하게 하는 것은 드물 것이니, 생활이 이미 운택하지 못하다면 어찌 덕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① 백성을 위한 통치와 공부는 사실에 입각한 연구에 기반해야 한다.
- ② 욕구를 자극하는 실용적인 탐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③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한 진실된 생생한 이치를 자각해야 한다.
- ④ 군자는 절의(節義)를 가지고 백성이 욕구를 멀리하도록 해야 한다.
- ⑤ 통치자는 백성의 후생(厚生)보다 자신의 덕 함양에 집중해야 한다.

[23014-0090]

2 다음 근대 한국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기구를 제조할 때 조금이라도 서양 것을 본뜨는 것[效西法]만 보면 대뜸 사교(邪教)에 물들었다고 지목하는데, 이 또한 이해하지 못함이 심하다. 종교를 배척하되 기구를 본받는 것[斥其教而效其器], 이는 본디 서로 부딪히지 않고 병행할 수 있는 일이다.
- 부질없이 옛것[古]만이 옳고 오늘의 것[今]은 그르다고 여기지 마라. 오늘날을 알지 못하고 어찌 옛것을 알겠는가? 대번에 자기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여기지 마라. 백대 후에 자연히 공론(公論)이 있을 것이다.

- 【 보기 】
- ㄱ. 서양의 기술 문명과 서양의 종교적 가치를 분리할 수 없는가?
 - ㄴ. 서양의 기술 문명인 기(器)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 ㄷ. 동양의 전통적 정신과 도덕 가치인 도(道)를 지켜야만 하는가?
 - ㄹ. 열강의 침략에 맞서되 남녀, 노소, 신분의 차별을 없애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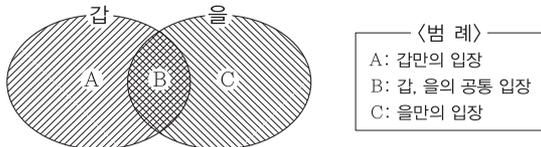
[3~4]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개개의 사물에 따라 하나하나 결정하고 그때그때에 따라 사물을 처리하는 것은 실로 오직 나의 한마음에 있는 것이다. 어찌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할 만한 이치란 것이 있겠는가? 만약 발같이 하고 달릴 수 있는 이치가 소와 말에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가서 이치를 구하려 한다면 실로 망연하기 끝이 없으니 이야말로 외물(外物)을 따라다니는 병통에 걸리는 것이다.

을: '사람이 말을 타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사람'은 '본성'에 해당하고, '말'은 '기질'에 해당한다. 대문을 나설 때,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나서기도 하고, 사람이 말의 발을 밟고서 나서기도 하는데,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나선 경우'는 '사람'에 속하니 바로 '도심(道心)'이요, '사람이 말의 발을 밟고서 나선 경우'는 '말'에 속하니 바로 '인심(人心)'이다.

[23014-0091]

3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A: 학문의 목적은 인의(仁義)를 실천함으로써 완성된다.
 ㄴ. A: 타고난 양지(良知)만으로도 사덕(四德)을 능히 실현할 수 있다.
 ㄷ. B: 사람은 본래 천리(天理)로서의 도덕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
 ㄹ. C: 앎[知]과 행함[行]은 선후와 경중이 있지만 서로 의지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092]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늘이 '영지(靈知)'를 부여함에 '재(才)'도 있고 '세(勢)'도 있고 '성(性)'도 있다. '재'란 것은 능력(能力)이요, 권형(權衡)이다. 기린은 선(善)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공이 되지 않고, 승냥이는 악(惡)한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그 '재'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지만, 그 능력은 '자신이 노력하는 여부[自力]'에 달려 있고 권형은 '자신이 주재하는 여부[自主]'에 달려 있기 때문에, 착하면 그를 칭찬하고 악하면 그를 꾸짖는다. 그것으로 성을 말하면 잘못이다.

- ① 갑에게: 사욕을 제거하여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갑에게: 마음속에서 생생한 이치[生理]가 존재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에게: 사덕(四德)은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을에게: 사물로부터 이치를 탐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⑤ 갑과 을에게: 덕(德)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23014-0095]

7 다음을 주장한 한국 근대 사상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영육쌍전(靈肉雙全), 이사병행(理事並行)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정하였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다만 삼교(三敎)의 중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법이 다 한마음에 돌아와서 능히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ㄱ 보기

- ㄱ. 일원상(一圓相)의 관점에서 천지의 운영을 이해해야 한다.
- ㄴ.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 ㄷ. 본성인 기호(嗜好)를 주체적으로 발휘하여 사덕을 형성해야 한다.
- ㄹ. 마음의 본체인 양지(良知)를 보존하여 앎과 행함을 일치시켜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3014-0096]

8 동양 윤리 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가) 간절하고 진지하게 선을 권하고 또한 서로 함께 사이 좋게 즐긴다면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붕우(朋友)에게는 간절하고 진지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와는 서로 함께 사이 좋게 즐겨야 한다.
- (나)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고 도를 얻은 이를 받들며 하늘과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최고의 길상(吉祥)이 된다. 또한 항상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내는 마음을 떠나고자 하여 능히 진실한 도를 따라야 한다.

ㄱ 보기

- ㄱ. (가)는 인위적 가치 기준으로 하늘의 뜻을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ㄴ. (나)는 세계를 분리된 부분의 집합이 아니라 통합된 유기체와 같다고 본다.
- ㄷ. (가)는 (나)와 달리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다.
- ㄹ. (가)와 (나)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도덕적 수양에 힘쓸 것을 주장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III

서양 윤리 사상

EBS 교재 연계 사례

학습 요소

-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
- 영혼의 정의와 탁월성
-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 사랑의 윤리와 자연법 윤리
- 이성 중심 윤리와 감정 중심 윤리
- 칸트주의와 공리주의
-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 이 단원에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양 윤리 사상을 탐구함으로써 각 윤리 사상이 우리의 도덕적 삶에 이바지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12번

12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선(善) 자체는 인식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그 힘을 제공한다. 통치자는 선 자체를 본보기로 삼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을: 모든 선에 공통되는 하나의 선 자체란 있을 수 없다. 건축가가 선 자체를 안다고 자신의 기술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 선이 중요하다.

- ① 갑: 선 자체는 인식의 원인이므로 인식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② 갑: 이성이 파악하는 대상과 감각이 파악하는 대상은 동일하다.
- ③ 을: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
- ④ 을: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하게 만드는 근거는 선 자체이다.
- ⑤ 갑과 을: 선 자체는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

답 ③



- 07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과 덕 있는 삶
- 08 행복 추구와 신앙
- 09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 이성과 감정
- 10 옳고 그름의 기준: 의무와 결과
- 11 현대의 윤리적 삶: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87쪽 3번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우리는 많은 것을 '각각의 것은 좋다.'라고 말하거나 '각각의 것에 좋은 것 자체가 있다.'라고 말한다. 또한 각각에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한 이데아에 따라 각각이 실재하는 것이라 일컫는다. 각각은 눈에 보이지만 지성에 의해서 알게 되지 않고, 이데아는 지성에 의해서 알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식되는 것들이 본질을 갖게 되는 것은 ' 좋음[善] '에 의해서이다. ' 좋음 '은 단순한 ' 존재 '가 아니라, 지위와 힘에서 ' 존재 '를 초월해 있다.

을: ' 좋음 '이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의 이데아를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학문도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 좋음 '에 대해서도 하나의 학문이 존재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범주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학문이 관계한다. ' 인간 자체 '에 있어서나 ' 인간 '에 있어서도 하나의 같은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 인간 자체 '나 ' 인간 ' 모두 인간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 ① 갑은 선의 이데아가 모든 학문이 지향하는 최고 대상이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오직 이성을 통해 영원불변의 참된 지식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좋음 자체가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모든 개별자는 고유한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영혼 중에서 이성이 아닌 부분이 이성의 지시를 따를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본다.

답 ③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2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87쪽 3번 문항의 문항 주제와 제시문 및 일부 선택지를 활용하여 출제되었다. 수능 문항과 수능특강 문항 모두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인식론 비교 이해 능력 평가 '를 출제 의도로 삼고 있으며, 수능 문항은 수능특강 문항의 제시문과 선택지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과 인식론 ', 특히 ' 좋음 자체 '로 대표되는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의 존재 여부 및 이에 대한 인식은 매번 출제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 만큼, 두 사상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EBS 연계 교재에는 이와 관련된 원전 자료와 문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자료들과 문항 제시문 및 선택지들을 꼼꼼히 읽고 각각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 헤브라이즘

고대 유대 민족의 유대교로부터 이후 전개된 그리스도교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과 문화 및 전통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소피스트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던 기원전 5세기경 말과 글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기술인 수사학 등을 가르쳤던 직업적 교사들

개념 체크

- 1 고대 아테네에서 말과 글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기술인 수사학 등을 가르쳤던 직업적 교사들을 ()이라고 불렀다.
- 2 소피스트인 ()은/는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절대적 존재와 진리, 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하였다.
- 3 트라시마코스는 ()은/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며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1 소피스트
- 2 고르기아스
- 3 정의

☉ 서양 윤리 사상의 연원

1.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헤브라이즘

(1) 고대 그리스 사상의 특징과 영향

① 인간 중심의 윤리 사상

- 자연 철학자들의 등장 →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탐구하고 설명하고자 함
-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발달 → 인간의 삶과 사회에서 선(善)과 옳음에 관한 관심과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남
-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는 자연에서 인간으로 학문적 관심을 옮기고, 윤리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

② 인간의 이성, 선한 삶, 행복 등의 탐구에 영향을 줌

(2) 헤브라이즘의 특징과 영향

① 신과 신앙 중심의 윤리 사상

- 유일무이한 신의 은총과 신앙 강조 → 인간의 힘만으로는 구원과 행복에 이를 수 없다고 봄
- 이웃 사랑과 정의 실현 등 보편적인 윤리가 신의 명령으로서 강조됨

② 신과 인간의 관계에 기초한 인간 삶의 원리 탐구에 영향을 줌

2. 소피스트와 윤리적 상대주의

(1) 소피스트의 사상

① 특징

- 윤리적 상대주의: 보편타당한 윤리의 존재를 부정함
-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봄
-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변론술(수사술) 등을 가르침

② 대표적인 사상가

- 프로타고라스: 각 개인을 진위 판단의 기준으로 봄 →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 고르기아스: 회의주의적 관점에서 절대적 존재와 진리, 그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부정함
- 트라시마코스: 강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함 →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봄

자료 플러스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

-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 프로타고라스 -
-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없다. - 고르기아스 -
- 각각의 정체(政體)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고 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피치자에게 정의롭다고 선언하고, 법을 어긴 자를 처벌한다. 그러므로 수립된 정체의 이익이 곧 정의이다. - 트라시마코스 -

소피스트는 다양한 도덕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도덕규범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혹은 더 우월한지를 가려 줄 보편타당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윤리적 상대주의의 의의와 한계

- ① 의의: 서로 다른 사회의 상이한 도덕규범을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데 도움을 줌
- ② 한계: 비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윤리적 타락과 혼란, 윤리적 회의주의를 초래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이 의미한 바는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각자에게 나타난 것이 또한 그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같은 것이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나쁜 동시에 좋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든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

프로타고라스처럼 도덕 판단의 기준을 상대적인 것으로 볼 경우 보편적인 도덕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하기 어려워지며 같은 도덕 문제에 대해 어떤 사람은 옳다고, 어떤 사람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맥락에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비판하였다.

3. 소크라테스와 윤리적 보편주의

(1) 소크라테스의 사상

윤리적 보편주의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음
주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된 앎이 곧 덕임 → 유덕하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덕이 무엇인지 알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음 •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한 무지의 자각을 강조함 •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너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함
지행합일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은 본성상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지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음 •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임
지덕복 합일설	참된 앎이 곧 덕이며, 유덕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됨 → 앎과 덕과 행복은 하나로 합치됨
대화법(문답법) 강조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도록 하는 방법 → '산파술'이라고도 함
영혼의 돌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는 것임 •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함

자료 플러스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

-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어야 하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네. - 플라톤, "메논" -
-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입니다. 내가 대다수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나는 아테네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 플라톤, "변명" -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악행의 원인으로 보았다. 그는 참된 앎을 추구할 것과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덕

고대 그리스에서 '탁월함', '훌륭함'을 의미함

☛ 산파술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법, 즉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産婆)처럼, 상대방과 묻고 답하는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지혜를 얻도록 돕는 방법을 의미함

개념 체크

- 1 소크라테스는 참된 () 이/가 곧 덕이며 유덕한 사람은 () 한 삶을 살게 된다고 보았다.
- 2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통해 참된 앎에 이르기 위한 () 의 자각을 강조하였다.
- 3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 을/를 돌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하였다.

정답

- 1 앎, 행복
- 2 무지
- 3 영혼

☉ 이데아계와 현상계 비교

이데아계	현상계
원형(原形)	모형(模形)
실재	그림자
완전함	불완전함
불변적	가변적

개념 체크

-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의 이데아이다.
-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이성, 기개, 욕구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에는 (), (), ()의 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플라톤에 따르면 영혼의 ()이란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정답

- 선(좋은)
- 지혜, 용기, 절제
- 정의

(2) 윤리적 보편주의의 의의와 한계

- 의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
- 한계: 특정한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울 경우, 자율적 삶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덕 있는 삶

1. 플라톤과 영혼의 행복, 그리고 정의

(1) 이데아론

- 세계는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됨 → ‘동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함
- 이데아계는 완전한 세계이며 오직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계를 모방한 불완전한 세계이며 감각적 경험으로 파악됨
- 이데아(Idea)란 사물의 완전하고 이상적인 원형임
- 이데아 중에서 최고의 이데아는 선(좋은)의 이데아임
-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은 이상적인 삶을 위해 필요함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이데아론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묶인 채로 살아가는 죄수들을 상상해 보게. 이들은 이곳에서 앞만 볼 수 있고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이들의 뒤쪽에서는 불이 타고 있고 있네. 또한 이 불과 사람들 사이에는 담이 세워져 있고 담 위로 사람들과 여러 동물상이 지나가면,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 외에는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되네. 이처럼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림자가 비치게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죄수들은 벽면의 그림자가 진정한 사람이나 동물이라고 믿을 걸세. …(중략)…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 사람은 동굴 밖에는 실제 사람들과 사물들이 있으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그것들을 본떠서 만든 인형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그리고 모든 것의 원인이 태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걸세.

- 플라톤, “국가” -

플라톤은 이데아를 지향하는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보았다. 그는 현상계로부터 이데아계로 눈길을 돌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이를 동굴의 비유로 설명하였는데, 비유에서 동굴 속은 현상계이고, 동굴 바깥은 이데아계를 가리킨다. 동굴 속의 죄수들은 그림자를 참된 존재로 믿으며 사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며, 동굴 바깥의 사물들은 여러 가지 이데아들이고, 태양은 선의 이데아를 상징한다. 또한, 동굴 바깥으로 나가 실제 사물들과 태양을 본 사람은 철학자를 상징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선의 이데아는 인식되는 것들의 인식됨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이다.

(2) 영혼론과 덕론

- 영혼은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성은 배우고 헤아리는 부분, 기개는 걱정을 느끼는 부분, 욕구는 육체적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탐하는 부분임
- 영혼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덕은 지혜, 용기, 절제임
 - 지혜란 각 부분뿐만 아니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아는 덕임
 - 용기란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덕임
 - 절제는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 사이에 반목하지 않는 덕임 →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임
- 영혼의 정의(正義)란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의 덕을 갖추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임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영혼론과 덕론

정의로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각각의 것이 다른 부분의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영혼의 부분들 - 이성, 기개, 욕구 - 이 서로에 관해 참견하지 않도록 하며, 진정으로 자기에게 고유한 일들을 잘 정하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고 질서 지우며 자신과 친구가 된다네. 또 영혼의 세 부분을 저음과 중간을 그리고 고음과 같이 화음을 이루는 절대적인 세 음처럼 조화시키고, 혹여 이들 사이에서 어떤 다른 것이 생겨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연결해서 여럿에서 하나가 되도록 절제 있고 조화된 상태로 만든다. 그가 재물의 획득이나 몸을 돌보는 일이나 정치 및 개인적인 계약과 관련된 어떤 것을 행한다면, 저런 상태로 만들고 나서야 그는 행동하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태를 보존시키고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들을 정의롭고 훌륭한 행동이라고, 또 이러한 행동을 담당하는 지식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네. 반면 이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을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또 이런 행동을 담당하는 의견을 무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네. - 플라톤, "국가" -

플라톤은 영혼에서 이성이 지혜의 덕으로 기개와 욕구를 다스리고,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3) 이상 국가론

- ① 영혼이 이성, 기개, 욕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듯이 국가도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계층으로 구성됨
- ② 이상 국가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임
- ③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지혜의 덕을 갖추고 인격과 실무적 경험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지 않는 한, 악은 사라지지 않음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

- 모든 것에 빛을 제공하는 것을 수호자들 중 가장 훌륭한 자들이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야 하네. 그리하여 '좋은 자체'를 일단 보게 되면, 이들은 그것을 본(本)으로 삼아서 나라와 개개인들 그리고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게 되네....(중략)...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 생각하는 한편,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들고 증대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질서 잡히게 할 때만이 올바름[正義]이 가능하네.
- 정의는 각자가 자기의 성향에 맞는 일 한 가지에 종사하며 타인에게 참견하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해야 지혜, 용기, 절제가 국가 안에 생기고 이것들이 잘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 정의는 곧 제 것을 소유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네. 만약 성향상 장인이거나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격도 없으면서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 해서 사람들이 서로 도구나 직분을 교환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네. - 플라톤, "국가" -

플라톤은 국가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으며, 국가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이루는 세 부분, 즉 세 계층이 조화를 이룰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플라톤은 오랜 교육을 통해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해야 이상 국가인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상 국가의 수호자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로, 통치자와 방위자를 아울러 일컫는 말. 수호자들 가운데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50세 이상이면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으며, 어떠한 덕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함

개념 체크

- ① 플라톤은 ()을/를 인간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보았으며, ()의 정의도 영혼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②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는 (), (), ()의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
- ③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여 ()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지 않는 한,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답

- ① 국가, 국가
- ②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 ③ 지혜

2. 아리스토텔레스와 탁월성, 그리고 행복

(1) 현실주의

- ①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비판함 → 이 세상을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로 봄
- ② 좋음[善]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하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함

자료 플러스 이데아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인간’에 있어서나 하나의 같은 설명, 즉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무엇 자체’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좋은 자체’나 ‘좋은’ 역시 좋은인 한에서 아무 차이가 없을 것이다.
 - 좋음은 존재가 이야기되는 방식만큼이나 많은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좋음은 신과 지성이 좋다고 이야기될 때처럼 무엇임에서 좋다고 이야기되기도 하고, 탁월성이 좋다고 이야기될 때처럼 성질에 있어서 이야기되기도 하며, 적당량이 좋다고 할 때처럼 양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 유용하다고 할 때처럼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를 이야기할 때처럼 시간에 있어서, 적절한 거처를 이야기할 때처럼 장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그렇기에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의 ‘좋은’ 혹은 ‘좋은 것’이라고 말해지는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공통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어떤 단일한 좋음’ 혹은 ‘그 자체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어떤 좋음’은 없다고 보았다. 그는 ‘좋은 자체’, 즉 좋은의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 최고선

인간 행위의 최고 목적과 이상이 되며 행위의 근본 기준이 되는 선

◎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오늘날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로, ‘잘 살고 잘 행동하는 것’을 모두 포함함

개념 체크

- 1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 즉 최고선을 ()으로 보았다.
-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정답

- 1 현실
- 2 행복
- 3 덕

(2) 행복론

- ① 인간의 모든 행위는 선(善, the good)을 목적으로 추구함
- ②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最高善)은 행복임
- ③ 행복(eudaimonia)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임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여러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행복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지성이 최고이며,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삶의 대상들 중 최고이므로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곧 관조적 활동이다. 관조적 활동으로부터는 관조한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으므로 관조적 활동은 그 자체로서 사랑받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인간의 행위도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정신)의 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덕은 신이나 자연과 같이 고귀한 대상들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활동의 덕(철학적 지혜)이라고 주장하였다.

(3) 덕론

- ① 덕: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
- ② 덕의 두 가지 유형

유형	지성적 덕(지적 덕)	품성적 덕(도덕적 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임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짐 좋음에 대한 숙고와 진리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혼의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임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형성됨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게 함
예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	용기, 절제, 온화 등

③ 중용

-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 →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임
-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행동(예 질투, 절도)에는 중용이 없음
- 실천적 지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품성적 덕을 갖출 수 있음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

•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 덕이며, 다른 하나는 품성적 덕이다. 지성적 덕은 그 기원과 성장을 주로 교육에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품성적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겨난다. 품성적 덕은 어떤 것도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것이라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므로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품성적 덕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한다.

•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동에 관계하고, 이 감정과 행동 속에 과도와 부족 및 중용이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대담함, 분노나 연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일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잘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이것들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이성적인 부분에서 발휘되는 탁월함을 지성적 덕으로, 비이성적인 부분에서 발휘되는 탁월함을 품성적 덕으로 보았다. 지성적 덕에는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등이 있고, 품성적 덕에는 용기, 절제, 온화 등이 있다.

(4)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 현대 덕 윤리

- ① 현대 덕 윤리의 특징: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중시하고 공동체를 인간 본성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계승 →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전개하고 공동체적 삶을 중시함
- ②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 공동체가 공유하는 덕은 개인의 행동을 지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자 공동선을 위한 토대임
 -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함 → 개인의 행위를 공동체의 구체적 맥락에서 평가함(공동체주의)

※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 달리 얌이 반드시 덕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임

개념 체크

- 1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 이/가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 2 아리스토텔레스는 () 적 덕은 교육을 통해 얻어지고 길러지며, () 적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 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정답

- 1 이성
- 2 지성, 품성
- 3 실천적 지혜

[23014-0097]

0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은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자네의 질문에 답하고자 하네. 국가에는 서로 다른 세 부류의 계층이 존재하는데 이 세 부류의 계층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지혜와 용기, 절제의 덕을 발휘할 때 그러한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다네. 그리고 철학자들이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혹은 통치자들이 철학을 공부해 국가를 다스리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지지 않는 한, 국가에 있어 아니 인류에게도 고통의 종식은 없다네. …(후략).

- ①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② 철인왕은 참된 실재에 대한 지혜를 갖추고 있는가?
- ③ 철인왕은 타고난 성향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가?
- ④ 철인왕은 이성으로 기개와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가?
- ⑤ 철인왕은 생산자 계층 중 가장 뛰어난 자를 일컫는가?

[23014-0098]

0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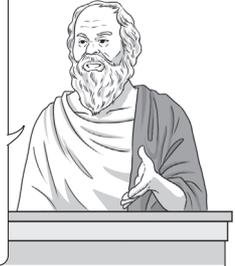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며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며, 이와 반대로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되며, 이와 반대로 즐거움이라면 전부 회피하는 사람은 일종의 목석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 ① 중용은 어떤 감정과 행동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중용의 실천은 삶의 궁극적 목적 실현에 기여한다.
- ③ 중용은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태를 뜻한다.
- ④ 중용의 실천을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를 갖춰야 한다.
- ⑤ 중용에 대한 참된 앎만으로 품성적 덕을 얻을 수 있다.

[23014-0099]

03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테네인 여러분. 이 도시는 가장 위대하며, 지혜롭고 강력하기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명성은 되도록 많이 획득하려고 하면서도 지혜와 진리와 당신의 영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데는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 누구든지 자신의 몸과 재산이 아니라 영혼이 최선의 상태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보기

- ㄱ. 무지가 원인이 아닌 악행이 존재할 수 있다.
- ㄴ. 좋음에 대한 참된 앎을 갖추는 것이 곧 행복이다.
- ㄷ. 무지의 자각을 통해 진리의 상대성을 인식해야 한다.
- ㄹ. 보편적으로 타당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00]

04 표는 어느 고대 서양 사상가에 대한 학생의 질문 응답이다.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번호	질문	응답	
		예	아니요
(1)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가?	√	
(2)	품성적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들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획득되는가?	√	
(3)	(가)	√	
(4)	(나)		√

보기

- ㄱ. (가): 모든 악행의 원인은 의지의 나약함인가?
- ㄴ. (가): 품성적 덕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성적 덕이 필요한가?
- ㄷ. (나): 최고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덕은 실천적 지혜인가?
- ㄹ. (나): 최고선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5~06]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인식되는 것들에 진리를 제공하고 인식하는 자에게 인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선의 이데아'이다. 선의 이데아는 인식과 진리의 원인이지만 인식과 진리와는 다르며 그보다 한결 더 훌륭한 것이다.
 을: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의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23014-0101]

05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 참된 세계는 오직 이성을 통해 인식 가능하다.
 ㄴ. 갑: 현실 세계의 정의로운 사람이 곧 정의의 원형이다.
 ㄷ. 을: 진리 판단의 기준은 보편성을 띠고 있지 않다.
 ㄹ. 갑과 을: 인간이 아닌 자연을 진리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102]

0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와 갑이 모두 긍정의 대담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를 덕으로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북극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른 모든 별들이 함께 그를 떠받드는 것과 같다.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를 어기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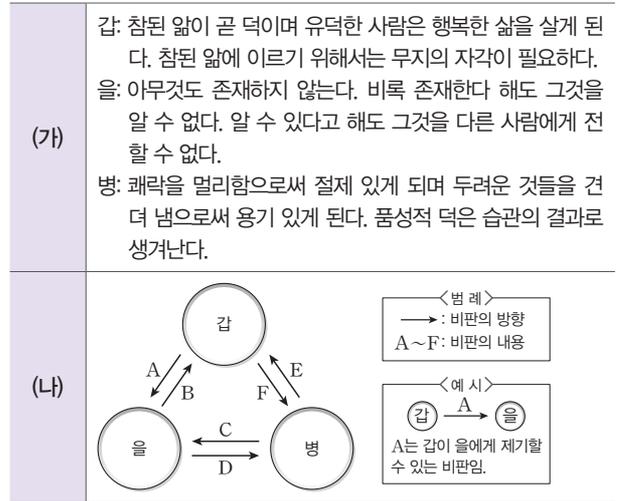
보기

ㄱ. 통치자의 덕은 이상 사회 실현의 필수 요소인가?
 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은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비롯되는가?
 ㄷ. 계층 간 역할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는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가?
 ㄹ.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03]

07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이성을 바탕으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B, D: 진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③ C: 보편타당한 선악 판단의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④ E: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선의 본질을 현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간과한다.

[23014-0104]

08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상 국가의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고난 ㉠ 장인이나 사업가가 부나 대중의 지지나 체력 따위에 우쭐해져서 ㉡ 전사 계층에 진입하려 든다거나, 아니면 전사 중 한 명이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 결정권을 가진 수호자 계층에 진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바꾸거나 또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 든다면, 이러한 교환과 참견은 나라에 파멸을 안겨다 줄 것이다.

- ① ㉠은 이상 국가에서 아무런 덕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② ㉡은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③ ㉢은 민주주의를 통치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④ ㉣은 ㉠과 달리 공동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
 ⑤ ㉤은 ㉡과 달리 영혼의 각 부분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덕을 지닌다.

[23014-0105]

1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동굴의 감옥으로, 감옥의 불빛은 태양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나와 지상에 올라가 바라본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성적 영역으로 옮겨 갔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의 원인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인식의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합니다.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음 자체'나 '좋은' 역시 좋음인 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또 좋음 자체가 영원하다는 이유로 더 좋은 것일 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얀 것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만 하얀 것보다 더 하얀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좋음이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갑



을

- ① 갑은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좋음 자체는 초월적 세계에 존재하고, 좋음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영혼의 비이성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영혼의 욕구 부분에 관련된 덕은 행복 실현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좋음의 이데아에 대한 인식은 행복한 삶과는 무관하지만 필요하다고 본다.

[23014-0106]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인간에게 사실은 최대의 축복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무지야말로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
- 만약 덕이 영혼의 자질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덕은 지혜여야 한다. 영혼의 모든 자질은 그 자체로는 유익한 것도 유해한 것도 아니며, 지혜나 어리석음과 결합할 때 유익하거나 해롭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덕은 지혜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봐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그 순간 행복한 삶이 완성된다.	✓	✓		✓	
행복한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이며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하다.	✓		✓		✓
절제는 지식의 결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이로운 것이다.		✓		✓	✓
덕을 갖춘 사람이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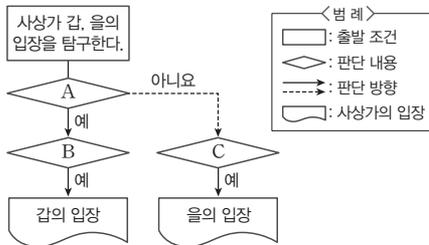
[3~4]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정의란 강자의 이익을 뜻한다. 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법률을 만들 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률을 제정한다. 참주 체제에서는 참주를 중심으로, 귀족 체제에서는 귀족을 중심으로 법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정의에 어긋난 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정의란 통치자의 이익이며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이들에게는 해가 될 뿐이다.

을: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언제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이익을 돌본다. 훌륭한 사람에게 돈이나 명예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의는 지혜이자 덕이므로 정의로운 사람은 현명하고 지혜로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고 열등하다. 따라서 훌륭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하다.

[23014-0107]

3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정의로운 국가의 법률은 보편타당한 윤리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가?
- ㄴ. A: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면 피지배자는 지배 계급이 제정한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가?
- ㄷ. B: 한 국가에서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정의로울 수 있는가?
- ㄹ. C: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이 국가를 다스릴 때 피지배자의 이익이 보장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4-0108]

4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탁월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여러 기예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 행위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얻게 된다.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건축가는 집을 지어 봄으로써 건축가가 되며, 하프 연주자는 하프를 타 봄으로써 하프 연주자가 되듯이 말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① 갑에게: 도덕 판단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갑에게: 행복을 위해서는 부와 명예 등의 가치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을에게: 행복이란 영혼을 돌보는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을에게: 모든 덕이 참된 앎만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갑과 을에게: 감각적 경험은 진리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④ 행복 추구의 방법

1. 헬레니즘 시대의 윤리 사상

(1) 시대적 상황

- ①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 → 도시 국가(polis)의 붕괴와 대제국의 출현
- ② 도시 국가의 시민에서 제국의 신민으로 전락 → 시민 간 일체감 상실, 정치적 무기력에 빠짐

(2) 사상의 경향

- ① 더 나은 국가의 실현보다는 개인의 평온한 삶이 주요 탐구 주제로 부각됨
- ② 대표 사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학과 금욕을 추구하는 스토아학과

2. 에피쿠로스학파의 쾌락주의

(1) 쾌락의 추구

- ①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임
- ②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함
- ③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함 → 참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소멸된 상태, 즉 평정심(ataraxia)임

◎ 에피쿠로스의 욕구 구분

-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 의 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성적인 욕구
-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부, 명예, 권력 등에 대한 욕구

◎ 에피쿠로스의 정의(正義)

정의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임

개념 체크

- 1 에피쿠로스는 ()을/를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요,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으로 보았다.
- 2 에피쿠로스는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을/를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 3 에피쿠로스 에 따르면 ()이란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려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다.

정답

- 1 쾌락
- 2 고통
- 3 정의

자료 플러스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 모든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일치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이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회피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해로운 것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 에피쿠로스, "쾌락" -
- 결핍으로 인한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빵과 물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쾌락을 제공한다. - 에피쿠로스, "메노이게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

에피쿠로스는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을 추구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2) 평정심에 이르는 방법

- ①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 이성으로써 욕구를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함 →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면 고통과 불안이 발생함
- ② 신, 운명, 죽음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함 → 신은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운명은 존재하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은 죽지 않았으며 죽으면 어떤 것들도 감각할 수 없음
- ③ 은둔적 생활 속에서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야 함
 - 공적인 삶과 인간관계는 집착과 다툼, 좌절과 분노 등 고통과 불안을 일으킴
 -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임
- ④ 정의로운 삶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며 살아야 함

(3) 에피쿠로스학파 윤리 사상의 한계와 영향

- ① 한계: 개인적 쾌락을 중시한 나머지 공적 삶을 경시함
- ② 영향: 감각적 경험을 중시한 근대 경험론과 쾌락을 중시한 공리주의에 영향을 줌

3.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

(1) 금욕의 추구

- 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 즉 정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상태인 부동심(apatheia)을 추구함
- ②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이성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감정은 인정함

(2) 부동심에 이르는 방법

- ①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함
 - 이성(logos): 우주 만물의 본질,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 → 신, 자연 등으로 표현됨
 -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신적 이성을 나누어 가지고 있음 → 이성은 신과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며, 인간은 이성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음
- ②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함
 -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 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음
 -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 충동, 욕구, 감정 등 마음과 관련된 것뿐임
- ③ 자연법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함
 - 자연법이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의 명령이자 자연법칙임
 -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세계 시민주의 사상으로 발전됨
 -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함

자료 플러스 스토아학파의 자연에 따른 삶

- 빵을 구울 때 표면의 갈라진 부분들은 빵을 굽는 사람의 의도와 기술에 어긋나기는 해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먹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이와 같이 자연의 손리에 따른 것이라면 아무것도 나쁘지 않다. 우주에서 생성되는 사건과 사물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지닌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로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물들 중 그 어떤 것도 기쁨을 제공하지 않도록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
- 인간의 정신을 방해하는 것은 사건들 자체가 아니라 사건들에 대한 인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두려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이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동요와 슬픔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과 판단에 돌리도록 하자. - 에픽테토스, "엔케이리디온" -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른 삶을 살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이성에 따른 삶이란 자연에 따른 삶이자 신의 예정과 섭리에 따른 삶이며, 덕에 따른 삶이다. 에픽테토스에 의하면 이 세계의 모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3) 스토아학파 윤리 사상의 한계와 영향

- ① 한계: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강조한 나머지 도덕적 삶에서 개인의 의지와 정서의 역할을 간과함
- ② 영향: 중세와 근대의 자연법 사상가들, 정념의 예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 스피노자, 이성에 부합한 삶을 강조한 칸트에게 영향을 줌

☛ **스토아학파의 정념(pathos)**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과 충동. 정념(공포, 쾌락, 슬픔 등)은 비이성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성에 따른 삶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임

개념 체크

- 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부동심을 추구하였으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등과 같은 ()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은 인정하였다.
- ② 스토아학파 사상에 따르면 ()은/는 신과 자연과 인간의 공통된 본성이며, 인간은 ()으로써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파악하고 따를 수 있다.
- ③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 사상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① 정념, 이성
- ② 이성, 이성
- ③ 세계 시민주의

* 그리스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투스(Christos)', 히브리어로는 '메시아(Messiah)'라고 함

* 신앙

1. 그리스도교의 기원과 발전

(1) 그리스도교의 기원

① 유대교

- 여호와를 유일신이자 창조주로 믿으며 메시아의 도래와 심판을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으며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함을 강조함
- 유대인만이 신에게 선택받았다는 선민(選民)사상과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특징으로 함

② 예수의 사상

- 사랑의 윤리: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비판 → 모든 인간은 신 앞에 존귀하고 평등하며, 율법의 참된 정신은 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
- 보편 윤리: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황금률) →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의무로서의 이웃 사랑 강조
- 그리스도교가 민족 종교를 넘어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2) 그리스도교의 발전

① 그리스 사상과의 만남: 그리스도교가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성 중심의 그리스 사상과 만나게 됨 → 교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됨

② 교부 철학

- 중세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공헌한 교부(敎父)들의 사상 및 철학
- 대표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 → 플라톤 철학으로 신앙과 사랑의 윤리를 체계화함

③ 스콜라 철학

- 중세 후기 수도원 부속 학교(schola)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한 사상 및 철학
- 대표 사상가: 아퀴나스 →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자 함

개념 체크

- 1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론에 맞추어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하였다.
- 2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적 덕 중 최고의 덕은 ()이라고 보았다.
- 3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주덕을 ()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았다.

정답

- 1 이데아
- 2 사랑
- 3 신

2. 아우구스티누스와 사랑의 윤리

(1) 고대 그리스 사상의 수용

① 플라톤 사상 수용

- 이데아론에 맞추어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지상의 나라를 구분함
- 신을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으로 봄

② 플라톤 사상과의 차이점

- 신을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로 봄
- 참된 행복의 실현은 계사를 통해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봄

(2) 사랑의 윤리

① 행복론과 덕론

-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됨
-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 중 최고의 덕은 사랑임
- 플라톤의 사주덕(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임

② 원죄론

-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원죄(原罪)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남 → 인간의 노력만으로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
-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임 →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임

③ 구원론

-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함
- 신앙으로써 신에게 귀의하여 신과 하나가 될 때, 신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됨
-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지상의 나라가 이루어짐

자료 플러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의 윤리

- 행복이 더는 선택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것으로 구성된다면 우리는 이를 최고선이라고 부르는데, 최고선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닌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함,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선은 바로 신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들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이것에 맞추어 우리의 모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마니교와 도나투스파에 대한 반박" -
- 절제란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는 사랑이다. 용기란 사랑해야 할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 내는 사랑이다. 정의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만을 사랑함으로써 바른 다스림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랑이다. 지혜란 온전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 내는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을 받을 존재는 최고선이며 최고의 지혜이며 완전함 그 자체인 신뿐이다.
-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교회의 도덕에 관하여" -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은 최고선이며,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실현하며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바른 사랑', 즉 '질서 잡힌 사랑'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물질보다는 인간을, 육체보다는 영혼을, 인간의 영혼보다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향유할 대상을 향유하고 사용해야 할 대상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향유란 대상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며, 사용은 어떤 대상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는 인간보다 상위의 것들, 즉 정신적인 것들은 향유해야 하고, 인간보다 하위에 있는 것들, 즉 동식물, 무생물 등은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의의

- ① 플라톤 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의지의 한계를 밝히고, 신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 사상을 정립함 →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 강조
- ② 고대 그리스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을 융합하여 그리스도교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함

3. 아퀴나스와 자연법 윤리

(1) 고대 그리스 사상의 수용

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수용

-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며, 행복은 덕에 의해 실현된다고 봄
-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함

② 아리스토텔레스 사상과의 차이점

- 자연적 덕(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으로 봄 →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종교적 덕(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함
-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봄

원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즉 신의 계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생겨난 죄로, 그리스도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으로 봄

개념 체크

- ①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을/를 가지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
- ② 아우구스티누스는 ()은/는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여이며,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 ③ 아퀴나스는 지성적 덕, 품성적 덕과 같은 ()적 덕은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이며 믿음, 소망, 사랑 등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적 덕을 통해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 ① 원죄
- ② 악
- ③ 지연, 종교

(2) 자연법 윤리

① 영원법

- 신의 예지와 의지로 정립된 영원불변하는 질서와 법칙
-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음 →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신의 뜻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

② 자연법

-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
-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등에 의해 구체화됨

③ 실정법(인간법)

-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구체적인 법
-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함 →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됨

* 프로테스탄티즘

16세기 루터와 칼뱅에 의해 주도된 종교 개혁의 중심 사상. 당시 교회의 부패와 타락, 교리에 항의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교황 중심의 교회와 구분하여 형성한 그리스도교 사상

* 소명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한 신의 부름을 일컫는 말

개념 체크

- 1 아퀴나스에 따르면 ()은/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다.
- 2 아퀴나스는 ‘()을/를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인 자연법의 제1원리로 제시하였다.
- 3 칼뱅은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을/를 주장하였다.

정답

- 1 자연법
- 2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 3 예정설

자료 플러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 인간에게는 모든 다른 실체들과 공유하는 성향, 즉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과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자연적 성향이 내재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고유한 자연적 성향이 있는데, 이는 이성이라는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으로, 신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과 사회적 공동체에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이다.
-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이성적 피조물은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 아퀴나스, “신학대전” -

아퀴나스에 따르면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3) 아퀴나스 사상의 의의

- ①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신앙과 이성이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함
- ② 그리스도교의 지배 아래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근대 윤리 사상이 싹틀 수 있는 발판이 됨

4. 프로테스탄티즘

(1) 루터의 사상

- ①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 구원은 교회 의식이나 선행이 아니라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 가능하며,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음
- ② 만인 사제주의: 모든 신앙인은 성직자이자 사제로서 신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음

(2) 칼뱅의 사상

- ① 예정설: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음
- ② 직업 소명설: 직업은 신이 각 개인에게 내린 소명(召命)이며 지상에서 이웃 사랑과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임

- (3) 의의: 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중요함을 강조 → 그리스도교 사상이 현세에서의 삶을 중시하는 특색을 띠게 됨

[23014-0113]

0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중세 서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질서 있는 사랑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 선하고 덕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데 사랑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을 버리고 사람에게 매혹되었을 때 이는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후략).

- ① 물질을 사용하고 신을 향유하는 것이 바른 사랑의 자세이다.
- ② 도덕적 덕을 갖추기만 하면 모두 천상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
- ③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어 혼자서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④ 신은 천상의 나라에서와는 달리 지상의 나라에서는 악을 창조한다.
- ⑤ 질서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동등한 정도로 사랑한다.

[23014-0114]

0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고서는 사려 깊고 고상하며 정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 ① 개인의 이익과 정의로운 삶은 상호 모순적인 관계이다.
- ②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 ③ 모든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할 때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
- ④ 개인적 쾌락보다는 사회적 책무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
- ⑤ 사려 깊은 사람은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을 추구한다.

[23014-0115]

03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일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것일 뿐이다. 너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이다. 행복과 자유는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	제자: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스승: _____ ㉠ _____

- ① 스스로의 한계를 이겨 내고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
- ② 이성적 삶을 바탕으로 정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 ③ 고통의 부재를 통한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
- ④ 구원의 징표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사회적 역할을 멀리하고 개인적 만족을 우선해야 한다.

[23014-0116]

04 그리스도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구원을 행위의 덕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속은 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신의 선택인 기쁨뿐이다. 신의 선택의 확실성을 찾고자 할 때는 선택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표지들에 주목해야 한다.
을: 인간이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진정한 보물은 신의 영광과 은혜의 증언인 거룩한 말씀이다.

보기

- ㄱ. 갑: 신앙과 직업 생활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
- ㄴ. 갑: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다.
- ㄷ. 을: 신앙인은 성직자 없이도 신과 소통할 수 있다.
- ㄹ. 갑과 을: 영원한 행복은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17]

05 중세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운동 상태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서는 운동 상태에 있을 수 없다. 이는 마치 차가운 쇠덩이가 스스로 열을 내지 못하고 누군가 열을 가해야만 달궈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무한히 원인을 소급해 올라갈 수는 없으므로 이로부터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을: 최초의 악한 의지는 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최초의 축복을 인간이 죄를 지은 뒤에도 거두시지 않았다. 우리가 일생을 선하게 보내고 드디어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보기

- ㄱ. 갑: 신앙은 이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 ㄴ. 을: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 ㄷ. 갑과 을: 선과 달리 악은 신이 창조하지 않은 실체이다.
- ㄹ. 갑과 을: 지혜, 용기, 절제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18]

06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는 극작가에 의해 결정된 연극에서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짧기를 바라다면 그 연극은 짧고, 만일 길기를 바라다면 그 연극은 길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 그 역할조차도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절름발이를, 공직자를, 평범한 사람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너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은 신의 뜻이며 너의 의무는 너에게 할당된 그 역할을 잘 연기하는 것이다.

- ① 사회적 역할과 책임보다는 개인적 행복을 우선해야 한다.
- ②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의 법칙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부동심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연의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 ④ 모든 감정은 부동심을 방해하므로 없애려 노력해야 한다.
- ⑤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주어진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23014-0119]

07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이 이성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연적 빛은 자연적 질서를 인식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더욱 고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성은 특별한 빛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의 은총이 필요하며 영원한 생명은 이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①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신 존재의 이성적 증명이다.
- ② 신의 존재는 오직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 ③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 ④ 사랑의 덕을 통해 현세에서 지복(至福)에 이를 수 있다.
- ⑤ 자신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은 신의 뜻에 위배된다.

[23014-0120]

08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을: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이 누리는 탐닉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보기

- ㄱ. 갑: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다 해야 한다.
- ㄴ. 을: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쾌락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 ㄷ. 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ㄹ. 갑과 을: 이상적 삶을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숙고하는 삶의 자세가 요구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21]

1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쾌락을 선택하지는 않으며 쾌락의 결과로 더 큰 고통이 생겨날 때는 많은 쾌락을 지나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고통들이 쾌락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면 더 큰 쾌락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미덕이 쾌락을 주게 된다 하더라도 쾌락 때문에 미덕이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미덕이 쾌락을 준다면 쾌락은 미덕의 부수적 현상일 뿐이다. 미덕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쾌락도 얻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



갑



을

- ① 갑: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 정도와 쾌락의 크기는 항상 비례 관계를 유지한다.
- ② 갑: 명예욕과 권력욕의 충족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나쁜 쾌락이다.
- ③ 을: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인류에 대한 사랑도 이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감정일 뿐이다.
- ④ 을: 덕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달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간다.
- ⑤ 갑과 을: 이상적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과 운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23014-0122]

2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절제란 영혼의 지배하는 부분과 지배받는 두 부분 사이의 화합이며, 용기란 쾌락과 고통에 에워싸여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성의 지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지혜란 영혼의 각 부분을 위해서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도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는 것이다.

을: 절제란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 드러야 할 사랑을 드리는 사랑이며, 용기란 사랑해야 할 존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 내는 사랑이다. 지혜란 온전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사랑에 방해되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을 분별해 내는 사랑이다.

보기

- ㄱ. 모든 덕들 중 최고의 덕은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된 덕인가?
- ㄴ. 참된 행복은 초월적 세계가 아닌 현상 세계에서 실현 가능한가?
- ㄷ. 이성의 능력을 통해 최고선의 참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가?
- ㄹ. 만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존재하는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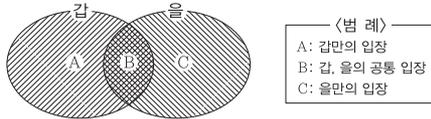
[3~4]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죽음의 가능성도 두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두려운 악이라고 생각되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죽음을 떨시하지 말고, 죽음을 기뻐하라. 죽음도 자연이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죽음에 무관심하거나 조급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연의 한 과정으로서 기다리는 것이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맞는 태도이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듯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을 기다려라.

[23014-0123]

3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불멸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
- ㄴ. B: 죽음을 고통이나 회피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 ㄷ. B: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
- ㄹ. C: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을 악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24]

4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갑,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일 우리가 인간보다 우월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소유할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고려해 볼 만한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하며 그 어떤 것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어야 한다. …(중략)…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며 그것에 맞추어 모든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닌 모든 선한 것들의 완전함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선은 바로 신이다.
- 건전하지 못한 미각에는 맛있던 빵이 건전한 미각에는 맛있는 빵이 된다. 시린 눈에 고통을 주던 빛이 건전한 눈에는 기쁨을 주는 빛이 된다. 악은 실체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열등한 것들을 향하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적인 보물들을 내팽개치고 외적인 선으로 살피우는 의지의 왜곡이다.

- ① 갑에게: 신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② 갑에게: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생(永生)이 가능함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③ 을에게: 인간의 원죄를 심판하기 위해 신이 선악을 창조하였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을에게: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 가는 힘은 인간 이성임을 바르게 알고 있다.
- ⑤ 갑과 을에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상적 삶의 경지에 이를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23014-0125]

5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쾌락이 최고선이라고 말한 자들도 자신이 최고선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지 알고 있다. 어째서 쾌락이 미덕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인가? 미덕과 쾌락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째서 어떤 것은 즐겁지만 품위가 없고 어떤 것은 매우 품위가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만 힘겹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 자연의 법칙과 본보기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 곧 지혜이며, 이러한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곧 행복한 삶이다. 이성엔 자연에 주목하고, 자연에서 조언을 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과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동기가 아닌 결과에 따라 행위의 덕과 부덕이 결정된다.	√	√		√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닌 사건에 대한 정념에 기인한다.	√		√		√
부와 명예는 그 자체로 해로운 것임을 인식할 때 덕 있는 삶이 가능하다.		√		√	√
이성에 기초를 둔 자연스러운 감정에 기반한 욕구 충족은 덕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126]

6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중세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만약 행위 될 수 있는 것들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그 자체 때문에 바라고, 다른 것들은 이것 때문에 바라는 것이라면,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좋음이며 최상의 좋음일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앎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마치 과녁을 가지고 있는 궁수처럼 마땅히 그래야 할 바에 더 잘 적중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좋음들 중 최상의 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을: 자연 만물은 목적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 만물이 항상, 혹은 빈번히 최고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운행한다는 데서 이 사실은 분명하다. 이로써 그들이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목표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의해 인도받지 않으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화살이 궁수에 의해 인도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목적을 향해 질서 지어 주는 어떤 지성적인 것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른다.

- 【 보기 】
- ㄱ. 갑은 현실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좋음 자체를 인식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신에 대한 이성적 관조 활동만으로는 지복(至福)에 이를 수 없다고 본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삶의 궁극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고유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4-0127]

7 (가)의 서양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 안의 세 부분이 각각 남들이 할 일을 자기가 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참견을 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최고음, 최저음, 중간음의 세 음정이 조화를 이루듯 영혼이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p> <p>을: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을 우리에게 타고난 첫 번째 선이라고 인식하며, 선택하고 기피하는 모든 행동을 쾌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p> <p>병: 두 개의 사랑에 의해서 두 개의 국가가 형성된다. 지상의 국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신을 경멸함으로써, 천상의 국가는 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경멸함으로써 형성된다.</p>
(나)	<p><법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욕구의 절제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② B: 정의는 안전 보장이라는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임을 간과한다.
- ③ C: 인간의 능력만으로도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D, F: 도덕적 선행만으로는 인간이 지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⑤ E: 세계는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와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세계로 구분됨을 간과한다.

[23014-0128]

8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은 신의 영원한 이성에 의해 목적을 향해 질서 지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영원법이 있다. 영원법은 사물들의 본성에 새겨져 있고,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영원법은 이성의 자연적 빛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데 인간 사회의 실정법은 바로 이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 한편, 초자연적인 질서에 관한 신의 특별한 법을 신법이라 부른다.

- ①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 능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 ②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
- ③ 인간 이성의 능력으로 인식이 불가능한 신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자연법의 제1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 ⑤ 실정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신의 법칙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1. 근대 서양 윤리 사상의 등장 배경

- (1) **르네상스**: 개성을 존중하고 현실을 중시하며, 합리적 사고와 경험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확산시킴
- (2) **종교 개혁**: 가톨릭의 권위주의적 전통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형성함
- (3) **자연 과학의 발달**: 기존의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세계관을 대체하는 과학적 세계관을 제공함

개념 플러스 르네상스

14~16세기에 유럽에서 나타난 문예 부흥 운동. 르네상스(Renaissance)는 ‘부활’, ‘부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서, 일차적으로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헌과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고전 문화의 부활을, 이차적으로는 중세 가톨릭적 세계관과 인간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연적 인간성의 부흥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주의(Humanism)는 르네상스 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문주의는 스콜라 철학에 물들지 않은 고대 철학의 연구에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스콜라 철학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르네상스는 자연과 개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주었고, 어느 정도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게 해 줌으로써 종교 개혁과 과학 혁명이 발생하고 근대 철학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 서양 사상의 두 유형

(1)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구분	이성주의	경험주의
지식의 근원	이성	경험
진리 탐구 방법	연역법	귀납법
대표자	데카르트, 스피노자	베이컨, 흄

개념 플러스 연역법과 귀납법

구분	연역법	귀납법
의미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개별적인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한계	새로운 지식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을 경우 공허하거나 사변적인 추론이 될 수 있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고, 높은 개연성을 지닌 지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필연적 진리를 정립할 수 없음

(2) 데카르트와 베이컨

- ① 데카르트: 근대 이성주의의 기초를 닦은 철학자
 - 방법적 회의(懷疑):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명제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러한 명제를 찾기 위해서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함

개념 체크

- ① ()은/는 14~16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문예 부흥 운동으로 중세 가톨릭적 세계관과 인간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적 인간성의 부흥을 추구하였다.
- ② 경험주의가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귀납법을 중시하였다면 이성주의는 ()을/를 중시하였다.
- ③ ()은/는 확실한 지식을 연역해 내기 위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방법적 회의를 사용하였다.

정답

- ① 르네상스
- ② 연역법
- ③ 데카르트

- 철학의 제1원리: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음
- ② 베이컨: 근대 경험주의의 선구자
 - 자연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강조: 자연 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음 → “아는 것이 힘이다.”
 - 새로운 진리 탐구 방법 주창: 실험과 지성을 중시하는 귀납법을 제시함
 - 이상론: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이상(偶像)에 비유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역설함

자료 플러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철학의 제1원리’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보기로 했다. …(중략)…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의심하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진리는 아주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의 모든 가정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는 주저 없이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데카르트, “방법서설” -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다. 이것이 ‘방법적 회의’이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의심(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확실한 명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이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이성적 추론을 통해 다른 진리들을 연역하고자 하였다.

자료 플러스 베이컨의 새로운 학문 방법론

지금까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험에만 의존하거나 독단을 휘둘렀다.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개미처럼 오로지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고, 독단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거미처럼 자신의 속을 풀어내서 집을 짓는다. 그러나 꿀벌은 중용을 취한다. 즉 들에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가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학문의 임무는 이와 비슷하다. 참된 학문은 경험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 베이컨, “신기관” -

베이컨은 학문의 당면 과제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전통적인 삼단 논법과 같은 연역적 방법(거미의 방법)과 단순한 경험적 방법(개미의 방법)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자연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원리를 토대로 또 다른 실험을 행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참된 귀납법(꿀벌의 방법)이 올바른 학문 방법이라는 것이다.

3. 스피노자의 이성 중심 윤리 사상

(1) 신에 대한 견해

- ①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봄
- ② ‘신, 즉 자연’은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實體, substance)이고, 자연의 개별 사물은 하나의 실체가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양태(樣態, mode)라고 주장함. 인간 역시 양태의 지위를 가짐

개념 체크

- ① 데카르트가 철학의 제1원리로 삼은 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한다.’이다.
- ② 베이컨은 자연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에 비유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역설하였다.
- ③ 스피노자는 (), 즉 자연을 존재하는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정답

- ① 존재
- ② 이상
- ③ 신

(2) 필연론

- 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봄
- ②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봄

자료 플러스 스피노자의 세계관

- 나는 실체를 자신 안에 있고 자신을 통해 생각되는 것, 곧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 나는 양태를 실체의 변용(變容,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말하면 다른 것 안에 있고 다른 것을 통해 생각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 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각될 수 없다.
 - 인간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될 수도 없는 어떤 것이다. 인간은 신의 본성을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 자연 안에는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
- 스피노자, "윤리학" -

스피노자는 범신론적이고 필연론적인 세계관과 이성주의에 기반을 둔 윤리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 즉 자연은 유일한 실체이고, 인간은 실체가 변한 모습, 즉 양태의 지위를 갖는다. 세계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계에 우연성과 자유 의지가 들어설 곳은 없다.

(3) 정념의 속박과 최고의 행복

- ①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리고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봄
- ②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계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함
- ③ 최고의 행복: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과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
→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임

개념 플러스 정념의 속박

정념의 속박은 스피노자가 해결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은 정념(수동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이라고 말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념에 속박된 인간은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종종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더 나쁜 것을 따르게 된다.

스피노자가 중시하는 인식 방법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만물이 발생하는 필연적 인과 질서를 파악할 것을 주장함. 그는 '참된 학문은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참이라고 인정된 명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과로 나아가는 인식 방법을 중시함

개념 체크

- ①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신이 보여 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스피노자는 세계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므로 인간이 이러한 필연성에서 벗어나 ()을/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 스피노자는 ()을/를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 ① 양태
- ② 자유 의지
- ③ 이성

자료 플러스 스피노자의 이성 중심 윤리 사상

- 우리가 이성에 의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성을 사용하는 한에서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중략)…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한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 진실로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정신의 만족일 뿐이다. 그런데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최고의 욕망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는 욕망이다.
-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달림을 받아 참된 마음의 평화를 결코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과 사물을 모르는 것처럼 살며, 작용받는 것을 멈추자마자 존재하는 것도 멈춘다. 이에 반해, 현명한 사람은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며, 존재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매우 어렵게 보일지라도 발견될 수는 있다. 또한 드물게 발견되는 것은 물론 험준한 일임에 분명하다. 모든 고귀한 것은 힘들 뿐만 아니라 드물다.

- 스피노자, "윤리학" -

스피노자에 따르면 유한한 인간은 불충분한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 신, 즉 자연을 인식하게 되면 마음의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신, 즉 자연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모든 사물의 궁극적 원인과 이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질서를 인식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가 추구한 최고의 행복은 모든 존재자를 생산한 근원, 즉 신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생산한 신을 인식하고, 이 신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물들이 발생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우주의 다른 존재자들과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며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4. 흄의 감정 중심 윤리 사상

(1) 감정 중시

- ① 도덕적 가치: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是認)의 감정이나 부인(否認)의 감정을 표현한 것임 →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임
- ② 도덕적 실천의 동기: 감정(정념)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만으로는 그렇지 못함 → 도덕적 구별과 행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임. 이성의 역할은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의 타당성과 진실성을 밝혀 주는 등 정념에 봉사하는 것임
- ③ 도덕성의 기초: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共感)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임 →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의 능력 때문임

개념 플러스 흄의 공감

공감은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해 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며, 그리하여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흄은 이 공감에 상상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았다. 무언가를 느끼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느낌과 관련된 어떤 관념을 갖게 되며, 이 관념이 내 안에서 생생한 느낌을 낳는다는 것이다.

개념 체크

- ① 흄에 따르면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은/는 그렇지 못하다.
- ② 흄에 따르면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부인의()을/를 표현한 것이다.
- ③ 흄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정답

- ① 이성
- ② 감정
- ③ 공감

- (2) **회의주의적 인식론**: 인과 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우리는 인과 결과의 실제적 결합을 알 수 없음. 자아에 대한 인식도 감각적 지각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를 알 수 없음
- (3) **영향**: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리주의 윤리의 모태가 됨

자료 플러스 **흠의 감정 중심 윤리 사상**

-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중략)… 사람들이 감정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그리고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한 그레아만 한다.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임무도 요구할 수 없다.
- 우리의 추론이 다양해짐에 따라 우리의 행동도 다양해질 것이다. …(중략)… 그러나 행동은 이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성에 의해 지도될 뿐이다. 혐오나 선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전망 때문이다.
-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 또는 감정에 의해서임이 틀림없다. 도덕적 올바름과 악함에 관한 우리의 결정은 명백히 지각이다. …(중략)… 그러므로 보다 정확히 말해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느껴진다.
-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은 아니다.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
-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그리고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곧바로 우리의 시인(是認)을 받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는 사실이 도출된다.

- 흠,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

흠은 이성주의적 윤리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가 보기에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의지 활동의 동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흠은 우리의 도덕성이 일종의 감정, 즉 도덕감으로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이때의 감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말한다. 그리고 흠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5.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의 영향

- (1) **이성주의의 영향**: 인간의 이성을 도덕과 행복의 기반으로 봄 → 실천 이성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자 노력한 칸트의 윤리 사상에 큰 영향을 줌
- (2) **경험주의의 영향**: 도덕의 불변성이나 이상의 추구보다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상에 영향을 줌

개념 체크

- ① 흠에 따르면 도덕성은 일종의 감정인데, 이때의 감정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적 차원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뜻한다.
- ② 흠의 윤리 사상은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 윤리의 모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답

- ① 사회
- ② 공리주의

[23014-0129]

0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출발하여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한 다음, 그것을 제1원리로 삼아 중간 수준의 공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적인 사례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제에 도달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처음부터 추상적이고 쓸모없는 일반적 명제를 설정하지만, 후자는 자연에서 출발하여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원칙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씩 꾸준히 올라가는데 이것이야말로 ㉠ 진정한 과학적 방법이다.

- ① 연역적 방법을 바탕으로 얻은 지식만을 신뢰한다.
- ② 삼단 논법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발견한다.
- ③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자연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 ④ 지성을 배제한 경험적 지식을 통해 진리를 탐구한다.
- 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 귀납적 지식은 활용하지 않는다.

[23014-0130]

0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추상적이거나 논증적인 추론은 오직 원인과 결과 따위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지배할 뿐, 우리의 어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고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

보기

- ㄱ. 덕과 부덕은 선험(先驗)적 인식의 대상인가?
- ㄴ. 이성은 이타적인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ㄷ. 유용성은 덕과 부덕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가?
- ㄹ. 도덕 행위의 직접적 동기는 이성이 아닌 감정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31]

03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무지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외적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요되어 결코 영혼의 참다운 만족을 갖지 못합니다. 이에 반하여 현명한 사람은 거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의 필연성에 의해 인식합니다. ... (후략).

- ① 진정한 자유를 위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② 덕 있는 삶은 쾌락으로부터 비롯됨을 명심해야 한다.
- ③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신과 하나 됨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⑤ 신의 은총을 위해 창조주로서의 신에 귀의해야 한다.

[23014-0132]

0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적의 좋은 성질은 우리에게 해로운데도 우리의 부러움과 존경을 촉발할 수도 있다. 어떤 성격을 우리 자신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만 그 성격은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느낌이나 소감을 유발한다. 우리는 적을 부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신을 단련한 판단력 있는 사람은 이런 착각을 피할 수 있다.

보기

- ㄱ. 감정은 덕과 악덕을 구별하는 근거이며 도덕 행동의 동기로 작용한다.
- 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 ㄷ. 도덕이 보편성을 띌 수 있는 이유는 감정이 아닌 이성의 능력 덕분이다.
- ㄹ. 도덕적 선악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기초하므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4-0133]

05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존재하는 모든 것은 ㉠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은/는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은/는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며 다른 것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곧 양태는 오직 ㉠ 안에만 있으며 ㉠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는 양태는 ㉠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보기

- ㄱ. 모든 사물의 궁극적 존재 원인이다.
- ㄴ. 인간 이외의 유일한 실체(實體)이다.
- ㄷ. 자연 바깥에서 자연을 창조한 절대적 존재이다.
- ㄹ. 최고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인식해야 할 대상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34]

06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모든 사람의 정신은 그 느낌이나 작용에서 유사하다.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모든 감정들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 가서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감정에 걸맞은 운동을 유발한다. 다른 사람의 정서의 원인이나 결과가 우리의 공감을 유발한다.
(나)	인간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 ① 실천 이성이 수립한 도덕 법칙에 존경심을 느끼기
- ② 신의 계시에 따를 때 온전한 행복을 향유할 수 있기
- ③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할 때만 도덕적 삶이 가능하기
- ④ 덕(德)은 이성의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될 때 갖춰지기
- ⑤ 사회적 선에 대하여 시인(是認)의 감정을 지닐 수 있기

[07~08]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 없다.
 을: 모든 존재는 신 안에 있으며 또한 신에 의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신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의 원인이다. 신 이외에는 어떤 실체도 있을 수 없다. 신의 바깥에서 자기 자신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23014-0135]

0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은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정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신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인간이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인간은 오직 신의 계시를 통해서만 보편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23014-0136]

0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나, 즉 나를 나이게끔 해 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실형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 ① 진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불가능함을 모르고 있다.
- ② 귀납적 방법만이 진리 탐구에 유효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진리가 존재함을 모르고 있다.
- ④ 감각적 경험만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⑤ 방법적 회의로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음을 모르고 있다.

[23014-0137]

1 그림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신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한, 오로지 인식에 도움되는 것만을 자기에게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자, 즉 신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파악하는 것 또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갑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자연적 성향이 사회에 복리를 불러올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덕이 있다고 말하며, 그 사람의 성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집니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이고, 공감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선과 복리에 관심을 품게 됩니다.



을

- ① 갑: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할 때 신의 양태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 ② 갑: 인간은 만물의 궁극적 원인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지양할 때 자유로울 수 있다.
- ③ 을: 도덕적 선악은 인간 정신과 무관하게 외부 대상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 ④ 을: 덕과 악덕의 구분은 관념 자체가 아니라 관념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에 의존한다.
- ⑤ 갑과 을: 도덕적 선악의 판별은 인간이 지닌 이성적 추론 능력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23014-0138]

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우리의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하며,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문제에 있어서조차 추리를 잘못하여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확고하고 확실한 철학의 제1원리가 된다.

을: 제1원리에 대해서는 물론, 중간 수준의 공리, 아니 모든 공리의 증명과 발견에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방법은 단순 나열의 유치한 귀납법이 아니다. 참된 귀납법은 적절한 배제와 제외에 의해 자연을 분해한 다음, 부정적 사례를 필요한 만큼 수집하고 나서 긍정적 사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 ① 갑은 생각하는 나의 존재 사실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방법적 회의의 결론이라고 본다.
- ② 갑은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실험 등 경험적 방법을 통해 철학의 제1원리가 발견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자연을 탐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진리의 발견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지성의 능력과 경험적 지식의 결합을 통해 학문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지식은 초월적 존재자의 보증을 통해서만 진위가 판별될 수 있다고 본다.

[23014-0143]

7 가상 대담을 하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1</p> <p>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노예와 자유인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p> 	<p>2</p> <p>감정이나 편견에만 이끌리는 사람을 노예, 이성에 인도되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p> 
<p>3</p> <p>그럼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p> 	<p>4</p> <p>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p> 

- ① 인격신의 계시에 따라 수동적인 감정을 다스릴 때
- ②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기 위해 모든 감정을 제거할 때
- ③ 신뿐만 아니라 인간도 실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 ④ 만물의 초월적 원인인 절대자와의 실존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 ⑤ 직관적 인식을 통하여 사물의 궁극적 원인과 질서를 이해할 때

[23014-0144]

8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정의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디서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해치지 않고 해침을 당하지 않으려는 계약, 즉 상호 이득을 위한 협정이다. 부정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에 부과되는 벌을 피할 수 없으면 어찌지라는 의심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처럼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을: 정의는 인류의 복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덕이며, 그리고 실제로 정의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한 인위적 발명품일 뿐이다. 우리 자신의 이익 또는 친구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에 사회의 복리는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쾌락을 주므로, 공감은 우리가 모든 인위적 덕을 평가하는 원천이며 모든 인위적 덕에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제공한다.

[보기]

- ㄱ. 갑은 덕이 수단적 가치가 아닌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ㄴ. 을은 도덕성은 인간의 감정이 보편성을 지닐 수 있게 하는 능력에 기초한다고 본다.
- ㄷ. 갑과 을은 덕과 부덕은 사회적 차원의 유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ㄹ. 갑과 을은 정의는 인간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에 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④ 의무론과 칸트주의

1. 의무론

- (1) 의미: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이나 의무가 있고, 이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는 옳고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고 보는 이론
- (2) 특징
 - ① 결과에 상관없이 도덕 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를 중시함
 - ②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것이라고 봄

2. 칸트의 윤리 사상

(1)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비판

- ① 행복주의 비판: 도덕은 행복이나 다른 무엇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 ② 쾌락주의와 경험주의 비판: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이나 동정심 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음

◎ 경향성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욕구나 두려움, 동정심과 같이 인간이 자연스럽게 갖는 감정

자료 플러스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를 비판한 칸트

-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그 자체로 숭고하므로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 환원될 수 없다.
- 행복의 이념을 위해 나의 현재와 모든 미래 상태에서의 안녕의 절대적 전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의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
- 동정심은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의 수동적 감정이며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행복주의는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보고 도덕을 행복 실현의 수단으로 삼는 입장이다. 그러나 칸트는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경향성,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심 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개념 체크

- 1 의무론에 따르면 인간이 지켜야 할 ()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는 옳고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
- 2 칸트에 따르면 쾌락을 추구하는 ()이나 동정심 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
- 3 칸트에 따르면 ()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다.

정답

- ① 도덕 법칙
- ② 경향성
- ③ 선의지

(2) 선의지

- ① 동기 중시: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동기인 의지임
- ② 선의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임

자료 플러스 칸트의 선의지

- 이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 선의지는 그것이 실현하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또는 이미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칸트는 선의지만이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3) 의무

- ① 의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임
- ② 도덕 법칙은 유한한 인간에게 의무의 형태를 지니게 됨. 인간은 한편으로 선의지를, 다른 한편으로 경향성을 지니고 있는데,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선의지임

(4) 도덕 법칙과 정언(定言) 명령

- ① 도덕 법칙: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남

자료 플러스 칸트의 도덕 법칙

• 내가 그것을 거듭 또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외경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 법칙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

칸트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자율적인 명령인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는 '의무'의 법칙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본능적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가 도덕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능적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정언 명령의 예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보편주의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 하라.	인격주의

- (5) **도덕적 행위:**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 실천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 =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 정언 명령을 따르는 행위

(6) 도덕과 행복

- ① 도덕과 행복은 양립 가능하지만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 ②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 없음

자료 플러스 도덕과 행복에 대한 칸트의 견해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이들 둘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욕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시될 때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칸트, "실천 이성 비판" -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의무에 일치하지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도덕적 의무의 이행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의 이행과 행복의 추구는 양립 가능하다. 다만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실천 이성

칸트 사상의 기본 개념으로, 도덕적인 실천의 의지를 규정하는 이성

❖ 가언(假言) 명령과 정언(定言) 명령

- 가언 명령: '만약 네가 A를 원한다면 너는 B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명령
- 정언 명령: '너는 무조건 ~을/를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명령

❖ 준칙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 '격률(格률)'이라고도 함

❖ 칸트의 '의무 의식'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생각할 때에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어떤 도덕적 요구에 따라 그 일을 마땅히 수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개념 체크

- 1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 2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으로 대하도록 행위 해야 한다고 보았다.
- 3 칸트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에 일치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 1 정언 명령
- 2 목적
- 3 의무

(7) 칸트 윤리 사상에 대한 평가

① 긍정적 평가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로 봄 •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함
도덕의 기초를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보편주의 정신을 강조함 • 인격을 지닌 인간을 그 자체로 존중할 것을 강조함 •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통해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려고 함

② 부정적 평가

형식적임	도덕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
지나치게 엄격함	도덕 법칙의 적용에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음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

3. 현대 칸트주의와 그 의의

(1) 현대 칸트주의: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 ① 칸트 윤리 사상의 난점인,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들이 상충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② 조건부 의무: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직관(直觀)적 의무,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한 도덕 원칙으로, 다른 도덕 원칙에 의해 유보될 수 있으며, 어떤 도덕 원칙이 우선하는지는 직관적으로 결정됨. 가령,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원칙에 의해 유보될 수 있음
- ③ 조건부 의무의 적용: 하나의 의무는 또 다른 의무와 같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함. 그러나 의무들 사이에 같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됨

개념 플러스 로스가 제시한 조건부 의무들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선행, 정의, 자기 계발, 해약 금지

로스에 따르면 위의 일곱 가지 조건부 의무들은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실제적 의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무들끼리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로스는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

(2) 현대 칸트주의의 의의

- ① 칸트 의무론의 핵심인 보편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면서도 현실에 더 적합한 형태로 칸트 의무론을 계승함
- ② 인권 사상의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 개인의 자율성과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사상의 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

※ 로스(W. D. Ross)

영국의 현대 의무론적 윤리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의 권위자로도 알려져 있음

※ 직관

사유 또는 추리를 통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물이 나 사태를 인식함

개념 체크

- 1 칸트는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 정신을 강조하였다.
- 2 로스는 의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가 우리의 ()인 의무가 된다고 보았다.
- 3 현대 칸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사상의 형성에 기여하였다.

정답

- 1 보편주의
- 2 실제적
- 3 인격

㉠ 결과론과 공리주의

1. 결과론

(1) 의미

- 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에 의해 평가하려는 이론
- ② 행위의 드러난 결과가 좋다면 동기나 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행위를 옳다고 보는 이론

(2) 특징

- ① 행위 자체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봄
- ② 대체로 행복을 좋은 결과로, 고통이나 불행을 나쁜 결과로 봄

(3) 결과론의 대표 사상: 공리주의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의 기본 원리로 봄
- ② 대표자: 벤담, 밀
- ③ 기본 입장
 - 인간관: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임
 - 윤리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며, 행복이 삶의 목적임
 - 도덕의 원리: ‘공리의 원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

개념 플러스 공리주의의 특징

결과주의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음
쾌락주의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인은 행위에 의해 생겨날 쾌락과 고통임. 그렇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적·이기적 쾌락주의가 아닌 보편적 쾌락주의임
공평성 중시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의 쾌락도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됨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1) 기본 입장

- ① 개인적 차원의 행복주의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함: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승인하는 공리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
- ②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함
- ③ 양적 공리주의
 - 모든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있음
 -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고, 이때 고려해야 할 기준에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가 있음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의 의의 및 한계

- ① 도덕의 목적이 행복 증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공정하게 고려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하려고 함
- ② 노예 제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 등을 공리의 원리에 맞게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 학대를 비판함
- ③ 쾌락의 질적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배부른 돼지의 철학’을 추구하는 천박한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벤담의 쾌락 계산 기준

- 강도: 얼마나 강한가?
- 지속성: 얼마나 오래가는가?
- 확실성: 얼마나 확실한가?
- 근접성: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는가?
- 다산성: 얼마나 다른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 순수성: 얼마나 고통이나 부작용이 없이 순수한가?
-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개념 체크

- 1 결과론은 행위 자체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좋은 ()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 2 공리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을/를 피하려는 존재라고 본다.
- 3 벤담은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정답

- 1 결과
- 2 고통
- 3 입법

자료 플러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도 오로지 이 두 군주이다.
 - 공리(utility)는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이다. 이해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며, 이해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을 의미한다.
 - 공리의 원리(principle of utility)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고,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 또는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며,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로 제시하였다.

◎ 개인의 희생에 대한 공리주의의 입장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다만 희생 그 자체가 곧 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희생은 무용지물로 간주된다."

- 밀, "공리주의" -

개념 체크

- 1 벤담에 따르면 ()은/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
- 2 ()은/는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3 밀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을/를 선호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 1 사회
- 2 밀
- 3 쾌락

3. 밀의 질적 공리주의

(1) 기본 입장

- ① 벤담의 입장(쾌락주의, 공리의 원리 강조 등)을 계승함
- ② 질적 공리주의

-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함

질적으로 낮은 쾌락	단순한 감각적 쾌락
질적으로 높은 쾌락	지성, 감정과 상상력, 도덕 감정 등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는 정신적 쾌락

-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더 가치 있으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함
- 쾌락들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그 쾌락들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

자료 플러스 **밀의 질적 공리주의**

-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 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둘 중 특정한 쾌락을 선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상관없이 어느 한 쾌락을 확실히 선호한다면 그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다.
 -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
- 밀, "공리주의" -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밀은 여러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으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밀의 질적 공리주의의 의의 및 한계

- ① 공리주의를 사회 체제에 적용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정당화하고자 함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봄
 - 자유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의 횡포를 방지할 것을 강조함
 - 여성의 종속을 비판하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강조함
- ② 공리주의의 뿌리인 쾌락주의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지적인 것을 선호하여 엘리트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4. 현대 공리주의

(1) 행위 공리주의의 의미와 문제점

- ① 의미: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는 입장
- ② 문제점
 - 개별 행위의 공리를 계산하기 어려움
 -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음

예 어떤 개별적인 약속 위반 행위가 더 큰 유용성을 지닌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음

(2) 현대 규칙 공리주의

- ①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행위의 규칙에 적용함
- ②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③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행위의 공리를 계산해야 하는 행위 공리주의에 비해 훨씬 경제적인
- ④ 구체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고, 규칙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

(3) 현대 선호 공리주의

- ① 행복을 쾌락으로 한정된 고전적 공리주의와 달리 더 포괄적인 선호(選好)를 통해 행복을 설명함
- ② 행위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행위를 옳다고 봄

(4) 현대의 대표적 공리주의자: 싱어

- ①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함: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함
- ② 인간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도 공리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③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환경 문제나 동물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함

※ 엘리트주의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나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

※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공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행위 규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함

※ 싱어(P. Singer)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철학자로 실천 윤리학의 전문가이며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윤리 문제를 논의함. "동물 해방", "실천 윤리학", "세계화의 윤리" 등을 저술함

개념 체크

- ① 행위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에 직접 적용하여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본다.
- ② ()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은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 규칙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③ ()은/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개체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 ① 행위
- ② 규칙
- ③ 싱어

[23014-0145]

0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한 필연적 행위이다. 내가 뜻하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객관에 대해 나는 물론 경향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코 존경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 결과는 한낱 하나의 의지의 결과이지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① 도덕은 유용성의 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 ②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도덕 법칙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④ 인간은 경향성에 기초한 도덕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⑤ 도덕 판단의 기준은 의무 그 자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이다.

[23014-0146]

0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까지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천부적 자질들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고 또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선의지는 인간에게 의무의 형태로 부여된 것이다.	✓	✓		✓		
선의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무조건적으로 선할 수 없다.			✓	✓	✓	
선의지는 그것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하다.	✓		✓		✓	
선의지는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택하는 의지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147]

03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보기

- ㄱ.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존엄한 존재이다.
- ㄴ.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
- ㄷ. 인간이 따라야 할 의무의 근거는 경험적 세계 내에 존재한다.
- ㄹ. 인간은 다른 이성적 존재자들을 결코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4-0148]

04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지난번에 선생님이 지적하신 칸트 윤리 사상의 한계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칸트 윤리 사상의 한계로 지적되는 정언 명령의 엄격성, 도덕적 의무 간의 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의무는 정언 명령보다는 느슨한 원칙으로, 다른 도덕 원칙에 의해 유보될 수 있기 때문에 칸트 윤리 사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 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가 존재한다.
- ② 모든 의무는 실제적 의무가 아니라 항상 조건부 의무이다.
- ③ 도덕 원칙은 인간의 상식에 의해 유보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일원론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⑤ 우리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를 따라야 한다.

[23014-0149]

05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근대 서양 사상이자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쾌락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쾌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쾌락은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쾌락들보다 정신적 쾌락들이 우위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위를 부여하는 이유는 주로 정신적 쾌락의 더 큰 항구성, 안전성, 적은 비용들 때문입니다.



갑



을

- ① 갑: 육체적 쾌락은 지속적으로 쾌락의 증대를 가져다준다.
- ② 갑: 인간은 자신에게 발생하는 고통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
- ③ 을: 쾌락의 양이 많아질수록 쾌락의 질도 증가한다.
- ④ 을: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개인적 쾌락보다 사회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23014-0150]

06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연은 인류를 두 군주, 즉 쾌락과 고통의 지배하에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일은 물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일은 오로지 이 두 주인을 위한 것이다.

을: 행위들의 모든 도덕성은 그 행위들이 만들어 낼 것에 대한 애호와 애착으로부터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리고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나온 그 행위들의 필연성에 두어져야 한다.

보기

- ㄱ. 갑: 공리의 원리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 ㄴ. 갑: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의 결과로 판단되어야 한다.
- ㄷ. 을: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 ㄹ. 갑과 을: 누구나 따라야 할 보편적 도덕 원리가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4-0151]

07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이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리의 원리는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하느냐 저해하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보기

- ㄱ. 행복의 실현을 위해 금욕적인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
- ㄴ. 공리의 원리는 측정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과학적인 것인가?
- ㄷ. 공리의 원리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경향도 포함하는가?
- ㄹ. 행복을 증가시키기보다 감소시키는 행위는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4-0152]

08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하여 개별적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이나 행복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한다.

(나)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사회에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들의 집합에 속하는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일 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그 행위는 옳다.

- ① (가)는 도덕적 직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② (가)는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를 선이라고 본다.
- ③ (나)는 유용성의 원리를 행위가 아닌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나)는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도덕 규칙의 준수 여부가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본다.
- ⑤ (가)와 (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23014-0153]

1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어떤 행동이나 소감 또는 성격이 유덕하거나 부덕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행동이나 소감 또는 성격을 지각하는 것이 특정한 종류의 쾌락이나 거부함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덕의 감각을 갖는 것은 어떤 성격을 응시하는 데에서 특정한 종류의 만족을 느끼는 것일 뿐이다.

을: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자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다. 또한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자기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이성적 존재자의 행위들을 규정하는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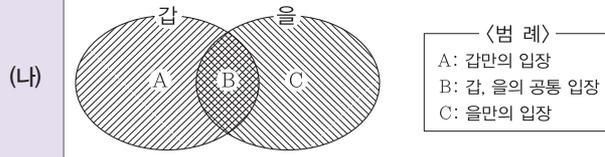
- ① 갑은 덕과 악덕의 구분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의무 의식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이끈다고 본다.

[23014-0154]

2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 보라. 만일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그러한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을: 양심은 윤리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누구나 근원적으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심에 구속받는다 함은 의무들을 인정하는 의무를 떠맡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은 한 법칙의 각 경우에서 인간에게 그의 의무가 없다 또는 있다는 것을 판정하는 실천 이성이기 때문이다.



- 「 보기 」
- ㄱ. A: 도덕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에 기반하고 있다.
 - ㄴ. B: 도덕 법칙의 보편성 여부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ㄷ. B: 모든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원리가 있다.
 - ㄹ. C: 타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도 반드시 도덕적 행위는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3014-0155]

3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의 이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동체의 이익에 관해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어떤 것이 한 개인의 쾌락의 총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행위는 그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때 공리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을: 행복의 원리는 준칙(準則)을 줄 수 있으나, 결코 보편적 규칙들은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대체적으로 아주 흔하게 들어맞는 규칙들은 줄 수 있으나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타당해야만 하는 그런 규칙들은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실천 법칙도 행복의 원리에 기초할 수는 없다.

- ① 도덕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과 입법의 원리임을 모르고 있다.
- ③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 ④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도덕 법칙들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 ⑤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만이 도덕적 행동의 동기임을 모르고 있다.

[23014-0156]

4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의지가 단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의지를 규정해야만 하는 바,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법칙이 실로 그런 것일 수 있는가? 나는 의지로부터 어떤 법칙의 준수에서 의지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충동을 빼앗았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으로, 이것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또한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할 수 있게끔 오로지 그렇게만 처신해야 한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입장					
선의지는 도덕 법칙에 따르고자 하는 자율적 의지이다.	V			V	V
행위의 준칙과 의무의 법칙이 합치되는 행위는 도덕적이다.	V	V		V	
도덕 법칙은 이성이 아닌 경험적 증명에 의해 파악되는 법칙이다.		V	V		V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들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칙이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157]

5 (가)의 갑, 을, 병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행위 대상의 현실성에 의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 능력의 모든 대상들과는 무관하게 행위를 일어나게 한 의무의 원리에 순전히 의존해 있는 것이다.</p> <p>을: 공리의 원리는 고통과 쾌락이 우리를 지배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이라는 옷감을 짜는 것이 목적인 공리의 원리의 기초로서 이 복종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p> <p>병: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가능한 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양과 질 두 측면 모두에서 가능한 한 풍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p> <p>→ : 비판의 방향</p> <p>A~F: 비판의 내용</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예시〉</p> <p>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F: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② B: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근본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③ C: 쾌락의 질이 높아질수록 쾌락의 양도 항상 증가함을 간과한다.
- ④ D: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 이익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E: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는 것은 우리의 간접적 의무임을 간과한다.

[23014-0158]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두 가지 쾌락 모두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쾌락이 바람직한 쾌락이며 이러한 쾌락은 질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있고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고등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존재 방식을 가장 뚜렷하게 선호한다는 것은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물의 쾌락을 최대한 누리도록 보장해 준다고 해서 하등 동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기

ㄱ. 인간이 저급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다.
 ㄴ. 인간은 저급한 쾌락에 빠져서 고급 쾌락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
 ㄷ.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자신의 최대 선을 희생할 수 없다.
 ㄹ. 의무감에서 나온 행위라면 결과와 무관하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 |

[23014-0161]

9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자기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은 의무일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행복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어떤 면에서 행복의 결여는 의무를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함유하고 있으니 말이다. 다만 자기 행복만을 촉진하는 일은 직접적으로는 결코 의무일 수가 없다.

을: 행복은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고, 행복의 증진이 모든 인간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으로부터 행복의 증진이 도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행위의 의지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행복의 추구하고 도덕적 의무의 이행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을은 ㉢ 행위의 결과가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도덕은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4-0162]

10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조건부 의무란 그것이 다른 조건부 의무들과 상충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조건부로 칸트의 절대적 혹은 무조건적 명법과 같은 것이다. 조건부 의무에는 신의, 보상, 보은, 정의, 선행, 자기계발 그리고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의 삼가 등이 포함된다. 조건부 의무들이 상충할 경우에는 보다 긴박한 조건부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우리의 실제적인 의무가 된다.

보기

- ㄱ.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절대적 의무로 부과되지 않는다.
- ㄴ. 실제 상황에 적합한 의무는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 ㄷ. 도덕 원리는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자명한 것이다.
- ㄹ. 조건부 의무들 간에는 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주체적 결단과 실존

1.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

(1) 근대 이성주의와 과학 기술의 발전

- ① 근대 이성주의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함
- ②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류의 성장과 진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됨
- ③ 윤리 영역에서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김

(2) 근대 이성주의에 대한 비판과 과학 기술 문명의 역기능

- ① 근대의 이성 중심적 사고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나 도덕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이 겪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소홀히 함
- ② 근대 이성주의는 이성의 반성적 기능을 무시하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위한 도구적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비인간화, 인간 소외와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함
- ③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살상 무기의 개발과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이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함

(3) 실존주의의 등장

- ①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던 기존 사상과는 다르게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시하는 실존주의가 등장함
- ② 실존주의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를 합리적 이성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별적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할 것을 강조함

2. 실존주의 사상

(1)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 ① 실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한 개인
- ②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서 늘 불안을 느끼는데, 이때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빠지게 되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름
- ③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함
- ④ '주체성이 진리':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오직 주체성만이 답을 줄 수 있으며, 진리는 개별적이고 주관적임
- ⑤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 심미적 실존 단계 → 윤리적 실존 단계 → 종교적 실존 단계

심미적 실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끝없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함 • 향락적인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결국 절망하게 됨
윤리적 실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심에 따라 보편적인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살아감 • 윤리 규범을 어기고 죄를 지을 가능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면서 다시 절망에 빠짐
종교적 실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함 • 신의 사랑에 의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게 됨

실존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개인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 존재를 가리킴

인간 소외

사회 구조나 기계 등에 의해 오히려 인간이 지배당하면서 존엄성과 개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 상실되는 것을 말함

개념 체크

- ① ()은/는 개인이 처한 구체적인 문제를 합리적 이성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별적 인간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 ② 키르케고르는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성이 아니라 오직 ()만이 답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3단계로 심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 실존 단계를 제시하였다.

정답

- ① 실존주의
- ② 주체성
- ③ 종교적

자료 플러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 감히 전체적으로 자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 한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 신 앞에서 오직 혼자 된다는 것, 이는 막대한 노력과 막대한 책임성 앞에 선다는 것이다. - 키르케고르, "공포와 전율" -
- 절망은 주체성 있는 단독의 인간을 규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다. 물론 절망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절망을 생각하는 일은 가능하다. 절망은 비현실적인 개념이라서, 절망하는 단독자가 존재한다면 그 절망하는 사람이 비로소 현실적일 것이라고 사유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망은 단독자에게 관련된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인간 각자를 단독자나 단독의 죄인으로 만드는 데서 시작되고, 천지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절망의 가능성을 한곳에 집중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단독자 각자를 향해 "너는 믿을 지어다. 즉 너는 절망하든지 믿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덧붙일 말도 없다. - 키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

키르케고르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자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라는 말은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 신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신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의지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키르케고르는 믿음을 가장 내면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이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이성이나 절대자 그 자체를 인간 정신의 중심에 두는 것으로서 절대자와의 관계를 통해 실현된 내면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 규범, 학문 등 보편적인 것은 절대자와의 관계에 기초한 내면성인 개별적인 것보다 하위의 것이 된다. 이로써 개별자가 보편적인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

*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가위는 '무엇을 자른다'는 목적이나 본질이 먼저 존재하고 장인에 의해 가위가 만들어진다. 즉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 그러나 인간은 미리 정해진 목적이나 본질 없이 먼저 존재하며, 인간 스스로 자신의 본질이나 목적을 만들어 나간다." -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개념 체크

- 1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 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 사르트르는 실존의 () 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불성실이라고 표현하였다.
- 3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 에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 1 신
- 2 불안
- 3 선택

(2)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 ①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②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 가는 존재임
- ③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 자체를 선택하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롭지 않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봄
- ④ 주체성과 책임 강조: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
- ⑤ 불성실: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데,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함
- ⑥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불성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함

자료 플러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실존주의자가 생각하는 인간은 정의될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는 무엇이 될 수 있으며,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그 무엇이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원리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주체성이라고 부른다. - 사르트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창조물이 아니라 이 세계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나 실현해야 할 정해진 목적이 없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워진 존재로서 매 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3)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 ① 한계 상황: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 등 인간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 ② 인간은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과 보편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봄
- ③ 인간은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고, 초월자에 대해 경험도 할 수 있다고 봄

개념 플러스 야스퍼스의 한계 상황

야스퍼스는 죽음, 고통, 투쟁, 죄책감과 같은 상황을 실존성이 직접 실현되는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다.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 인간이 총체적인 실존의 참모습을 실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정면에서 받아들일 때 참다운 자아의 존재성을 체득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초월자가 전달하는 암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암호가 바로 좌절이다. 좌절은 존재의 참모습을 풀어 해치는 암호인 것이다. 언제라도 마주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궁극적 상황인 좌절의 심연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과감하게 이겨 나가는 과단성을 통해 존재의 참뜻을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다.

(4)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 ① 인간을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인 '현존재'로 규정함
- ②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음
- ③ 죽음의 가능성을 회피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주체적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봄
- ④ 인간은 현존재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능동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개념 플러스 하이데거의 현존재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를 문제로 삼는 특별한 존재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존재의 본질을 경험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현존재가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의 유한성과 일회성을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성찰하게 된다.

3. 실존주의의 현대적 의의**(1) 실존주의의 의의**

- ① 대중 사회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되어 가는 현대인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주체적이고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줌
- ② 개개인을 결코 상대화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중시하며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기여함
- ③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어 상호 존중과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 줌

(2) 실존주의의 문제점

- ① 인간의 개별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도덕규범을 경시할 우려가 있음
- ②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판단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는 주관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개념 체크

- ①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 결단을 함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고, ()에 대해 경험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②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 (이)라고 표현하였다.
- ③ 실존주의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존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어 상호 존중과 ()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답

- ① 초월자(신)
- ② 죽음에 이르는 존재
- ③ 연대

◎ 실용주의(Pragmatism)의 어원

‘실제’, ‘실천’ 등의 의미를 갖는 그리스어 프라그마(pragma)에서 유래함. 실용주의라는 말은 퍼스가 자신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함

◎ 진화론과 실용주의

실용주의는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인간을 자연에 적응해 나가는 생물종의 하나로 파악했으며,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추구하였음

개념 체크

- 1 실용주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적 관점으로 ()을/를 계승하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 2 실용주의의 선구자인 ()은/는 ‘실용주의 격률’을 강조하며 쓸모 있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3 제임스는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를 ()이라고 보았다.

정답

- 1 경험론
- 2 퍼스
- 3 현금 가치

◎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

1. 실용주의의 등장 배경

(1) 시대적 배경

- ① 19세기 말 미국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됨
- ② 종교에 바탕을 두었던 이전의 세계관과 새롭게 제시된 과학적 세계관이 갈등하는 상황이 전개됨

(2) 실용주의의 등장

- 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적 관점으로 경험론을 계승하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실용주의가 등장함
- ② 실용주의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을 강조함

개념 플러스 실용주의의 선구자, 퍼스

퍼스는 ‘실용주의 격률’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적 탐구의 방법을 거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용주의 격률이란 어떤 것이 옳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쓸모 있는 실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퍼스는 어떤 사상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명제를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쓸모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실용주의 사상

(1) 제임스의 실용주의

- ① 현금 가치: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닌 가치
- ② 지식의 현금 가치: 지식의 유용성 강조 →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때 가치를 가짐
- ③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도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기여하므로 현금 가치를 지닌다고 봄
- ④ 진리란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봄

자료 플러스 제임스의 실용주의

진리의 소유는 그 자체가 목표이기는커녕 다른 필수적인 만족을 위한 예비 수단일 뿐이다. 만일 내가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다가 소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 끝에 있는 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생각이 참인 이유는 그 대상인 집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관념의 가치는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는 데에서 나온다.

- 제임스, “실용주의” -

제임스는 우리가 지식이나 신념이라고 여기는 것도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으면 참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소 발자국을 따라가면 집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 즉 관념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실제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서 집이 나타났을 때 검증이 되어 참된 관념이 되는 것이다.

(2) 듀이의 실용주의

① 도구주의

- 인간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이 형성된다고 봄
-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고 봄

② 지성적 탐구

- 지성: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함
- 지성적 탐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봄
-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하였으며, 창조적 지성을 갖춘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봄

③ 도덕

-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도덕적 인간: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하는 사람

자료 플러스 듀이의 실용주의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미치지 못했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런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선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런 도덕적으로 무기치했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 듀이, "철학의 재구성" -

듀이는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으며, 불변하는 고정된 진리나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듀이는 도덕적 인간도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3. 실용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실용주의의 의의

- ① 변화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지성적 탐구를 강조함으로써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② 가치의 다양성과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강조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 갈등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원화된 현대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줌

(2) 실용주의의 문제점

- ① 지식과 가치의 유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식 그 자체를 위한 지식과 본래적 가치의 존재를 간과할 수 있음
- ②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나 원리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윤리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음
- ③ 유용성의 관점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할 수도 있음

❖ 창조적 지성

여러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창조하는 지성

❖ 듀이의 실용주의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가 있다. 최종적으로 고정된 목적으로서의 건강이 아니라 필요한 건강의 개선이 목적이자 선이다. 목적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과정이다. 건강, 부, 학식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도 획득해야 할 고정된 목표를 표현하는 선은 아니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듀이, "철학의 재구성" -

개념 체크

- ① 듀이는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이/가 된다고 보았다.
- ② 듀이는 () 탐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가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듀이는 () 인간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지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도덕 판단과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정답

- ① 수단(도구)
- ② 지성적
- ③ 도덕적

[23014-0163]

01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유로우며 자유 그 자체이다.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갖지 못한 채 홀로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고받은 것이요, 세상에 내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다.

- ① 인간은 정해진 본질에 따라 삶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② 인간은 스스로 만든 삶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③ 인간은 신에 의해 구상되고 창조된 주체적인 존재이다.
- ④ 인간은 자유 자체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지닌 존재이다.
- ⑤ 인간은 보편적 이성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23014-0164]

02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절망은 주체성 있는 단독자로서 규정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신의 구원을 믿고 받아들일 만한 용기를 지니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신은 단독자 각자를 향해 “너는 믿을지이다. 즉 너는 절망하든지 믿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덧붙일 말도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은 자신의 모든 삶을 신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	✓	✓		✓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을 이해할 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		✓		✓	
절망에 빠진 인간은 객관성이 아니라 주체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	✓	✓	
신 앞에서 오직 혼자 된다는 것은 참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165]

03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현존재는 곧 나다.”라는 이 규정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언제나 어떤 자아가 이 현존재이며,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자아 그 자체, ‘주체’, 그리고 ‘자기’로부터 자연스럽게 해답을 얻게 된다. 그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행동이나 체험이 변화하더라도 동일한 자아로서 지속되며, 이들의 다양한 행동이나 체험과 관련을 맺고 있는 바로 그 자아이다. 또한 현존재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 보기 】

- ㄱ. 현존재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적인 인간 존재이다.
- ㄴ. 현존재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아간다.
- ㄷ. 현존재는 삶의 유한성을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실존을 회복한다.
- ㄹ. 현존재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66]

04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든가 이용하려고 노력하며 그 상황이 불리하거나 해로울 때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 사용해도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런 상황이 바로 한계 상황이다. 인간 실존을 가장 잘 해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다.

- ① 인간은 과학을 통해 한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 ②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
- ③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서 초월자를 경험할 수 있다.
- ④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도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 ⑤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서 참된 실존을 자각할 수 없다.

[23014-0167]

05 근대 서양 사상이 가, 현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꿀벌은 들에 핀 꽃에서 재료를 구해다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한다. 참된 학문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 얻은 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채로 기억 속에 비축할 것이 아니라, 꿀벌처럼 그것을 지성의 힘으로 변화시켜 소화하는 참된 귀납을 해야 한다.

을: 유용성으로서의 진리란 관념과 이론이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험의 재조직화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의 유용성은 손쉽고 효율적인 공적 수송과 교류의 수단으로서 실제로 기능하는지에 의해서 측정된다. 지식도 이와 같은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보기 |

- ㄱ. 갑: 학문의 과제는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ㄴ. 을: 진리는 의심할 여지없는 확고부동한 것이다.
 ㄷ. 을: 지식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인류의 진보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 가능하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23014-0168]

06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념, 이론, 사고 체계 등이 아무리 정교하고 사리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가설로 여겨져야 한다. 그것들은 최종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검사하는 행동의 토대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고집스러운 독단을 없애는 것이다. 이것은 개념, 이론, 사고 체계가 언제나 사용을 통한 발전에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들은 도구이다.

- ① 진리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가?
 ② 유용하지 않은 가치도 바람직할 수 있는가?
 ③ 학문의 내재적 가치만이 중시되어야 하는가?
 ④ 학문적 탐구는 절대적 지식을 깨닫기 위한 것인가?
 ⑤ 불변하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가치 있는 행위인가?

[23014-0169]

07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접근하는지 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악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선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덜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란,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었다 하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 보기 |

- ㄱ. 매 순간 마주하는 문제 상황마다 옳은 선택은 존재한다.
 ㄴ. 지식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이다.
 ㄷ. 도덕이나 윤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한다.
 ㄹ.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170]

08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신이 실용주의 방법을 따른다면, 당신은 당신이 추구하는 것에서 실질적인 현금 가치를 도출하고 당신의 경험 안에서 그것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해결책이기보다는 더 나은 작동에 관한 프로그램으로서 나타나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실재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방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① 모든 지식은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② 모든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③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지식만이 도덕적 지식이다.
 ④ 진리는 경험 속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⑤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행위가 존재한다.

[23014-0171]

1 중세 서양 사상가 갑,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은 부동의 제일 원동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제일 원동자는 제일 원동자보다 덜 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운동시킨다. 다른 원동자들은 제일 원동자 없이 운동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움직여지는 모든 것은 목적을 위해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신은 모든 것을 그것들의 목적을 향해 운동시킨다. 이것이 다섯 가지 신 존재 증명 중 하나이다.

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다. 이 병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침범하지만 그는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은 병의 결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최후의 것이다. 죽음에 의한 이 병으로부터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병과 그 고민 그리고 죽음은 죽을 수가 없다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 ① 갑: 인간은 신앙이 아닌 이성만으로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 ② 갑: 인간은 현세에서도 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 ③ 을: 객관적 진리는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 ④ 을: 인간은 합리적 방법을 통해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진정한 행복은 최고선인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23014-0172]

2 그림은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독자는 이성을 통하여 객관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객관적 세계가 단지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자신은 불안과 좌약으로 고통당하는 실존의 상태에 있음을 깨달으면서 신앙을 받아들일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의 실존이 본질에 앞서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어떠한 본성을 부여하며, 어떠한 설계, 개념, 본질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존재입니다.



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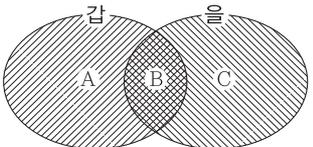


을

- 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존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인간은 주체적으로 결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인간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신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23014-0173]

3 (가)의 현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은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 만나 지며, 떠오른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본성을 구상하기 위한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없는 것이다.</p> <p>을: 한계 상황은 실존의 유한성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 좌절에서 초월자로의 비약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실존은 이런 한계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절망함과 동시에 초월자가 주재하는 현실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존재 의식을 변혁하여 본래의 자기 존재로 돌아가게 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인간은 초월자에 의지함이 없이 그 스스로가 행위 해야만 한다.
 ㄴ. B: 인간은 모두 자기 행위의 결과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ㄷ. B: 인간은 초월자의 사랑을 통해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ㄹ. C: 인간은 주체적 결단과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3014-0174]

4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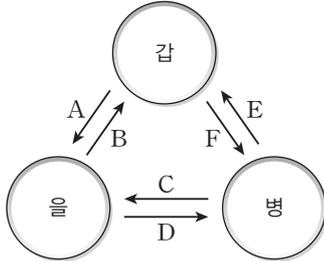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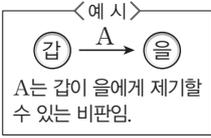
실존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탄생이란 이미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의 과거는 절대 아니며, 또 죽음은 아직 ‘현존해 있지 않은’ 것이나 언젠가는 도래할, 아직 건너지 않은 미완의 존재 양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적인 현존재는 탄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존하며, ‘죽음에 임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죽음에 도달해 있다.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사이’는 현존재가 사실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이상 현실에 ‘존재’한다. 또한 현존재는 관심으로서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 가는 존재이다.	V			V	V
인간은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한다.	V	V		V	
인간은 객관적 진리를 통해 개별적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V	V		V
인간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임을 자각하여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V	V	V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175]

5 (가)의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흥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조차도 얻지 못하게 만든다. 우상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참된 귀납법으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하는 것이다.</p> <p>을: 나는 진리 탐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버림으로써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지를 보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진리는 아주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p> <p>병: 목적이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나 한계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 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성숙시켜 가고 개량해 가는 부단한 과정이 곧 살아 있는 목적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범례> →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시> </p> </div> </div>

- ① A, C: 불변의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 지식의 유용성이 더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② B: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③ D: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 보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도덕의 과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절대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F: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삶을 개선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23014-0176]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떤 관념 또는 신념이 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것이 참이라고 해서 실제 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겨날까요? 진리는 어떻게 실현될까요? 어떤 경험이 그 신념이 거짓이었다면 얻어졌을 경험들과 다른 것인가요? 요컨대 경험적 용어에 있는 진리의 현금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물음에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참 관념은 우리가 동화시키고 정당화하며, 확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고, 거짓 관념은 그럴 수 없는 관념인 것입니다.



보기

ㄱ. 관념이나 신념은 결과와 무관하게 진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ㄴ. 진리란 신념으로서 좋다는 것이 입증된 것들에 대한 이름이다.
 ㄷ. 관념을 검증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진리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
 ㄹ. 유용하지 않은 관념은 우리에게 선택되지 않고 가치를 얻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3014-0177]

7 (가)의 현대 서양 사상이 가깝고 고대 서양 사상이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모든 사고는 결국 지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지식의 가치는 그것이 사고에서 사용되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은 고정되고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우리의 주된 일은 미래를 향한 것이며, 회고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처하는 행동에 유용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치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p> <p>을: 자신이 모르면서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서 가장 큰 무지이다. 내가 대다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테네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꾸라고 설득할 것이다.</p>
(나)	

- ① A: 진리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는가?
- ② A: 진리는 이성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 ③ B: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는가?
- ④ B: 진리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진보하는 것인가?
- ⑤ C: 진리는 각 개인의 다양한 경험에 따라 생겨나는 것인가?

[23014-0178]

8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책무는 이성의 정언적 명령 아래에서의 필연적인 자유 행위이다. 책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 어떠한 반대되는 명령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이 자유를 도덕적 능력이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가는 저절로 이해된다. 의무는 책무의 내용이며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 구속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면에서 볼 때 의무는 한 가지일 수 있다.

을: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학습되고 사용되는 것은 의식적으로 도덕적 지식으로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도덕적 지식이다. 이것은 사회적 관심을 확립하고, 그 관심을 실제적인 면에서 유용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지성을 주기 때문이다.

- ① 갑은 유용성이 아닌 의무 의식을 도덕적 행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② 을은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유용성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보편타당한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행위의 결과를 토대로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도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IV

사회사상

EBS 교재 연계 사례

학습 요소

-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과 국가론
-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 근대 민주주의의 지향과 자유 민주주의
- 자본주의의 주요 가치 및 특징들
-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윤리적 문제점들
- 동서양의 평화 사상
- 세계 시민 윤리

❶ 이 단원에서는 국가, 시민,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화 등 사회사상의 중요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사회사상의 의미와 필요성을 고찰하고, 동서양의 다양한 이상 사회론을 조사하고 탐구함으로써 윤리적 삶을 위한 바람직한 이념적 시각에 대해 탐구합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항 15번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어떤 개념이나 원칙을 근거로 삼아 불가침의 영역을 확보하든지 간에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내 활동이 간섭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의 핵심이다.</p> <p>을: 노예의 주인이 관대한 사람이라든가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와 노예 상태를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가침이 아닌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p>
(나)	

보기

- A: 간섭받지 않을 영역과 자유의 영역은 비례하는가?
- A: 자의적 지배에 의한 간섭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B: ‘~로부터의 자유’는 ‘~할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가?
- C: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法治)가 필요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12 사회사상과 이상 사회
- 13 국가와 시민
- 14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 15 평화 사상과 세계 시민 윤리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157쪽 6번

6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유는 리베르(liberté)와 세르부스(servus), 즉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를 통해 표현된다.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는 달리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

을: 자유의 정도는 인위적인 장애물이 얼마나 없는지, 다시 말해 사람이 만든 제도나 기강 때문에 또는 특정인의 활동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 길 또는 저 길을 얼마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 ① 자유로운 삶은 오직 법이 부재하는 영역에서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② '~로의 자유'가 아닌 '~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어떤 간섭에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자유로울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실질적인 간섭이 없더라도 자유의 손실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노예 제도가 사라지면 모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간과한다.

답 ④

연계 분석 및 학습 대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5번 문항은 EBS 수능특강 157쪽 6번 문항의 문항 주제를 활용하는 한편, 문항 형식을 변형하여 출제하였다. 모의평가 문항과 수능특강 문항 모두 '별린의 소극적 자유와 페탕의 비지배로서의 자유 비교 이해 능력 평가'를 출제 의도로 삼고 있으며, 모의평가 문항은 수능특강 문항의 제시문 및 일부 선택지를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관점과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관점을 비교 이해하는 문항은 최근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 특히, '~로부터의 자유', '~을 향한 자유', '간섭의 부재', '비지배로서의 자유', '법치'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과 공화주의적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료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EBS 연계 교재에는 관련 자료와 문항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만큼, 자료들과 문항 제시문 및 선택지들을 꼼꼼히 읽고 각각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인간의 삶과 사회사상의 지향

(1) 인간의 삶과 사회사상

- 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감
- ② 사회는 인간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사상이 형성됨

(2) 사회사상의 특징과 지향

① 사회사상의 특징

-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사상적 틀을 제공함
- 현실의 부조리가 개선된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실현 방안을 제시함

② 사회사상의 지향

-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과 실현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함
- 이상 사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선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함

2.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

(1) 동양의 이상 사회론

① 공자의 대동 사회

- 성인(聖人)이 다스리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됨
- 구성원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감
-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로서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

자료 플러스 공자의 대동 사회

큰 도(道)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되고 장년은 일 자리가 있으며,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는다. 남녀에게는 각자의 직분이 따로 있고,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지만 힘을 다해 일하면서도 결코 자신만을 위해 그 힘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일어나지 않고 도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예기” -

공자의 대동 사회는 성인(聖人)이 다스리는 사회이다. 대동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기 부모나 자식만을 위한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간다. 대동 사회는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이며 인(仁)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도덕 공동체이다.

개념 체크

- 1 ()은/는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사상적 틀을 제공한다.
- 2 ()은/는 큰 도(道)가 행해지고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 3 대동 사회는 ()의 정신이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도덕 공동체이다.

정답

- ① 사회사상
- ② 공자
- ③ 인

②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

-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음
-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이기(利器)에 무관심함
- 분별적 지식과 욕심이 없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감

자료 플러스 노자의 소국 과민 사회

나라의 크기는 작고 백성의 수가 적다. 많은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다. 백성들은 생명을 중히 여겨 멀리 이 사 가는 일이 없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은 다시 새끼를 꼬아서 글을 쓰고, 자기의 음식을 달게 여기며 자기 옷을 아름답게 여긴다. 또한 자기의 거처를 편안히 여기며 자기의 풍속을 즐긴다. 이웃 나라가 바라다보이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 “도덕경” -

노자는 작은 영토에 적은 수의 백성들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소국 과민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소국 과민 사회는 예(禮)와 같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를 거부하고 구성원들이 분별적 지혜와 차별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연스러움에 따라 살아가는 사회이다. 소국 과민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위자연의 삶이 실현된다.

(2) 서양의 이상 사회론

①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인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각에 어울리는 덕을 갖추고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룸
-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善)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다스림

자료 플러스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철학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거나 현재의 최고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철학을 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정치권력과 철학 중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한쪽은 거들떠보지 않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이 벌이는 작태를 철저히 금지하고 그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하지 않는 한, 나라의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플라톤, “국가” -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갖춘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이 추구한 이상 국가는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조화를 이룬 국가이다.

개념 플러스 플라톤의 이상 국가와 공유제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만드는 데 수호자에 대한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수호자는 국가의 지배자가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민 전체의 행복을 자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공공 정신이 투철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렇게 양성된 수호자는 공적 생활을 위해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 식사, 공동생활 등 생활 방식도 공유해야 한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불화는 철저한 공유제를 통해서 없앨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식도 공유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념 체크

- 1 ()은/는 구성원들이 작은 영토에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국 과민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2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각각이 다른 부류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이가 된다고 보았다.
- 3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가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 1 노자
- 2 정의로운 국가
- 3 철학자(철인)

② 유토피아(Utopia)

'U'와 'topos(장소)'를 결합한 말. 그리스어에서 'U'는 '없다(ou)'는 뜻과 '좋다(eu)'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음. 따라서 유토피아는 '없는 곳'이라는 의미와 '좋은 곳'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님

② 모어의 유토피아

- 생산과 소유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
-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
-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여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음

자료 플러스 모어의 유토피아

초승달 모양의 섬 유토피아에는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이 있다. 이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성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교육, 연구에 사용된다.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집 안에 들어가도 어느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곳의 시민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서 집을 교환한다. - 모어, "유토피아" -

모어는 당시 영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과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며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유토피아는 생산과 소유에서 평등이 실현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회이다. 유토피아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정신적 자유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③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복지가 증진되는 사회
- 인간의 지식과 기술, 과학 문명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갖는 사회

자료 플러스 베이컨의 과학 기술 사회

우리 솔로몬 학살원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사물의 여러 원인과 숨겨진 운동에 관한 지식이고, 인간 제국의 영역을 확대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규모의 깊은 동굴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을 응고하거나 경화, 냉동시키며 다양하게 보존하는 데 이 동굴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천연 광산을 본떠서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인조 금속과 물질을 만들며 그곳에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병을 고치며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갖추고 지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오래 삽니다. -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 -

베이컨은 근대 자연 과학의 발달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그는 과학 기술자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신비의 섬인 뉴 아틀란티스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그는 자연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으로써 인류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
-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노동이 사유 재산에 예속되지 않는 사회
-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어떠한 억압과 착취, 소외도 발생하지 않는 사회
-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이 되는 조건이 형성되어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개념 체크

- 1 모어는 생산과 소유에서 ()이 실현되어 누구나 풍족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2 ()은/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복지가 증진되는 뉴 아틀란티스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3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경제적 예측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정답

- 1 평등
- 2 베이컨
- 3 공산

자료 플러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

- 공산 사회에서는 노동 분업에 익숙된 개인의 노예 상태가 사라지고,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기본적 욕구가 된다. 생산력 또한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증가하고 부가 풍요로워진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마르크스, "고타 강령 비판" -
- 정치적 권력이란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 계급에 의해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과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지배 계급이 된다. 그리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계급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계급적 지배까지도 폐지하게 될 것이다. 계급과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하나의 연합체가 나타난다. 이 연합체에서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된다. -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공산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사유화에 기인한 착취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착취 구조를 극복한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고 경제적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

⑤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

-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배려하는 사회

개념 플러스 롤스의 정의로운 사회와 정의의 두 원칙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모두가 같은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1원칙: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 제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된다. 먼저, 그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며(차등의 원칙),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3) 동서양의 이상 사회론의 현대적 의의

① 이상 사회론의 의의

- 사회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규범적 기준이 될 수 있음
- 이상 사회론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으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실천 지침을 얻을 수 있음

② 다양한 이상 사회론의 현대적 의의

-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 모든 개인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을 탐구할 수 있음
- 현대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비인간화 현상을 극복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인격적 가치가 존중되는 인간다운 사회를 꿈꿀 수 있음
-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 풍토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음

개념 체크

- 1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상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에 따라 일하고 ()에 따라 분배받는다.
- 2 롤스가 이상 사회로 제시한 ()은/는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 3 롤스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으로 ()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

- 1 능력, 필요
- 2 정의로운 사회
- 3 차등

[23014-0179]

01 다음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큰 도(道)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남녀에게는 각자의 직분이 따로 있고, 힘을 다해 일하면서도 결코 자신만을 위해 그 힘을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가 일어나지 않고 도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 ① 능력보다 세습으로 사회적 직위가 결정되는 사회이다.
- ② 도덕규범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사회이다.
- ③ 구성원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회이다.
- ④ 통치자가 덕(德)보다 엄격한 상벌로써 다스리는 사회이다.
- ⑤ 재화를 분배할 때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이다.

[23014-0180]

0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추구한 이상 사회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천하에 금지하는 것이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백성들에게 편리한 기구가 많아지면 국가는 혼란해지고, 법령이 밝아질수록 도둑은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내가 무위(無爲)함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착하게 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함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된다. 내가 아무 일도 없음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음으로써 백성들은 스스로 소박해진다.”라고 하였다.

【 보기 】

- ㄱ. 분별적인 지혜를 버리고 본성에 따라 살아간다.
- ㄴ. 소규모 공동체에서 모두가 소박한 삶을 영위한다.
- ㄷ. 문명의 이기(利器)를 추구하여 윤택한 생활을 한다.
- ㄹ. 백성들이 사욕을 극복하여 인의(仁義)의 덕을 갖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81]

0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담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 성향에 따라 수립된 나라에서 전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최소 부류인 통치자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이들의 지식[識]에 의해서이다. 그들은 모든 지식 중에서도 지혜라고 불리어 마땅한 그런 지식에 관여하는 게 어울리는 유일한 부류이다.
- 철학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거나 현재의 최고 권력자들이 진실하고 충분하게 철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체(政體)가 가능한 한도까지 성장하여 햇빛을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① 국가는 계층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가?
- ② 모든 사람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을 극복해야 하는가?
- ③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 정체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④ 정의 실현을 위해 생산자 계층의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가?
- ⑤ 좋음에 관한 참된 지혜를 갖춘 사람이 국가를 통치해야 하는가?

[23014-0182]

04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화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이 섬은 같은 말과 비슷한 풍습, 시설, 법률을 가진 54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여 오전에 세 시간 일하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세 시간 일한다. 가장은 모든 상품을 갖춘 시장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가져간다. 모든 물품이 아주 풍부하고 누구도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나)	리포터: 선생님이 제시하신 이상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상가: _____ ㉠ _____

- ① 아무도 불필요한 노동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 ②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생활을 합니다.
- ③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정신적으로 자유롭습니다.
- ④ 모든 구성원이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 ⑤ 종사하는 노동의 종류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23014-0183]

05 다음을 이상 사회로 제시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술원의 목적은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해서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고 가능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있다. 다양한 곳에서 과학적 관찰과 실험을 진행하며 해수와 담수를 서로 전환하기도 하고 인공 눈과 비를 만들기도 한다. 발달한 과학 기술로 농작물은 풍족하게 생산되며, 인간의 생활은 아주 편리해진다. …(중략)… 학술원의 회원 중에는 기존의 발견 결과를 다시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원리를 도출해 내는 ‘자연의 해석자’로 불리는 사람들도 있다.

【 보기 】

- ㄱ.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사물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ㄴ. 인류는 학문의 진보를 이루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ㄷ. 삶에 유용한 지식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ㄹ. 우상을 제거하여 자연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84]

06 다음 가상 대화의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이곳에서는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다스리게 하니, 신의가 존중되고 화목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되고, 장년은 일자리가 보장됩니다. 또한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받습니다.
 을: 이곳에서는 현명한 자를 높이지 않아서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합니다. 또한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은 비우고 배를 채워 주며, 의지는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 ① 이상 사회는 무위(無爲)의 삶이 이루어진 사회인가?
 ② 물질적 풍요를 위해 기술의 발달을 추구해야 하는가?
 ③ 선악의 분별을 바탕으로 도덕 공동체를 실현해야 하는가?
 ④ 교육을 통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을 길러 내야 하는가?
 ⑤ 통치자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23014-0185]

07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동이 분화되자 개인은 하나의 일정한 배타적 영역을 갖게 되고, 이 영역이 그에게 강요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한 사람의 사냥꾼, 한 사람의 양치기, 한 사람의 어부 혹은 한 사람의 비평가이며, 그가 그의 생계 수단을 잃지 않고자 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
- 현실적 공동체 속의 개인들은 자신들의 연합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각자의 자유를 획득한다.

- 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
 ② 모든 사람이 경제적 예측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③ 시장 안에서 경쟁을 통해 재화를 분배받아야 한다.
 ④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계급 관계를 철폐해야 한다.
 ⑤ 인간은 노동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23014-0186]

08 다음은 어느 사회사상가가 쓴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께

이상 사회에 관한 선생님의 편지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가가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통치자 집단은 공동생활을 하며 개인적인 소유물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생산 수단의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 사회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분배받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고 생각합니다. …(후략).

- ①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종사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각 계층이 덕을 발휘하여 소임을 다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국가는 피지배층을 억압하므로 소멸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사유 재산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함을 간과한다

[23014-0189]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 예(禮)는 군신의 도리를 밝히고, 부자(父子)의 정을 두텁게 한다. 형제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며, 상하(上下)의 질서를 경계하고, 부부 사이를 구별한다. 이처럼 평화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것을 하늘이 복을 내려 주었다고 말한다.
-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여생을 잘 마치게 되고, 장년은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된 자와 병든 자 모두가 부양받는다. 음모가 일어나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시비의 분별을 초월하여 무위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			√	√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덕이 아니라 형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	√		√	
인(仁)의 마음을 예의 형식으로 실천하면 공동체가 조화로우 수 있다.		√	√		√
이상 사회는 혈연만을 중시하지 않고 사회적 분업이 실현된 사회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190]

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 국가를 수립할 때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느 한 집단만의 행복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국가에서는 정의가 가장 잘 발견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올바른 나라로 여겨지는 것은 성향이 다른 세 부류가 저마다 제 일을 하기 때문이며, 이 국가가 절제 있고 용기 있으며 지혜로운 나라인 것도 이들 세 부류가 처한 상이한 상태 때문이다.
- 을: 이곳의 시민들에게는 빈곤이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또한 집마다 자물쇠를 채우거나 빗장을 거는 일이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집 안에 어느 개인의 소유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현정 최고 목표는 모든 시민이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정신적 교양을 쌓도록 하는 데 있다.

- ① 갑: 국가의 선이 무엇인지 아는 철인이 정치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갑: 이상 국가는 세 부류가 고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실현된다.
 ③ 을: 구성원 각자가 국가에 이바지한 업적을 고려하여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
 ④ 을: 이상 사회에서는 육체노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지적 탐구에 힘쓸 수 있다.
 ⑤ 갑과 을: 도덕적 사회를 수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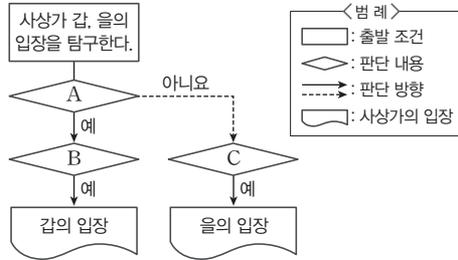
[5~6] 갑, 을은 서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초승달 모양의 섬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은 매일 6시간으로 제한되고, 8시간 잠자고 남은 시간은 정신적 오락이나 연구에 사용된다. 사람들이 살게 될 집은 10년마다 추첨으로 새로 정해진다. 그들은 집마다 딸린 정원을 관리하는 데 정성을 들이고, 포도나무를 비롯한 과실수와 화초들을 가꾼다.

을: 조합적인 사회, 즉 생산 수단을 공동 재산으로 소유하는 사회의 생산자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교환하지 않는다. 또한 생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 노동이 그 생산물의 가치로, 즉 그 생산물의 어떤 물질 속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이 사회에서는 개별 노동이 직접적으로 전체 노동의 구성 요소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23014-0191]

5 갑, 을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이상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경쟁에서 벗어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가?
 ㄴ. B: 도덕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적 여가 활동을 지양해야 하는가?
 ㄷ. C: 이상 사회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의 배타적 구분이 사라진 사회인가?
 ㄹ. C: 생산 수단의 사유화는 생산력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192]

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각 구성원의 선을 증진해 줄 뿐만 아니라 공적 정의관에 따라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다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개인이나 집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 ① 폭력 혁명을 통해 인간을 억압하는 계급 구조를 철폐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이상 사회는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식 분업이 사라진 사회임을 간과한다.
 ③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원칙이 최우선의 정의 원칙이어야 함을 간과한다.
 ④ 사유 재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재화의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지라도 인간은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국가와 윤리

1.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관점

(1) 유교

- ① 국가는 가족의 질서가 확장된 공동체임
 - 효제(孝悌)라는 가족 윤리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인의(仁義)를 실현하고자 함
 - 자식과 부모의 관계처럼 백성은 군주를 따르고 군주는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야 함
- ②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됨
 - 인륜을 강조한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관이 형성됨
 -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으로 여기고,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

자료 플러스 유교의 국가관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정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서경에 이르길 ‘효도하라, 오직 효도하라.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에 이르게 하라.’라고 하였다. 이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니, 어찌 벼슬자리에 앉아야만 정치하는 것이겠는가.”
- “논어” -

유교는 효제와 같은 가족 윤리가 국가를 다스리는 토대가 된다고 보았고, 군주는 효제의 인륜을 실현하여 백성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아리스토텔레스

- ①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임
- ② 국가는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임
- ③ 국가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덕적 능력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 공동체임

자료 플러스 국가의 기원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가 없는 자는 인간 이하거나 인간 이상이다. …(중략)…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점은 인간만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공유에서 가정과 국가가 생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정치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국가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3) 공화주의

- ① 국가는 공동선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는 시민이 모인 공동체임
- ② 국가는 시민들이 공공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지키며 정치에 참여할 때 유지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키케로의 공화주의

국가는 인민의 것이다. 인민은 무작정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선을 위해 협력한다고 동의한 다수의 결사이다.
- 키케로, “국가론” -

키케로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동의 이익을 구현하는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공화국은 ‘공공의 것’이며 ‘인민의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④ 민본주의

민본(民本)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서경”의 말에서 유래함

④ 공화국(republic)

공화국은 ‘공공의(publica) 것(res)’을 뜻하는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유래함

개념 체크

- ① 유교는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는 () 사상을 중시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개인의 자아실현과 도덕적 능력 계발을 가능하게 하는 () (으)로 보았다.
- ③ ()은/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 ① 민본주의
- ② 도덕 공동체
- ③ 키케로

(4) 사회 계약론

- ① 국가는 시민이 자신의 생명, 안전, 자유를 보장받고자 계약에 참여하여 만든 것임
 - 홉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함
 - 로크: 자연 상태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함
- ② 국가는 원래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 인간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고 만들어 낸 수단임
- ③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설에 영향을 줌

자료 플러스 국가의 기원에 대한 사회 계약론의 입장

- 원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의 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 보존과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생활에 대한 전망이나 예상에 기인한다. 즉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홉스, “리바이어던” -
-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의 힘으로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연합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사회 계약으로 이루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연합 형태에 따라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처럼 자유를 잃지 않는다. - 루소, “사회 계약론” -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국가의 기원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동의한 계약에 있다고 보았다. 각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5) 마르크스

- ①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것임
 - 사유 재산이 생겨나고 계급이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지배 계급의 수단으로 국가가 등장함
 - 국가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임
- ② 역사의 필연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국가는 소멸할 것임
 -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거쳐 계급과 국가가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임
 - 국가 소멸 후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국가를 대체할 것임

자료 플러스 마르크스의 국가관

매뉴팩처 시대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과 맞먹는 계급으로 성장하여 군주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계급은 마침내 대규모 공업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이후로 지금의 대의제 국가에서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였다. 지금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동된 사업을 관장하는 하나의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 계급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지배 계급인 자본가 계급의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개념 체크

- ① 사회 계약론에서는 국가를 ()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② ()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 ③ 마르크스는 국가를 () 계급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정답

- ① 국민
- ② 홉스
- ③ 지배

2.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1) 유교

- ① 민본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설명함
 - 백성의 뜻은 곧 하늘의 뜻이므로 군주는 위민(爲民) 정치를 펼쳐야 함
 - 군주는 법이나 형벌보다는 덕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함
- ② 국가는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덕치: 통치자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할 때 백성들도 덕을 쌓게 됨
 - 덕치의 실현을 위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해야 함
 - 국가를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로 인식함
- ③ 맹자: 군주가 제 역할을 못해서 통치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군주가 교체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유교의 민본주의

하늘이 들고 보는 것은 백성이 들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 또한 백성을 통하여 밝히고 두렵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늘과 백성은 서로 통하는 것이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을 공경해야 한다.
- “서경” -

유교는 민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바른 정치라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가 해야 할 일은 민본 정치를 통해 위민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2) 아리스토텔레스

- 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
 - 인간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길러 영혼의 탁월성을 온전히 발휘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
 - 인간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려면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함
- ② 국가는 시민이 영혼의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자료 플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모든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상위이며 나머지 공동체들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나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그는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 좋은 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3) 공화주의

- ① 국가의 역할은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임
 - 국가는 구성원이 시민적 덕성을 기르도록 돕고 공적인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를 마련해야 함
 -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함
- ②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할 때 국가는 정당성을 상실함

개념 체크

- ① 유교는 천명사상에 근거하여 ()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고 본다.
- ② ()은/는 국가가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탁월하게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 ③ 공화주의는 국가가 ()을/를 실현하는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한다.

정답

- ① 백성
- ② 아리스토텔레스
- ③ 공동선

❶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 계설

- 원시 공산 사회(무계급)
- 고대 노예제 사회(자유민 ↔ 노예)
- 중세 봉건 사회(영주와 귀족 ↔ 농노)
- 근대 자본주의 사회(자본가 ↔ 노동자)
- 공산주의 사회(무계급)

개념 체크

- 1 공화주의 사상이 마키아벨리는 ()을/를 위협하는 당파가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보았다.
- 2 ()은/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시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3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와/과 계급, 국가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 ① 공화국
- ② 로크
- ③ 사유 재산

자료 플러스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

국가의 자유를 수호할 임무가 있는 자에게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시민을 탄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화국에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시민들이 고발당할까 두려워서 국가에 반역을 꾀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국가가 당파적 증오를 해소할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는 합법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출구를 갖지 못할 때 공화국 전체를 몰락시키는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파적 증오를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법률을 통해 열어 놓는 조치만큼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

마키아벨리는 소수가 공화국의 권력을 독점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통치자는 공화국을 위협하는 당파가 있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사회 계약론

- ① 개인의 생명과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국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음
- ② 로크: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동선을 해친다면 시민들이 정치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로크의 저항권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信託)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그 권력은 인민에게 되돌아가며 인민은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함으로써 바로 그들이 사회에 가입한 목적, 즉 자신의 안전과 안보를 강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로크, "통치론" -

로크는 국가가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는 입법권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면 시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입법부를 세울 수 있다고 보았다.

(5) 마르크스

- ① 국가는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임
- ② 사람들이 기존 계급 구조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국가가 사회 구조와 제도를 만들
- ③ 정의로운 국가라는 관념도 종국에는 사라질 것임

자료 플러스 마르크스와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들이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 속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을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무너지고 사유 재산과 계급은 물론 국가도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 시민과 윤리

1.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1) 자유주의적 관점

- ①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 → 자연권은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임
- ②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집단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
- ③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함 →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로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음

자료 플러스 **벌린의 소극적 자유**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인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나는 강제당하거나 혹은 노예 상태에 처한 것이다. - 벌린, "자유의 두 개념" -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2) 공화주의적 관점

- ① 인간의 상호 의존성을 중시하며 시민을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라고 봄
- ②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참여 및 공동체의 법과 제도적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봄
- ③ 시민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서 공공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시함
- ④ 현대 공화주의자들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함
 - 비지배로서의 자유: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
 - 자유의 실현은 법에 의한 지배로 인해 가능함: 공화국의 시민은 시민의 참여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음

자료 플러스 **공화주의의 비지배로서의 자유**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노예 상태의 반대라고 규정하고,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하는 데 이견이 없다. 노예는 실질적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에 의해 특징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는 매우 중요하다. 노예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 페팅, "신공화주의" -

현대 공화주의자인 페팅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외부의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보고 자의적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 자연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권리로서 천부 인권이라고도 함

📌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의 관점

- 개인의 자유는 타인이나 국가가 침해하거나 강제로 박탈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임
-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의무가 충돌할 때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함
-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함
-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임

📌 정치 참여에 대한 공화주의의 관점

-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정치 참여를 강조함
- 덕성을 함양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정치 참여를 시민의 책무로 여김
-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권리 추구보다 정치적 의무 수행을 우선시함

개념 체크

- 1 자유주의는 ()을/를 바탕으로 하여 집단의 권위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
- 2 ()은/는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보았다.
- 3 공화주의는 ()의/서로 자유가 아니라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로 본다.

정답

- 1 개인주의
- 2 벌린
- 3 불간섭

●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입장**

- 자유주의: 개인선의 총합
- 공화주의: 개인선의 단순한 총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을

● **공화주의의 애국심**

- 시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 주는 조국에 대한 인위적인 열정임
- 구성원들 간의 주종적 지배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애국이 참된 애국임
-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속된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민족주의적 애국심이나 헌법의 기본 이념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성을 강조한 자유주의의 애국심과 차이가 있음 →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특정 공화국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뜻함

개념 체크

- 1 자유주의는 ()이/가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며 중립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 2 ()은/는 국가가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3 공화주의의 애국심은 시민적 덕성으로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을/를 의미한다.

정답

- ① 국가
- ② 공화주의
- ③ 사랑

2.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1) 자유주의적 관점

- ① 공동선보다는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함
- ② 법치의 목적: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국가는 중립을 지키며 법과 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함
- ③ 타인이나 집단,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는 관용을 중시함
 -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취향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허용되고 존중되어야 함
 - 관용은 개인의 삶과 신념, 그가 누리는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임
- ④ 헌법적 애국심: 국가의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충성을 의미함 → 애국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료 플러스 밀의 자유주의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서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각자가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또 유일하게 자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이다. - 밀, "자유론" -

밀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공화주의적 관점

- 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함 →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함
- ② 법치의 목적: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와 그로 인한 시민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 → 법치를 통해 시민적 덕성과 법 앞의 평등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함
- ③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과 통합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덕목이 필요함
- ④ 애국심: 정치 공동체와 시민 동료들을 향한 대승적 사랑, 시민의 덕성이자 기본적 책무임

자료 플러스 비롤리의 공화주의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 비롤리, "공화주의" -

현대 공화주의자인 비롤리는 자기들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은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면 그들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소중한 경험을 발견하고, 그러한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공화국을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014-0193]

0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군자의 도(道)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몸가짐이 공손하고, 윗사람 섬김이 공경스러우며, 백성을 기쁨이 은혜롭고, 백성을 부리는 것이 의롭다.
- 자기 몸의 처신이 바르면[正]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다. 자기 몸의 처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 ① 국가 통치 원리는 가족 공동체 윤리와 무관하다.
- ② 예(禮)를 통해 백성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 ③ 통치자는 의로움[義]보다 이익[利]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④ 군자는 시비를 따지지 않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이다.
- ⑤ 임금이 덕을 갖추어 모범을 보여야 백성이 복종할 수 있다.

[23014-0194]

02 (가)를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일반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지닐 수 없다.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며 간사하고 사치스러워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한 후에 그들에게 벌을 내린다면 마치 백성들을 그물질하여 잡는 셈이다. 어찌 어진 사람[仁人]이 통치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제자: 바람직한 국가 통치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스승: _____ ㉠

- ① 백성들의 마음을 곧 하늘의 마음으로 여깁니다.
- ② 백성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씁니다.
- ③ 백성들을 패도로 다스림으로써 사회 혼란을 해결합니다.
- ④ 백성들을 교화하여 조화로운 도덕 공동체를 실현합니다.
- ⑤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도록 합니다.

[23014-0195]

0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국가는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다. 왜냐하면 인류는 항상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하고자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공동체가 어떤 선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상위이며 나머지 공동체들을 포함하는 국가나 정치적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나은 선 또는 최상위의 선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보기 】

- ㄱ.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한 계약의 산물이다.
- ㄴ. 인간은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참여해야 한다.
- ㄷ. 국가의 최고선과 인간의 최고선은 별개의 것이다.
- ㄹ. 인간은 국가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96]

04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모든 인간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와 자연 법상의 권리 및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타인의 공격과 권리 침해로부터 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할 권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정치 사회도 그 자체 내에 재산을 보존할 권력과 이를 위해서 그 사회의 모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존재하거나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적 권력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 보기 】

- ㄱ. 자연 상태는 곧 전쟁 상태이므로 불평등이 존재한다.
- ㄴ. 국가는 통치 권력을 분립하여 시민을 다스려야 한다.
- ㄷ. 인간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통제를 받아들인다.
- ㄹ. 국가는 공공을 위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197]

05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부르주아 계급은 각각의 발전 단계에서 그에 걸맞은 정치적 진보를 이루었다. 그들은 봉건 영주들의 지배 아래에서는 피억압자 신분이었으며, 코뮌에서는 무장한 자치 연합체였다. 그다음에 매뉴팩처 시대에서 부르주아 계급은 귀족과 맞먹는 계급으로 성장하여 군주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 계급은 마침내 대규모 공업과 세계 시장이 형성된 이후로 지금의 대의제 국가에서 독점적인 정치적 지배권을 쟁취하였다. 지금의 국가 권력은 부르주아 계급 전체의 공통된 사업을 관장하는 하나의 위원회에 지나지 않는다.

- ① 국가는 모든 인간의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구한다.
- ② 국가는 지배 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 ③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라 형성된 산물이다.
- ④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이상적인 기관이다.
- ⑤ 국가는 자기 보존을 위해 개인들이 합의하여 구성된다.

[23014-0198]

0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노예 상태의 반대라고 규정하고,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하는 데 이견이 없다. 노예는 실질적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배에 의해 특징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조는 매우 중요하다. 노예의 주인이 전적으로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 주인은 여전히 노예를 지배한다. 자유를 노예 상태와 대조하는 것은 자유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고 보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 ① 인간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② 자유는 자의적인 권력이나 지배의 부재 상태이다.
- ③ 인간은 누구나 법을 통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④ 인간은 누구에게도 사적으로 지배받지 않아야 한다.
- ⑤ 어떤 간섭도 없을 때 비지배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

[23014-0199]

07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롭다고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란 그저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인 때문에 그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에는 강제당하거나 혹은 노예 상태에 처한 것이다.

보기

- ㄱ. 참된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되는 상태이다.
- ㄴ.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ㄷ. 국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하여 자아실현을 도와야 한다.
- ㄹ. 진정한 자유는 어떤 권력 기관도 없을 때 달성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200]

08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지난번에 보내 준 편지는 잘 읽었다. 오늘은 네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해 주고 싶구나. 인간의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정부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이 자유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어떤 정부 형태든지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서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리고 각자가 개성에 맞게 자기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라면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지.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 (후략).

- ① 인간이 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는 없다.
- ②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의견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이익 보장보다 공동선의 실현을 우선시해야 한다.
- ④ 행위 당사자에게 유익한 행위라면 국가가 강제해야 한다.
- ⑤ 남에게 해가 안 된다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3014-0203]

3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갑은 동양 사상가, 을은 서양 사상가이다. 두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한다. 이렇게 잔악하고 도적질하는 사람을 일개 한 사내[一夫]라고 한다. 일개 한 사내인 주(紂)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다음이며, 임금이 가장 가볍다.

을: 입법부가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자신들의 수중에 장악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자들의 수중에 넘겨줌으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을 침해하게 되면 언제나 그들은 인민이 그것과는 상반된 목적으로 그들의 수중에 맡긴 권력을 신탁(信託) 위반으로 상실하게 된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국가 통치자는 법으로써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것보다 덕으로써 인을 행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 도덕적인 국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서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을은 ㉢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은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 시민의 재산 보존을 위해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권을 시민 각자에게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국가 통치자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통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014-0204]

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국가는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 목적은 가능한 최선의 삶이다. 그런데 최선의 삶은 행복이고, 행복은 미덕의 구현과 완전한 실천에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을: 국가는 다수의 사람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인격을 지닌 자가 주권자로 불리며, 주권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그의 백성이다. 인간이 국가 속에서 구속을 스스로 부과하는 원인은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 ① 갑: 인간과 인간 집합체인 국가가 추구하는 선은 모두 훌륭한 삶이다.
 ② 갑: 국가는 구성원들이 탁월성을 발휘하도록 도덕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③ 을: 다수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계약하여 발생한 통치자의 권력은 절대적이다.
 ④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⑤ 갑과 을: 인간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23014-0207]

7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국가는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권 일부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수립된다. 이러한 국가는 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하고 공공선의 실현을 추구한다.</p> <p>을: 국가는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해 조직된 힘에 지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도래할 것이다.</p> <p>병: 국가는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같은 좋은 삶을 충족할 때 자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족적인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결사체의 최후 형태이자 궁극 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선의 단계이다.</p>
(나)	<p><범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일부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국가에 저항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D: 국가가 모든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 ③ C: 국가는 개인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공동체임을 간과한다.
- ④ E: 국가는 사회 계약 당사자들의 자기 보존을 위한 계약의 산물임을 간과한다.
- ⑤ F: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서 비롯한 것임을 간과한다.

[23014-0208]

8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자유가 전체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그 정부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자유가 절대적이고 조건 없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라는 이름에 합당한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의 행복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즉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그 주권이 개인에게 있다.

을: 공화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모든 예속의 조건에서 개인들을 해방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유주의자가 걱정하는 것은 개인적 행동의 자유가 실제로 억압되고 제한받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화주의자는 이러한 것도 우려하지만 예속적 삶이 가져오는 의기소침을 더 우려한다. 오늘날 많은 민주주의 사회들의 시민적 문화는 자의적 권력과 예속적 상태가 계속되면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데, 공화주의는 이러한 결과로 병들어 버린 민주주의를 치료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① 갑: 사회가 설정한 사회적 타월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각자의 방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③ 을: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이 갖는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 ④ 을: 시민이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목적은 공공선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실현에 있다.
- ⑤ 갑과 을: 국가는 정치 영역에서 시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회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23014-0209]

9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외부에 의한 억압이나 타인 때문에 어떤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우리는 강제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에 의한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과 애착들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억압할 수 있는 주인이 존재한다면 종속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움츠러드는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된다. 노예는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초원이나 해변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주인이 나타나면 그 노예의 달콤한 시간은 바로 사라지게 된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 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

- ㄱ. 갑: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면 타인에 의한 강제는 용납될 수 있다.
 ㄴ. 을: 개인의 자유 보장과 공공선의 극대화는 양립하여 실현될 수 있다.
 ㄷ. 을: 법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간섭은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
 ㄹ. 갑과 을: 국가는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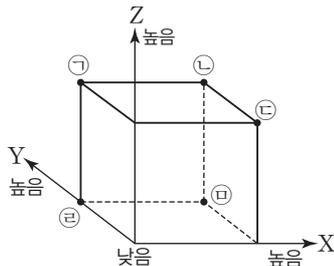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3014-0210]

10 사회사상 (가)의 입장에 비해 사회사상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중심적 가치로 추구한다. 그런데 이를 개인들 상호 간에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도덕 및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자율성에 중요성을 우선 부여해야 한다.

(나) 우리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공화국 안에서 시민이 다른 시민에게 지배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실천하는 것을 추구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공동체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곳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 X: 공동체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책무성을 중시하는 정도
- Y: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는 정도
- Z: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의 가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민회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 있었던 시민 총회.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 정치가 실현되는 바탕이 되었음. 민회에서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들이 국가 중요 정책들을 직접 결정하였음

개념 체크

- ()은/는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 민주주의의 기원은 ()을/를 통한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다.
- 페리클레스의 추도사에는 모든 () 시민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담겨 있다.

정답

- 1 민주주의
- 2 민회
- 3 아테네

민주주의

1. 근대 민주주의의 지향과 자유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기원과 원칙

① 민주주의의 의미

- 민주주의(democracy): 그리스어로 ‘인민’을 뜻하는 ‘demos’와 ‘통치’를 뜻하는 ‘kratos’가 합쳐진 용어
- 인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으로 ‘인민 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함

②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

-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찾을 수 있음
- 성인 남성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에서 주요 사항을 토론·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시행되었음
- 법원의 배심원을 포함한 거의 모든 관직을 추첨을 통해 시민에게 맡겨 평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였음
- 아테네의 자유로운 성인 남성만을 시민으로 규정하여 여성과 노예, 외국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기에 오늘날 보편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음

③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과 기회의 원칙 → 나이, 성별, 사회적·경제적 지위,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원칙 → 주권자가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부와 국회의 운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자료 플러스 페리클레스의 추도사

우리의 정체(政體)는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이라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정치가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들을 추도하기 위한 그의 연설에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모든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 공동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았고, 민주적 의사 결정에 이르는 방법으로 시민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였다.

(2) 근대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① 사회 계약 사상의 의의: 절대 왕정 시대의 억압적인 정치 질서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근대 자유 민주주의 확립에 사상적 토대가 됨

②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 아래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가나 통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함 →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게 됨
- 국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법치주의, 권력 분립(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함

자료 플러스 로크의 사회 계약 사상

자연 상태에서 당연하는 폐단, 곧 모든 사람이 가진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행사됨으로써 생기는 폐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성역으로 도망가며 거기서 그들 재산의 보존을 꾀한다.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信託)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 로크, "통치론" -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타고난다고 보았으며 타인의 자연권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가 구성된다고 보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만 사회 상태로 옮겨 가면서 사유 재산의 발생과 함께 불평등과 예속의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됨 →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고 시민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음
- 스스로가 주권자이고 입법권을 지닌 공동체 내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자유에 상응하는 시민적 자유를 지니게 됨
-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하는 것이며, 주권은 엄연히 국민에게 있음

④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근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하여 자유 민주주의로 발전함
- 밀: 근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부를 좋은 정부로 보고 사회나 국가가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함
-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함

2.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 시민의 자세

(1) 현대 민주주의의 규범적 특징

① 엘리트 민주주의

-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정치가의 지배라고 규정하며, 시민의 역할을 정치를 선출하는 것으로 제한함
- 한계: 시민이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 의식을 갖기가 어려우며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로크와 루소의 자연 상태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롭지만 자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봄. 루소는 자연 상태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였으나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 상태가 되었다고 봄

❖ 루소의 일반 의지

각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

개념 체크

- 1 ()은/는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권의 향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2 ()은/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공동선)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인 일반 의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보다는 정치가의 지배라는 성격이 강한 민주주의이다.

정답

- 1 로크
- 2 루소
- 3 엘리트

●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 정당화 요건

전체적으로 건전한 법치 국가에서 행해져야 함. 헌법을 정당화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 다수의 통찰력과 정의감에 호소할 의도에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시민 불복종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함

개념 체크

- ① 참여 민주주의는 다수의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에게 확대하는 특성을 지닌다.
- ② ()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적 심의를 강조한다.
- ③ ()은/는 합법성이 곧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나면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 ① 참여
- ② 심의
- ③ 하버마스

자료 플러스 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인민의 표를 얻는 데 성공한 결과로서,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 (중략) ...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다만 인민이 그들을 지배할 예정인 사람들을 승인하거나 부인할 기회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 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쉘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따라서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의 역할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② 참여 민주주의

- 다수의 시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 예) 자문 위원회, 공청회 및 청문회 참여, 시민 단체 활동이나 국민 감사 청구, 행정 소송 제기 등
-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를 시민 전체에게 확대함
- 한계: 참여한 시민이 이기적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음

③ 심의 민주주의

-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과 전문가 및 공직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심의를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활성화되어 시민들 사이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음
- 한계: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심의 결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 민주 시민의 자세

- ①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세: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② 소로의 시민 불복종: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양심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음
- ③ 롤스의 시민 불복종
 -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임
 -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며,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불복종이 이루어져야 함
- ④ 하버마스의 시민 불복종
 -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날 때 시민 불복종이 가능함
 -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마지막 가능성이며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임

Ⓢ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어

(1)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① 자본주의의 의미: 사유 재산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윤 추구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② 자본주의 등장의 사상적 배경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며 경제적 영역에서도 자유로운 생산과 교환 등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프로테스탄티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뱅은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보고 직업적 성공에 따른 자본의 축적을 도덕적·종교적으로 정당화함 • 근면, 검소, 성실을 강조하며 합리적 이윤 추구를 긍정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바탕이 됨

③ 자본주의 전개 과정과 규범적 특징

고전적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사상 및 정책 •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고 봄 • 대표 사상가: 애덤 스미스
수정 자본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등장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장함 •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봄 • 대표 사상가: 케인스
신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는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80년대를 전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등장함 •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며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음 • 대표 사상가: 하이에크

Ⓢ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이익(개인의 이익)과 공익(사회 전체의 이익)을 일치시킴으로써 시장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고 보았음

개념 체크

- 고전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은/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에 반대하였다.
- ()으로 대표되는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였다.
- ()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 기구의 축소, 세금 감면 등을 주장하였다.

정답

- 스미스
- 케인스
- 하이에크

자료 플러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이야기한다.
- 스미스, "국부론" -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의 입장에서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공공 토목 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천민자본주의

돈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성을 상실하고 독점, 투기, 불로 소득에 대한 집착, 정경 유착 등을 추구하는 타락한 자본주의

❖ 가치 전도 현상

가치의 순서나 위치가 거꾸로 되는 것. 본래적·정신적 가치보다 도구적·물질적 가치를 앞세우며 이에 집착하는 것

❖ 황금만능주의

돈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 돈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나 태도

❖ 물신 숭배

상품이나 화폐 따위를 신처럼 숭배하는 일. 마르크스는 상품이 노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화폐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독자적인 힘을 지닌 것처럼 여겨 오히려 신앙 또는 숭배의 대상이 된다며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함

개념 체크

- () 자본주의는 돈에 집착한 나머지 공정성을 상실한 타락한 자본주의를 말한다.
- 물질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물질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하거나 물질적 가치만 좇아 인간성을 상실하는 ()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정답

- 천민
- 인간 소외

자료 플러스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 재무부 관리들이 낡은 병들에 지폐를 가득 채워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탄갱을 지면까지 도시의 쓰레기로 덮은 후 사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 파급 효과에 의해 사회의 실질 소득과 자본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 케인스,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 -
- 자유주의는 대개의 경우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 하이에크, "노예의 길" -

케인스는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국민들의 소비 저하로부터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가 다양한 공공 정책을 펼치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문제도 완화하고 국민이 기본적인 실제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유효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하이에크는 국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 전체주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자유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2)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로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을 보호하고 증진함 개인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함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됨
경제적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함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경제 활동에 온 힘을 다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됨

2.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1) 자본주의의 한계와 비판

빈부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기회나 소득 분배에서 불평등이 초래됨: 개인 간에는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가 있고 교육의 정도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 또한 노력과는 무관하게 부의 상속 등과 같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함 어느 정도의 빈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가 양극화되어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파괴됨
물질 만능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에 집착할 경우 양심과 인간다움을 보존하고 추구하려는 정신을 상실하게 되고 천민자본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게 됨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할 경우 물질이 본질적 가치가 되고 인간의 존엄성 같은 정신적 가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도 현상을 낳게 되어 황금만능주의와 물신 숭배로 이어짐
인간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도한 노동과 이에 따른 강한 압박감 등이 인간의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이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초래하게 됨 상품을 인간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을 상품을 만드는 기계나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남

(2)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시도

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

-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함께 발표한 '공산당 선언'을 통해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함

-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투쟁 → 자본주의 붕괴 → 프롤레타리아 독재 → 계급 없는 공산 사회의 필연적 도래’를 주장함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가에 의해 강제되고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은 노동자에게 귀속되지 않음 →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자본가의 생산 수단 사유화로 인해 빈부 격차와 같은 문제가 심화된다고 보고 생산 수단을 공유화하여 경제적으로 평등한 계급 없는 공산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함
- 레닌 주도의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사상적 배경이 됨

자료 플러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 단계에서야(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자아실현은 물질적 생활과 일치하는데, 이는 개인이 총체적 개인으로 발전하는 것과 상응한다. 그리고 그때서야 노동이 자아실현으로 전환되고, 단결한 개인들에 의한 총체적 생산력의 전유와 함께 사적 소유는 종말을 고한다. - 마르크스·엔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설명하고 계급 투쟁을 통해 다음 단계의 사회로 넘어간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자본가(부르주아)와 노동자(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계급 투쟁으로 붕괴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 사회가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② **민주 사회주의**

-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하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을 선포함
- 소련식 사회주의의 급진적 폭력 혁명론을 비판하고 자유로운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통한 민주적 방법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추구할 것을 강조함
-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수공업·소매업·중소 공업 등의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함
- 사회 보장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여 서구 복지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함

자료 플러스 **민주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달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신봉자 하나하나의 공헌을 필요로 한다. 전체주의적 방법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피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국민들의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는 최고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 ‘프랑크푸르트 선언’ -

민주 사회주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통해 건설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는 급진적인 폭력 혁명을 추구한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의회 민주주의의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려는 것이었다.

③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

-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품격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해야 함
-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경제 행위를 해야 함
- 모든 국민이 실업과 빈곤, 재해와 질병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실시해야 함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1951년 민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각국 정당들이 모여 만든 국제 조직으로, 민주적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함

개념 체크

- 1 마르크스주의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 투쟁을 거쳐 자본주의가 붕괴되고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 공산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았다.
- 2 민주 사회주의는 () 와/과 결별하고 의회 활동 중심의 점진적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 3 마르크스주의가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주장한 반면, ()은/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 수공업 등 중요한 부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였다.

정답

- 1 계급
- 2 마르크스주의
- 3 민주 사회주의

[23014-0211]

01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고, 각자가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공동체에 계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 사회 또는 시민 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최고의 통치권력인 입법부 아래에서 하나의 인민, 하나의 정치체를 결성하고자 사회에 가입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 ① 자연권은 사회 계약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 ② 자연 상태의 본질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 ③ 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부에 저항할 수 없다.
- ④ 입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까지 행사해야 한다.
- ⑤ 사회 계약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로 체결된다.

[23014-0212]

02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사회 계약의 본질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는 데 있다. 이러한 결합체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를 전체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사회 계약을 하는 순간 각 계약자의 사적인 인격은 사라지고,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단체, 곧 공적인 인격이 형성된다.

- ① 사회 계약을 통해 주권은 국가에 양도되고 분할된다.
- ②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형벌권을 갖는다.
- ③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자연 상태의 불평등이 해소된다.
- ④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개개인 은 모든 자유를 잃게 된다.
- ⑤ 일반 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특수 의지의 단순한 총합이다.

[23014-0213]

03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의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단지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주의의 과정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지도자 후보들이 벌이는 자유 경쟁이다.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통치라고 할 수 있다.

「 보기 」

- ㄱ.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득표 경쟁을 하는 제도적 장치인가?
- ㄴ. 시민은 정치가의 활동에 상시적으로 간섭할 수 있어야 하는가?
- ㄷ. 통치는 정치가가 하고 시민은 정치가를 선출하는 역할만 해야 하는가?
- ㄹ. 시민은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하여 편견 없고 합리적인 견해를 견지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214]

04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시민 불복종을 통해 우리는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위법 행위이다.
- ②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이다.
- ③ 부정의한 체제의 변혁은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아니다.
- ④ 다수자가 지지하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도에서 이루어진다.

[23014-0215]

05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공익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가 국외 산업보다 국내 산업을 선호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한 경우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익을 증진한다.

보기

ㄱ. 시장에서 사익과 공익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ㄴ.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ㄷ. 자유 경쟁 체제는 국가 경쟁력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ㄹ.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216]

06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세상은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항상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될 수도 없다. 개인이 서로 고립된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회적 이익의 실현은 희미해지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다.
- 재무부 관리들이 몇 개의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적당한 깊이로 묻고 탄갱을 지면까지 쓰레기로 채워 넣은 후, 개인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보기

ㄱ. 정부는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ㄴ. 정부는 가격 기구의 자동 조절 기능을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
 ㄷ. 정부는 시장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ㄹ.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07~08] 다음은 사회사상가의 주장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그 형태가 민주적이라 하더라도 중앙 집권 기관에서 경제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독재 정치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를 파괴할 것이다. 더 큰 자유에 대한 약속은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의 하나이지만, 자유로 가는 길로 약속된 것이 실제로는 노예로 가는 첩경이다.

[23014-0217]

07 위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윤 추구를 보장해야 한다.
- ②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정부 규모는 커져야 한다.
- ③ 국가는 복지를 위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해야 한다.
- ④ 계획 경제는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 ⑤ 사회주의는 폭력 혁명이 아닌 민주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23014-0218]

08 다음 사회사상의 입장에서 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주의자가 인류를 분열시키는 자본주의의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와 정의를 달성하려는 데 비해 공산주의자는 오로지 일당 독재를 실현하기 위해 계급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자유 없이는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충분히 실현된다.

- ① 정부 정책으로 사회 보장을 추구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 ②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함을 간과한다.
- ③ 폭력 혁명이 아닌 점진적 개혁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시민은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만을 추구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개인의 자유와 계획 경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23014-0219]

1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갈 때 자신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유와 평등, 자연법의 집행권을 사회의 선(善)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 권력인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사람들이 그 자신과 자신의 자유, 자신의 재산을 더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떠한 이성적 피조물도 현재보다 더 나쁘게 만들 의도로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을: 사람들이 사회 계약으로 잃는 것은 자연적 자유, 마음이 끌리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이다. 반면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 소유물에 대한 재산권이다. 개인 힘의 범위에서만 누리는 자연적 자유와 일반 의지에 의한 힘의 총화(總和)를 기반으로 누리는 시민적 자유는 구별되며, 개인 힘이나 선점자의 권리에 근거한 소유물과 명확한 자격에 근거한 재산권은 구별된다.

- ① 갑: 시민의 자유와 재산 보호를 위해 국가 권력은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 ③ 을: 사회 계약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④ 을: 주권은 오직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사회 계약은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23014-0220]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 혹은 정부를 조직할 중간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이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의 표를 얻는 경쟁을 함으로써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을: 시민의 공적 심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특징이다. 시민은 정치 문제에 관하여 심의할 때, 의견을 교환하고 지지 근거를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이 토론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시민 각자의 의견은 사적 이익이나 비정치적 이익에 입각한 고정된 것이 아니다.

보기

- ㄱ. 갑: 국민은 정치가를 선출하되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겨야 한다.
- ㄴ. 을: 정치적 선택은 공적 심의의 결과일 때에 정당화될 수 있다.
- ㄷ. 을: 시민은 정치가와 달리 정치 문제를 이성적으로 숙고할 수 없다.
- ㄹ. 갑과 을: 민주주의는 정치가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지배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3014-0223]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주인이지만 그 향유가 불확실하고,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자유·재산의 상호 보존을 위해 사회를 결성하거나 사회에 가입하게 된다.</p> <p>을: 자연 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전쟁을 한다. 이런 가혹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정념과 이성에 의해서이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용품에 대한 욕망, 생활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을 알려 준다.</p>
(나)	

보기

ㄱ. A: 인간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인가?
 ㄴ. B: 시민은 신약을 위반한 권력을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가?
 ㄷ. C: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자에게 저항할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가?
 ㄹ. C: 자연 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없기에 정의와 불의의 구별도 없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3014-0224]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재산의 무절제한 향락에 맞서 싸웠으며 소비, 특히 사치성 소비를 억압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전통주의적 경제 윤리의 장애로부터 재화 획득을 해방하는 심리학적 결과를 낳았고, 또 이익 추구를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이 직접 원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질곡을 분쇄해 버렸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은 기독교적 금욕주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노동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			✓	✓	
프로테스탄트의 경제 윤리는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	✓		
프로테스탄트는 직업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을 긍정하였다.	✓	✓			✓	
프로테스탄트는 기업가의 영리 추구는 소명이 아니라고 보았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3014-0225]

7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이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특혜를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모든 제도가 철폐되면 자연적 자유의 제도가 확립된다. 이 제도 속에서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누구와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이익 증진을 가져온다.

을: 개인이 분업에 익숙된 상태가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지면,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 욕구가 되면, 개인들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생산력이 증가하여 집단적 부가 풍요로워지면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각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 ① 시장은 사익과 공익의 자연스러운 일치를 가져옴을 간과한다.
- ② 노동자의 복지 보장을 위해 강력한 국가가 존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말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④ 분업의 확대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자본가는 계속 협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23014-0226]

8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적 이익이 사적 이윤보다 우선하는 체제로 바꾸려고 한다. 사회주의 정책의 경제적 목적은 완전 고용, 보다 높은 생산, 생활 수준의 향상, 사회 보장 및 소득과 재산의 공정 분배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자유 속에서 민주주의적 수단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나) 국가는 부분적으로 조세 제도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자율 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소비 성향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더욱이 이자율에 대한 금융 정책의 영향력은 최적의 투자율을 결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이다.

- ① (가): 정의로운 소득 분배를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 ② (가):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사회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래함을 알아야 한다.
- ③ (나):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 ④ (나):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증진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정부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1. 동서양의 평화 사상

(1) 동양의 평화 사상

① 유교

-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갈등의 원인이므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仁)과 의(義)를 실현해야 함
- 통치자는 인과 의를 바탕으로 덕치(德治)와 인정(仁政)을 펼쳐야 함
-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 수제치평(修齊治平)을 제시함
- 도덕성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사는 대동 사회를 유교적 이상으로 봄

② 묵자

-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仁)은 준비친소를 구분해서 실천하는 차별적 사랑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봄
-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겸애(兼愛)를 주장함
-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며 타국을 정복하거나 침략하기 위한 전쟁을 반대하는 비공(非攻)을 주장함
- 통치자는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해악을 제거해야 하므로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함
-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해치는 침략 전쟁은 정의롭지 못함
- 전쟁은 침략하는 나라와 침략당하는 나라 모두에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정의롭지 못함
- 전쟁은 무수한 인명 피해를 초래해 국가 쇠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정의롭지 못함

자료 플러스 묵자의 평화 사상

서로 믿음으로써 사귀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하면 곧 함께 그를 구해 주고, 작은 나라의 성곽이 온전치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수리해 줄 것이며, 옷감이나 곡식이 모자라면 그것을 보내 주고, 예물용 폐백이 부족하면 그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 “묵자” -

묵자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겸애를 주장하면서, 서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로우심을 나누면[兼愛交利(겸애교리)] 전쟁과 같은 불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의 가문을 자기 가문처럼 생각하며,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생각한다면 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③ 불교

-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도덕적 수행이 중요함. 연기(緣起)의 법을 깨달아 마음속의 탐(貪), 진(瞋), 치(癡)를 제거하여 깨달음에 이를 것을 강조함
- 모든 생명체가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에 대한 자각은 자비로 이어짐
-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하여 비폭력을 주장하는 생명 존중의 평화 사상으로 발전함

③ 수기이안백성

정치에 대한 공자의 기본 사상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덕행을 베풀어 모든 사람의 삶을 안정되고 평온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뜻

③ 수제치평

유교에서는 윤리적 실천의 단계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사회,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수제치평은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뜻함

③ 탐진치

열반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으로 삼독(三毒)이라고 함.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의미함

개념 체크

- ()은/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도덕성을 회복하여 인과 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묵자는 유교의 인이 차별적 사랑으로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을/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은/는 평화 실현을 위해서 마음속의 탐, 진, 치 제거와 모든 생명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연기에 대한 자각을 강조한다.

정답

- 유교
- 겸애
- 불교

❖ 아힘사(Ahimsa)

힌디어로,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하듯 정상적인 존재에 끊임없이 따르는 파괴와 고통을 의미하는 '힘사'에 대비되는 말. 힌두교와 불교, 자이나교 등에서 불살생·비폭력을 의미하는 기본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음

개념 체크

- 1 ()은/는 무위의 다스림 속에서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들이 자급자족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2 ()은/는 비폭력을 의미하는 아힘사의 윤리를 바탕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살생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 3 에라스무스는 ()은/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죄 없는 다수가 재앙에 휘말리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

정답

- ① 도가(노자)
- ② 간디
- ③ 전쟁

- ④ 도가
 -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며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이 자급자족할 때 평화를 이룰 수 있음
 - 소국 과민(小國寡民)의 평화로운 사회에서는 많은 도구가 있어도 쓸 일이 없고,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으며 주변국과 교류나 무역이 불필요함
- ⑤ 간디
 - 비폭력(아힘사)의 윤리를 바탕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살생을 금지해야 함
 - 인간은 쉽게 폭력에 휩쓸릴 수 있는 무기력한 존재이므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정심을 행위 원칙으로 삼고 자제력을 키워야 하며, 적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복수심을 가져서도 안 됨

자료 플러스 간디의 평화 사상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비폭력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해도, 그것은 아직 불안전하고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내가 잠깐 볼 수 있었던 잠시 동안의 진실로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실의 광채를 도저히 짐작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눈으로 보는 태양의 빛보다 백만 배나 더 강렬하다. 사실 내가 감지하는 것은 오로지 그 거대한 광휘의 가장 약한 순간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모든 실험의 결과로서, 진실의 완전한 비전은 비폭력의 완전한 실현 이후에나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 간디, "간디 자서전: 나의 진실 추구 이야기" -

간디는 인간은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무기력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비폭력을 숭배하고, 동정심을 모든 행위의 원칙으로 삼아 작은 생물의 살생도 피하고, 그것을 구하려 함으로써 폭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 애써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인간은 자제력과 동정심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아힘사의 정신을 비협력, 단식, 시민 불복종 등의 방식으로 실천하였다.

(2) 서양의 평화 사상

- ① 에라스무스
 - 불화와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야망임
 -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악일 뿐만 아니라 다수가 혹독한 재앙에 휘말리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음
 - 전쟁을 위한 무기 구매, 용병의 모집에 드는 비용, 전쟁에 의한 파괴와 통상의 단절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면, 평화를 달성하는 비용이 훨씬 적음

자료 플러스 에라스무스의 평화 사상

당신이 어떻게 한 손에 구원의 상징을 들고서, 당신의 형제를 죽이기 위해 서둘러 달려갈 수 있는가? 당신이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이려는 그 누군가가 사실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한 성만찬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곧바로 전쟁터로 달려가 잔인한 칼로 여러분 형제들을 찌를 수 있단 말인가? 성만찬은 모두가 존엄하게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긴밀한 연합의 특별한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 에라스무스, "평화의 탄식" -
* 성만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전날 밤에 열두 제자에게 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

르네상스 시기의 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전쟁은 인간을 육체적·정신적·물질적으로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평화는 인간 상호 간의 우애로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말하였다.

② 생피에르

-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교나 도덕성보다는 인간의 이기심과 합리적 이성을 따라야 함
- 전쟁이란 인간의 이기심이 대립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책이 없어 무력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
- 공리적 관점에 근거하여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제시하면 군주 스스로 평화를 지향할 수 있고 군주들의 연합을 만들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봄
- 군주들 연합에서 각국은 주권과 영토권을 보장받으며,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국가 대표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함

③ 칸트

- 전쟁은 인간을 국가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화를 원하며, 평화를 이루어 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인간 존엄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영구 평화론: 전쟁을 예방하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맹의 창설과 세계 시민법의 조건 등을 담은 확정 조항을 제시함

<p>제1의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어야 한다.</p>	<p>칸트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공화 정체의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전쟁 결정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것이므로 전쟁을 더 꺼릴 것이라고 생각함</p>
<p>제2의 확정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p>	<p>칸트는 국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법을 실현할 수 있는 국제 연맹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연방 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음</p>
<p>제3의 확정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p>	<p>칸트는 각 국가가 억압, 약탈, 내란, 반역, 식민 지배 등을 배제하고 우호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교류할 것을 강조함</p>

자료 플러스 칸트의 영구 평화론

순전히 전쟁을 멀리할 의도를 가진 국가들의 연방 상태는 그 국가들의 자유와 조화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상태이다. 비록 무한히 진보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법적 상태를 실현하는 일이 의무라면,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할 근거 있는 희망이 있다면, 이제까지 그릇되게도 그렇게 불렀던 평화 조약에 뒤따라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차츰차츰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 칸트, "영구 평화론" -

칸트에게 영원한 평화는 당장 달성하기는 어려운 하나의 이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는 실행 가능한 도덕적 명령이므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국가들이 서로 도덕적 관계에 있으며 비합리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칸트의 영구 평화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적대감이 제거되고 보편적인 이성의 법이 실현된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원한 평화

개념 체크

- 1 생피에르는 () 관점에 근거하여 군주에게 전쟁에 따르는 불이익과 평화에 따르는 이익을 제시하면 군주가 평화를 지향할 것이고, 군주들의 연합을 만들면 항구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국내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공화정을 도입하고, 국제적으로는 () 창설을 구상하였다.

정답

- 1 공리적
- 2 국제 연맹

☉ 갈통(J. Galtung)

평화학자로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극복한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음

☉ 인간 안보

안보의 궁극적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관점. 전쟁의 부재와 같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 보장 등도 안보 개념에 포함함

④ 갈등: 폭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함

소극적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전쟁, 범죄, 폭행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 • 한계: 빈곤이나 인권 침해 같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을 고려하지 않음
적극적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관습 등에 따른 억압이나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 •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함

2. 세계 시민주의와 세계 시민 윤리

(1) 세계 시민주의의 의미와 특징

- ① 의미: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과에서 발전해 온 사상으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류를 단일한 세계의 시민이라고 보는 입장
- ② 특징

전 지구적 관심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여 지구상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인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다양성 존중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 것을 강조함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애를 바탕으로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 • 갈등 해결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를 만들기도 함

③ 세계 시민주의의 전개

에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민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도 인정함 • 민주 국가의 시민으로 애국심을 지니고 살아가면서도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어야 함
누스바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소속감이나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중시해야 함 •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는 임의적 특성이므로 국경과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정의와 선에 대한 합리적 추론 능력을 함양해야 함

개념 체크

- 1 갈통의 적극적 평화는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 안보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 2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을/를 단일한 세계의 시민이라고 보는 입장을 세계 시민주의라고 한다.
- 3 ()은/는 '출생 지역의 공동체'보다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가 도덕적 의무의 근본 원천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 1 인간
- 2 인류
- 3 누스바움

자료 플러스 누스바움의 세계 시민주의

첫 번째 동심원은 자아를 둘러싸고 있고, 두 번째 것은 직접적인 가족을 포함하며, 이어서 세 번째 것은 확대된 가족을, 그다음에는 순서대로 이웃이나 지역 집단, 동료 시민, 그리고 동료 국민을 아우른다. 이러한 모든 동심원 밖에 있는 가장 큰 동심원은 인류 전체의 동심원이다. 우리의 특수한 애정과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대화와 관심의 공동체 일부로 만들어야 하고, 정치적 사고의 근거를 것처럼 맞물려 있는 공통성에 두어야 하며, 특히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하는 동심원을 유념하고 존중해야 한다.

- 누스바움, '애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 -

누스바움은 우리를 일련의 동심원들에 둘러싸여 사는 존재로 보았다. 그녀는 '모든 인류를 우리의 동료 시민이자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스토아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였다. 누스바움은 우리 모두가 두 가지 공동체('출생한 지역 공동체'와 이성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적 주장과 포부의 공동체')에 속한 주민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근본적 원천은 후자라고 주장하였다.

(2) 세계 시민 윤리를 위한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

① 국제주의적 입장: 롤스

-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향함
- 원조의 목적: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사회 구조와 제도의 개선)
-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각 사회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에 따라 필요한 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평준화할 필요는 없음
- “정의론”의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음

자료 플러스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입장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의 ‘목표 대상’을 규정한다. 목표가 성취된 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 롤스, “만민법” -

롤스는 원조의 목적을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고통을 겪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세계 시민주의적 입장: 싱어

-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함
-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해야 한다는功利주의적 관점에서 원조를 의무라고 주장함
-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음

자료 플러스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입장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지지 않은 것이며,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싱어, “세계화의 윤리” -

싱어에 따르면 커다란 희생 없이도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 따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고통을 겪는 인간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원조해야 한다.

※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

구성원들의 선(善)을 증진해 주고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

개념 체크

- 1 롤스는 ()의 목적을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롤스는 “정의론”에서 제시한 ()을/를 국제적 분배 정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 3 ()은/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라는功利주의적 입장에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원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 1 원조
- 2 차등의 원칙
- 3 싱어

[23014-0229]

01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군자(君子)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어렵게 여겼던 일이다.
- 집 문을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는 귀한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모시듯 하며,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 ① 통치자는 덕으로 다스리며 백성이 평화롭게 살도록 해야 한다.
- ② 통치자는 백성이 무위의 삶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 ③ 통치자는 예(禮)로써 백성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 ④ 통치자는 백성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兼愛] 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⑤ 통치자는 백성의 복지를 위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23014-0230]

0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법의 최종 목표인 영원한 평화는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다. 그러나 영원한 평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원칙들, 즉 영원한 평화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 연합체를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원칙들은 실현 가능하다. 영원한 평화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무에 기초한 과제이며, 인간과 국가의 권리에도 기초한 과제이다.

- ① 영원한 평화는 국제 평화 조약만으로 달성될 수 있다.
- ②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는 국제 평화에 기여한다.
- ③ 공화정은 왕정보다 전쟁을 쉽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 ④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하나의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⑤ 세계 평화는 국가들의 세력 균형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23014-0231]

0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혼란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서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긴다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는가? 남의 몸을 자기 몸처럼 여긴다면 누가 해치겠는가? 남의 집안을 자기 집안처럼 여긴다면 누가 어지럽히겠는가?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여긴다면 누가 공격하겠는가?

- ① 방어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가?
- ② 남을 똑같이 사랑하고[兼愛] 이익을 나누어야 하는가?
- ③ 존비친소를 구별하는 인(仁)으로 타인을 대해야 하는가?
- ④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침략 전쟁은 허용해야 하는가?
- ⑤ 전쟁은 침략당하는 나라에게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가?

[23014-0232]

04 다음을 주장한 현대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진리가 유일신이며, 진리를 실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의 수단밖에 없는데, 그것은 비폭력이다. 나는 비폭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이신 신, 내가 그 이름으로 비폭력 서약을 한 분, 그분이 나에게 서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보기

- ㄱ. 오직 인류만을 대상으로 비폭력을 실천해야 한다.
- ㄴ. 아힘사의 윤리를 바탕으로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 ㄷ. 동정심을 발휘하고 타자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한다.
- ㄹ. 진리의 실현은 폭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3014-0233]

05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화를 일구는 일은 폭력을 줄이는 것(치료)과 폭력을 피하는 것(예방)과 관련된다. 직접적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경우의 폭력이고, 간접적 폭력 혹은 구조적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경우의 폭력이다.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한다.

보기

ㄱ. 신체 폭력과 언어폭력은 직접적 폭력에 해당한다.
 ㄴ.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ㄷ.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면 적극적 평화는 실현된다.
 ㄹ. 평화는 인간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3014-0234]

06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통받는 사회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을,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과 과학 기술적 자원을 결핍하고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적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① 천연자원이 부족해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② 가난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③ 사회 간의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다.
 ④ 고통받는 사회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기 위해 원조해야 한다.
 ⑤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제도의 개선이 중시되어야 한다.

[23014-0235]

07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있을 수 있는 어떤 행위로 X라는 사람과 Y라는 사람 둘만이 영향을 받고, 이때 X가 잃게 될 것이 Y가 얻게 될 것보다 많다면,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갖는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나쁜 일을 방지해야 한다.

보기

ㄱ.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원조해야 하는가?
 ㄴ. 원조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ㄷ.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고통 감소와 행복 증진인가?
 ㄹ.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3014-0236]

08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세계 시민주의 개념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하나는 혈족이나 형식적 시민을 넘어서는 확장된 타인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편적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특수한 인간의 삶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적 헌신을 요구하는 세계 시민주의를 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

- ① 모든 세계인은 단일한 삶의 양식으로 생활해야 한다.
 ② 타국 사람들과 연대하기 위해 애국심을 버려야 한다.
 ③ 세계 시민주의 실현을 위해 세계 정부를 세워야 한다.
 ④ 국가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
 ⑤ 인류 공동체의 가치는 항상 지역 공동체의 가치보다 우선한다.

[5~6]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고,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제1의 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2의 조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제3의 조항).
 을: 제도화된 폭력 구조와 내면화된 폭력 문화와 더불어 직접적 폭력은 제도화되고 반복되며 의식화(儀式化)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문화적 평화가 다양한 상대들 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그리고 협력과 우정, 사랑과 더불어 직접적 평화를 낳도록 노력해야 한다.

[23014-0241]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갑: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 ㄴ. 을: 폭력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 ㄷ. 을: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에서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나아간다.
- ㄹ. 갑과 을: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 억지력을 지닌 강력한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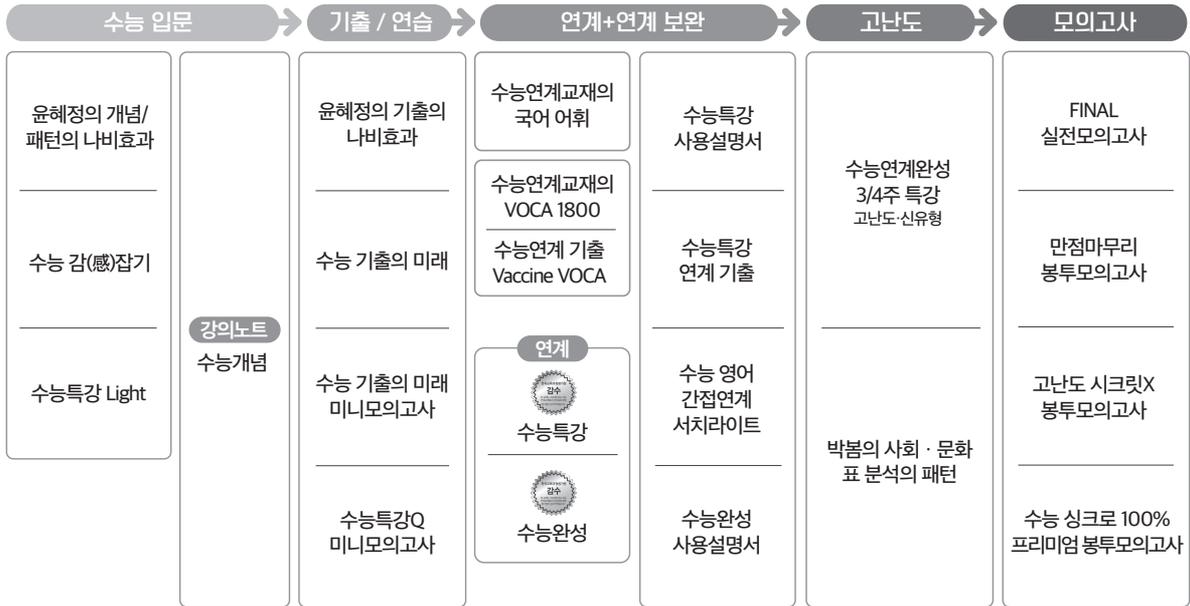
[23014-0242]

6 갑이 다음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의 갈등은 보편적이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가의 이익은 힘을 통해서 실현된다. 국가들 사이의 이익 충돌은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평화는 자국을 보호하는 힘, 그리고 이들 힘 간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만 일정 기간 유지될 뿐이다.

- ① 국제 평화는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임을 간과한다.
- ② 국제 정치는 국가 간 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③ 국제 갈등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④ 국제 갈등은 국가 간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국제 평화는 상비군 폐지와 세계 공화국 수립으로 가능한 것임을 간과한다.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구분	시리즈명	특징	수준	영역
수능 입문	윤희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	국어
	수능 감(感)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	국/영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i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	전 영역
	윤희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희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꼭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없는 실전 훈련, 고품질 기출 미니모의고사	●	국/수/영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품격 미니모의고사	●	전 영역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	국/영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	국/영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모아 구성한 간접연계 대비 교재	●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국어 어휘	수능 지문과 문항 이해에 필요한 어휘 학습서	●	국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	영어
고난도	수능연계기출 Vaccine VOCA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	영어
	수능연계완성 3/4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킬러 문항 대비서	●	국/수/영/과
모의고사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	사회탐구
	FINAL 실전모의고사	수능 동일 난도의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	전 영역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제대로 어려운 최고난도 모의고사	●	국/수/영
	수능 싱크로 100% 프리미엄 봉투모의고사	수능 직전에 만나는, 수능과 가장 가까운 고품격 프리미엄 모의고사	●	국/수/영